

北 韓 訪 問 記

原名：Journey to North Korea



國 土 統 一 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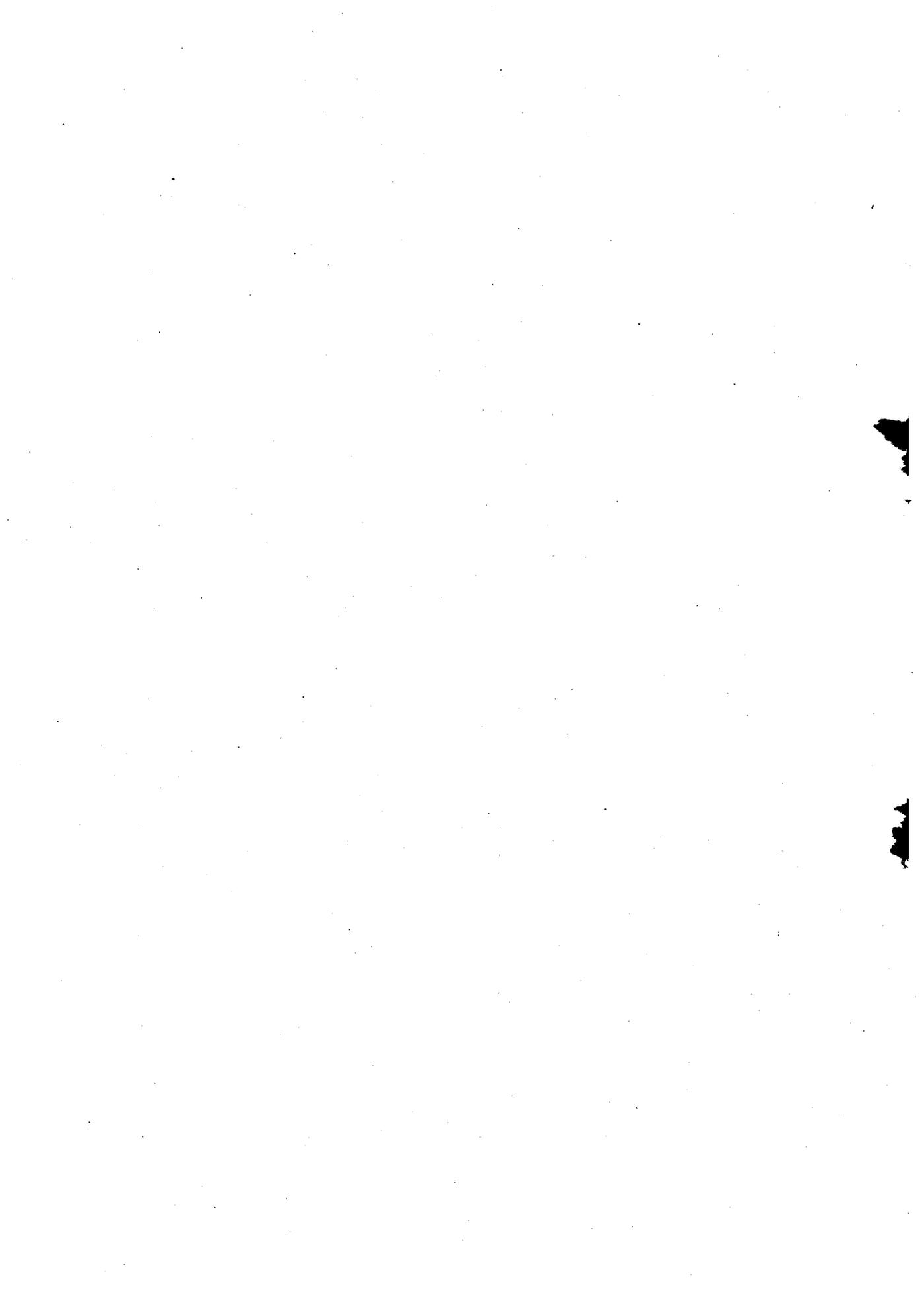
解 說

本 冊子는 1981 年度 在美僑胞學者들이 北韓을 訪問한 記錄文인 Journey to North Korea를 全文 번역한 것으로서 우리 國民들에게 北韓의 實상을 좀더 精確히 알려주기 위하여 發刊한 것이다.

本 冊子の 內容은 序文에도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을 訪問한 여러명의 在美僑胞學者들이 한분야씩 분담하여 집필하였고 관찰한 사실을 客觀적으로 서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北韓共產集團이 선별적으로 해외교포들을 초청하여 北韓을 觀察시키고 있다. 이는 그들이 平和指向的이며 統一指向的일 뿐 아니라 社會主義 體制의 우월성을 과시하여 그들의 침략적이며 反民族的 政체를 가리우는 한편 교포사회에 親北勢力을 구축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共產集團은 北韓을 訪問하는 교포학자들에게도 모든 外國人 訪問客들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내자라는 명목으로 감시원을 동반시켜 北韓地域에 대한 자유로운 觀察를 統制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北韓住民들과의 接觸마저 遮斷하면서 그들이 外國人을 対象으로 하여 전시용으로 마련하여 놓고 있는 특정한 기관과 工場, 企業所, 協同農場등 制限된 範圍의 觀察만을 許容하고 있다.

따라서 本 記錄 內容에 비친 北韓의 實상은 北韓 全地域에 共通的으로 適用될 수 있는 보편적인 事象일 수 없다는 점과 특히 北韓共產集團이 住民들의 豊요로운 생활상을 과시하기 위하여 제시하여 준 수치를 직접 引用한 部分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北韓의 實상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目 次

- 序 文(김 종익, 고 병철)..... 1

- 긴 旅 行(김 종익)..... 5

- 個人崇拜와 後繼者 問題(고 병철)..... 43

- 北韓의 經濟生活(이 채진).....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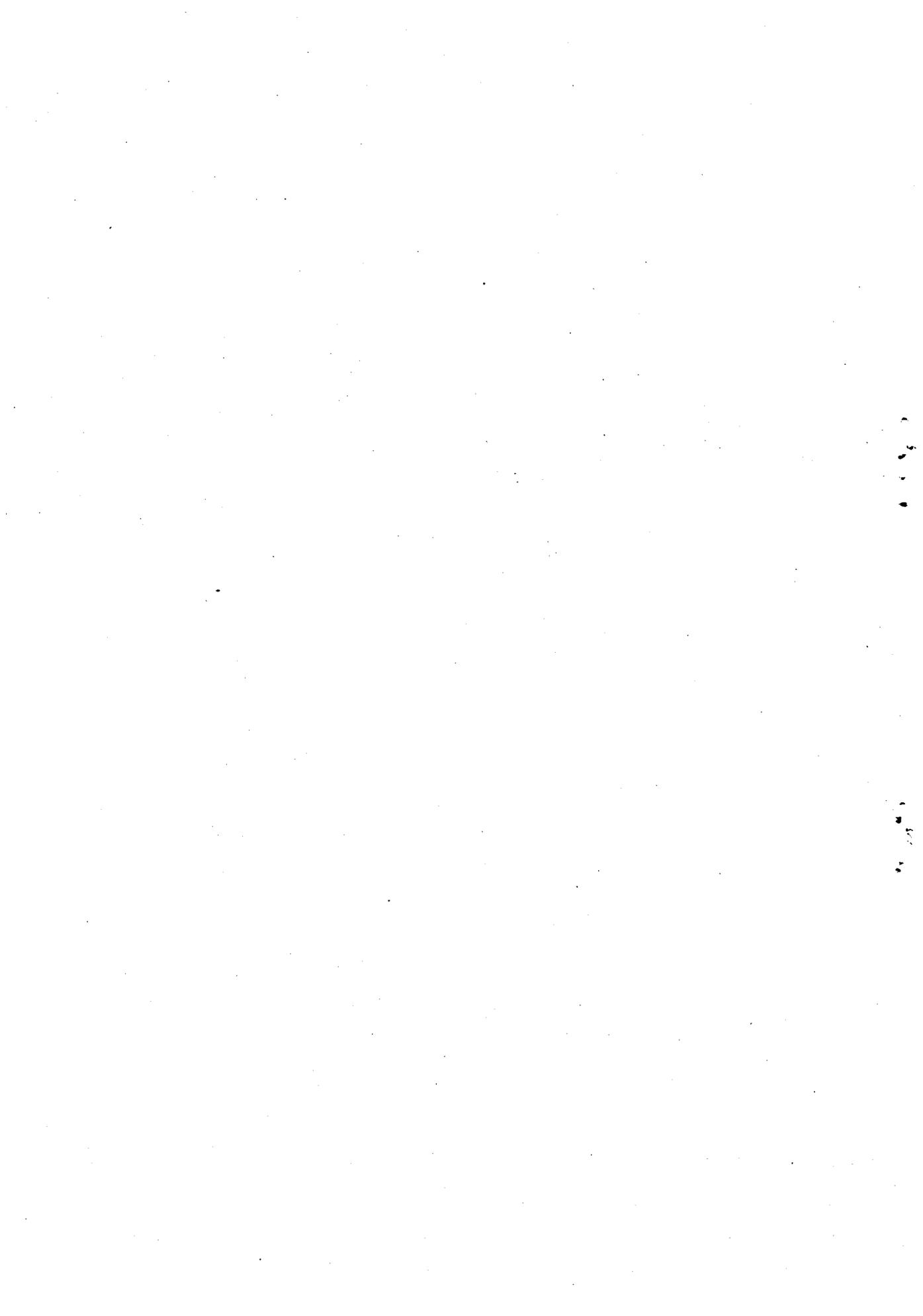
- 北韓의 社會主義 教育(양 성철).....101

- 主體 : 北韓의 이데올로기(박 한식)..... 127

- 北韓人 自身들의 北韓觀(이 만우).....153

- 韓半島 統一問題 : 北韓의 政策과 認識(길 영환).....189

- 結 論(김 종익, 고 병철)215



序 文

本書는 1981年 여름, 北韓을 다녀온 7名의 政治學教授들이 쓴 北韓에 대한 에세이를 모은 것인데, 7명의 教授들 중, 길 영환, 김 종익, 고 병철, 이 채진, 박 한식, 양 승철등 6名은 같이 北韓을 다녀 왔고, 이 만우 교수는 혼자 北韓을 다녀 왔다. 우리들의 北韓訪問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本書를 통해 우리들의 經驗을 讀者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1945年 世界 第2次大戰에서 日本이 연합군측에 항복한 후, 한반도는 南韓과 北韓으로 分割되었다. 우리들이 分斷의 理由와 分斷의 책임소재와 같은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많은 關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現在의 韓半島問題에 關心을 가진 자는 누구나 韓半島 分斷의 原因과 結果를 認識해야 한다. 이 分斷은 1948年 北韓에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을 탄생시켰고 궁극적으로는 한국동란(1950-53)을 가져와서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結果를 초래했다.

北韓은 철저하게 조직화된 共產主義國家이다. 그들은 社會主義 建設의 업적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며, 엄격한 反美主義的 國家로서 美國人の 出入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北韓訪問이 許容된 美國에서 간 사람은 열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北韓을 訪問할 기회를 얻은 것은 커다란 특혜로 생각된다.

우리들은 모두 韓國問題研究에 관심이 크고, 南·北韓의 對內外的 問題에 관해 冊을 出刊한 바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모두가 美國에서 강단에 선 한국교포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韓國에 대해

関心을 갖고 있는 것은 本能的이라 할 수 있다. 韓國을 자주 다녀온 우리들은 점차 北韓의 生活에 대해 지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北韓住民들이 어떻게 그들의 問題를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는 北韓의 官吏 및 學者들과 韓半島의 統一問題와 韓國民族의 平和와 繁榮에 대해 討論하고 싶었다. 상호간의 이해가 南北韓의 國力을 消耗하는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北韓訪問에 앞서, 우리들은 訪問에 대해 얘기할 기회를 가졌는데, 訪問計劃을 짜는 과정에서 北韓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의문과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그러나 北韓에 체류하는 동안 책을 하나 쓸 計劃을 세웠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北韓에서 너무나 많이 經驗했기 때문에 北韓 政治體制의 역학과 住民의 생활실태에 대한 우리들의 인상담을 책을 통해 널리 퍼뜨릴 價値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韓國人으로서 北韓을 訪問했고, 또한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 韓國語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어장벽은 없었다. 北韓에 入國할때까지의 費用은 우리 스스로 負擔했으나 北韓内에서는 貴賓대우를 받았다. 즉, 우리들은 案内員을 따라 많은 旅行을 즐겼고, 可能한 限 北韓의 眞상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北韓에 관한 講義를 여러차례 들었고 北韓의 독특한 면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質問도 하고 상세한 說明을 要求할 수도 있었다. 北韓의 官吏 및 學者들과도 接觸할 수 있었고, 가끔 우연히 만나는 住民들과도 얘기할 수 있었다.

일단 우리들의 北韓訪問에 대해 책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 각각 자

기가 가장 자신있는 분야를 정했다. 그 뒤에 다시 모여 책 내용에 관해 협의했고, 原稿가 完了된 後, 原稿를 돌려가며 內容을 評價 檢討했다. 本書는 이러한 合心努力의 産物이다.

모든 資料는 서로 서로 檢討했으며, 內容 또한 자유롭게 비판·토론했다. 단, 分野別 著者의 독특한 觀察과 經驗은 可能한 限 살리려고 애를 썼다.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內容이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可能한 限 客觀的으로 쓰려고 努力했다. 讀者들—學者, 政治家, 言論人, 學生等—이 本書를 통해 北韓의 構造와 역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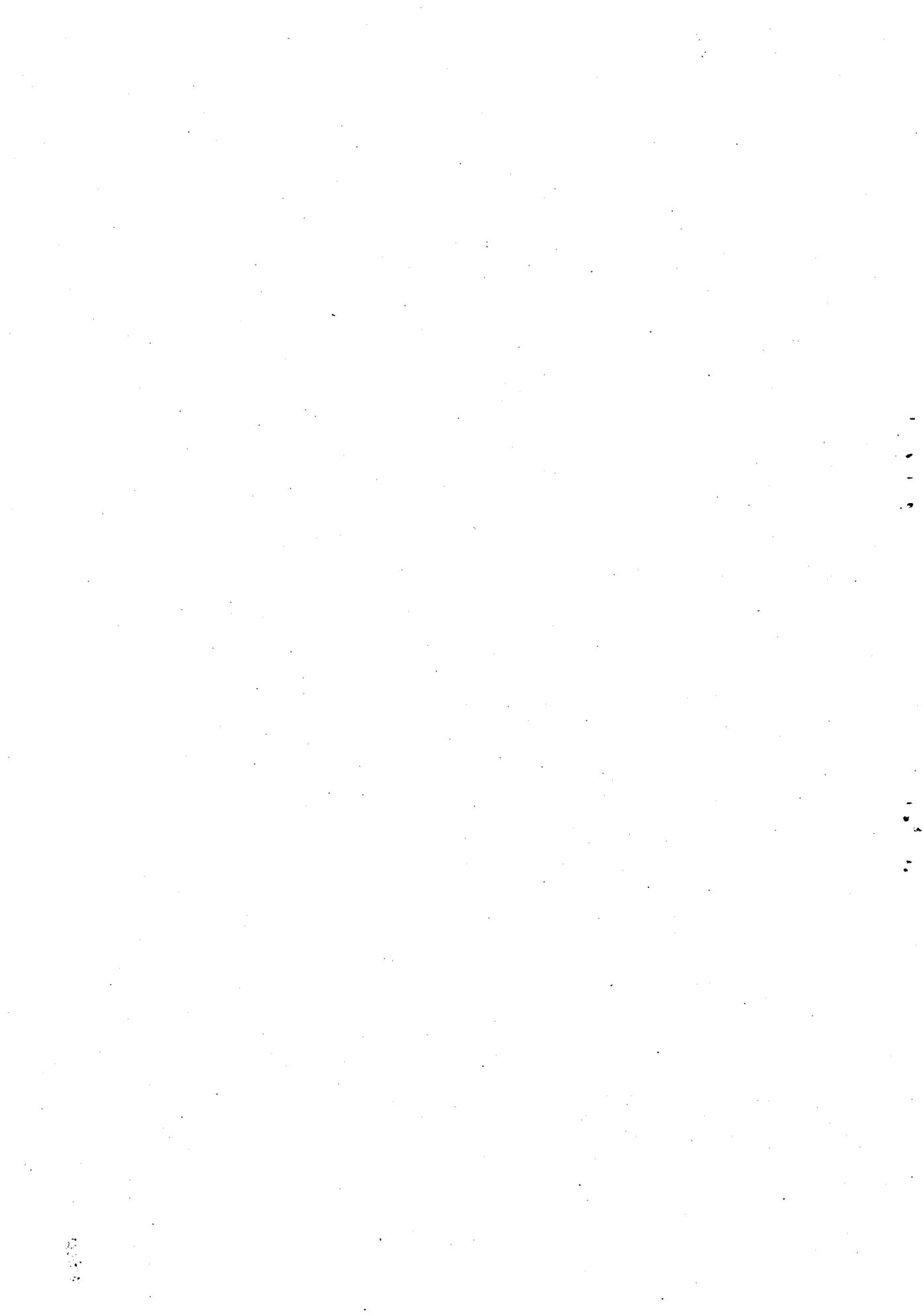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北韓旅行을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리들의 家族들이 가장 積極的이었고 理解心이 많았다. 우리들이 講義하고 있는 學校側도 관대하게 후원해 주었다.

韓國, 日本, 美國에서 우리들의 旅行에 至大한 關心을 갖고 本書 出版을 격려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原稿草案을 타이프치느라 수고하신 웨스턴미시간대학 정치학과 비서진, 특히 로라인 오키이페부인과 도티 바르부인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韓國語의 英譯에는 맥퀸-라이샤우어방식을 썼으며 金日成·金正日 등의 이름과 명확히 알려진 北韓式 用語등은 例外로 했다. 또한 동아시아 問題研究所長이신 로버트 스칼라피노教授와 同研究所 出版調整官 해리 켈달씨, 本書 出版을 도와주신 모든 研究所 職員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익명의 독자와 편집인들의 논평과 제안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아울러 밝히고 싶다.

김 중 익 , 고 병 철



긴 旅 行

(김 宗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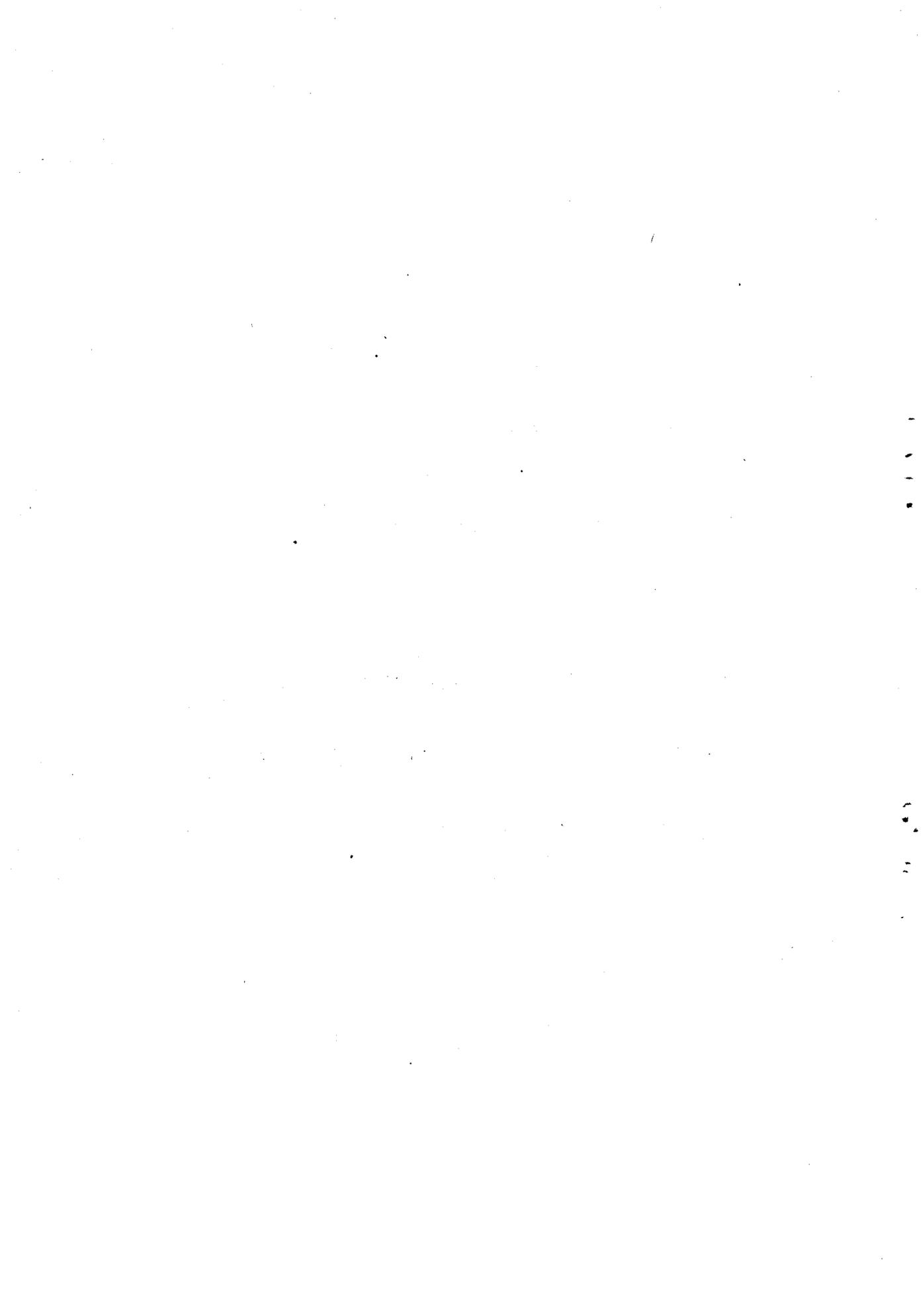
○ 現在 웨스턴 미시간大学 政治学教授

○ 主要著書 :

Korea and the politics of Imperi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arty politics and Elections in Korea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1976)

An Introduction to Asian Politics (Prentice-Hall,
1977)



序 言

1945年 國土分斷 以來로, 특히 韓國動亂을 종식시킨 1953年의 休戰協定 締結 以來로, 北韓은 美國人과 韓國人들에게는 실제로 금지된 땅이 되었다. 단지 몇명의 美國 言論人과 學者만이 入國이 許容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1981年 7月 美國에 사는 우리 일행 6명은 전례없는 北韓訪問招請을 받았다. 우리들은 모두 韓國出身으로 家族들과 친구들이 아직 韓國에 살고 있다. 北韓에 가본적이 없이 韓國問題에 관해 오랫동안 研究해 온 우리들로서는 北韓을 直接 보고, 그곳의 官吏와 學者들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다.

英語로 쓰인 北韓訪問記가 몇권 있지만, 그것들은 대개가 西洋人들이 쓴 것으로 作家의 理念的 색채가 가미된 것이다. 그들중에는 北韓의 共產主義 體制와 그 業績에 공공연히 동조하는 맑스主義者들도 있고, 北韓의 많은 規制를 非難하고, 金日成이 北韓住民들에게 가하는 통제역학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강력한 北韓反對論者도 있다.

美國에 사는 韓國出身人이 쓴 몇권 안되는 北韓訪問記도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것이 못된다. 예를들면, "새벽의 暗黒"은 北韓에서 出生·成長한 作家의 자서전의 일종으로 그의 故鄉訪問에 대해 감상주의적이고 그곳에서의 어린시절에 대한 회고로 일관된 책이다.

1976年 그의 訪問동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있을 때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 무덤을 찾았을 때, 그의 감정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자, 보라! 몇 피이드 높이의 회색 묘석에 '존경스런 현원국의 무덤'이라고 비문이 새겨져 있지 않는가 '드디어 찾았다' '나는 찾

있노라' 하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라고 썼다. 그러나 현씨의 訪問은 그의 目的을 達成하지 못한 채 실망과 좌절로 끝났다. 그는 訪問에 앞서 Harper 雜誌社와 CBS TV와 北韓에 관한 冊發刊 및 記錄 映画製作 契約을 했었다. 그러나 그가 말했듯이 놀랍게도 나의 3週間 北韓滯留는 고립된 별장에서, 맑스 - 레닌主義 및 金日成 思想과 교리에 대해 金日成大學 教授로부터 수 많은 講義를 들으면서, 反美, 反韓國 宣傳映画를 보며 보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契約을 이행할 수 없었다.

저널리스트 냄새가 풍기고 취재가 제한된 것이긴 하나 英語로 쓰여진 北韓訪問에 대한 가장 均衡化된 見解를 피력한 책은 아마도 헤리슨·솔리스베리의 것일게다.

그는 "北京 넘어"라는 그의 著書에서 北韓에 대해 2章을 할애했다. 1972年 솔리스베리는 韓國動亂 以後 北韓을 訪問한 最初의 非共產主義的 美國人이 되었다. 그는 그의 訪問에 滿足하지 않았는데, 그 理由는 "16日間の 인터뷰, 觀光, 工場, 學校, 幼稚園, 大學, 劇場, 博物館 訪問동안 나는 단지 北韓의 한 거리만을 걸어 다녔고, 그다음 150야드쯤 걸어 갔을때 통역자가 흥분하여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나와 동행했다. 勞動者의 아파트에도, 가게에도 가보지 못했다"는 그의 말 그대로이다. 그러나 솔리스베리는 그의 예리한 눈으로 北韓의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그가 목격한 것을 記錄했다.

"나는 北韓과 같이 엄격하게 獨立的인 나라를 본적이 없다. 맹목적 愛國主義, 外國人 嫌惡, 증오(천성적, 후천적), 疑心, 美國人에 對한 적대감(일반적으로 모든 外國人에 대해서, 아마도 日本人에 대해 가장

심한 적개심), 인디애나에서 흔히 얘기하는 조바심, 이러한 特質이 천성적 우아함과 은유, 지나칠 정도의 환대, 자부심과 위엄, 職業倫理에 대한 강한 献身, 강한 愛國心, 忍耐, 끈기, 目的意識등과 복합되어 있다. 솔리스베리는 金日成과 約 3 時間을 같이 보냈는데, 그는 대개 金日成의 얘기를 듣는 편이었고, 金日成은 얘기를 즐긴다고 생각했다. 이 담소에서 金日成은 自主統一의 必要性을 言及했고, 그의 얘기는 反美的 색채를 띠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金日成은 美國과 北韓間의 小規模 交流를 시작할 시기가 왔다고 토론했다.

솔리스베리가 본 金日成의 고백은 最近의 情勢에 비추어 흥미진진한 것이다. 1980年 7月에 北韓을 訪問, 金日成을 만난 솔라즈議員은 金日成은 美國과의 文化, 學者 및 其他 交流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솔라즈議員은 이점에 대해서 美國은 金日成을 試驗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美國人 個個人과 團體들은 北韓을 訪問하고, 北韓人을 美國으로 招請함으로써 北韓人들이 金日成의 확신을 實踐에 옮기도록 계속 努力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따라서 별 사전 계획이 없었지만, 1981年 7月 우리들의 北韓訪問時期는 가장 적절했다. 北韓訪問前에 솔라즈議員과 얘기한 적은 없었다. 우리들이 北韓訪問으로부터 돌아온 後인 1981年 8月에야 솔라즈의 報告書가 出版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北韓訪問에 앞서 美國務省官吏들과 얘기했다.

訪問計劃을 짤 때 北韓當局이 가장 協助的이었다. 北韓當局은 우리들이 個別的으로 訪問하기를 원했으나, 우리들이 團體訪問을 제의했을 때 反對는 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團體旅行이 일련의 個別的 訪問보다

더 有利한 점이 많다는 決定을 내렸다. 北韓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
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團體로 旅行함으로써 우리들이 각자의 觀察을
檢討하고 의문점을 한데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團體로 旅行할 경
우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서도 우리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
을 것이고, 개별적으로 旅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운반할 수 있
다는 생각도 들었다.

압록강을 건너서

출발일자가 가까와 오며 따라, “정말 가야 하는가?, 그곳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우리들을 保護해 줄 美國外
交公館이 없지 않는가?” 등등의 旅行에 관한 불안이 점점 커졌다.

7月 13日, 일행중 4명은 旅行의 첫번째 訪問地인 東京에 모였고,
나머지 2명은 이미 北京에 도착했다.

우리들의 計劃에 의하면 6명이 7月 13日 北京에서 합류해서 7
월 15日 團體로 평양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東京에서 우리들은 팬 아메리카社의 동경발 北京行 7月 13日字 저
녁 비행기가 취소되어, 東京에서 하루 머물러야 한다고 들었다.
利用 可能한 다음 비행기는 그 다음날 저녁의 차이나 에어라인이었다.
이미 北京에 도착해 있는 두명의 동료들을 놓치게 되어, 그들이 우리들
이 北京으로 올지 못할지 궁금해 하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때문에 우리
들은 그들과 電話通話를 하려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7月 14日 밤 9時頃에 中共의 首都 北京에 도착했다. 약 천만명

이 드나드는 北京國際空港은 작고 보잘것 없었다. 우리들이 짐을 기다리는 동안, 키가 크고 야윈 사람이 접근해서 우리들의 身分을 물었다. 歡迎을 公開發적으로 표하지는 않았다. 단지 北京駐在 北韓大使館에서 나왔다고 피곤한 듯이 소극적으로 紹介했다. 그제서야 우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채 안도의 한숨을 돌리기 전에 우리들은 다른 두명이 그날 午後에 이미 평양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中共과 北韓은 가까운 同盟國이어서 兩國間에는 通路가 많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상은 화요일의 北韓航空과 금요일의 中共航空에 의한 一週日 두차례의 비행기 밖에 없었다.

비행기 한대에 약 50명의 乘客이 탈 수 있었다. 北京駐在 北韓大使館側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火曜日 비행기를 豫約해 두었으나, 예기치 않았던 東京에서의 遲滯로, 단지 2명만이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2명이 기다릴 수도 있었을 텐데” “北韓 官吏들이 우리들을 분리시키려고 애쓰는 모양이야”하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 여행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중 몇개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았다.

金曜日 비행기는 예비좌석만이 利用 可能했다. 可能的 限 빨리 평양에 도착하려면, 木曜일에 出發하는 기차를 타라는 조언을 들었다. 기차편은 오래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골 풍경을 즐기게 해주는 보너스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서슴지않고 그 提案을 받아들였다.

그날밤 늦게 우리들은 아무런 의식없이 北京空港 부근의 호텔로 案内되었다. 10代 또는 20代 初盤으로 보이는 호텔종업원들은 매우

親切했으나, 우리들은 일종의 고립감에 휩싸였다. 그날밤 할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호텔식당은 넓었으나 손님들은 드문드문 있어 한산해 보였다. 日本人, 美國人, 유럽人 등 몇명의 觀光客들이 우리를 지어 드나들곤 했다.

호텔에서 택시로 약 30분 걸리는 北京市內에 자리잡은 北韓大使館은 거대한 관사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들을 空港에서 태운적이 있는 北韓 運轉士를 다시 만났다. 公式的인 歡迎이나 브리핑은 없었다. 北韓旅行許可는 節次에 依拠 순조롭게 發行되었다. 우리들은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豫想했었다.

北京에서 볼 것도 많고 평양으로 出發하기 전에 할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급히 北韓大使館을 나왔다.

北京 - 平壤列車(夜間 寢台車)料金으로 各各 60 弗씩 支拂했다. (우리들이 中共乘客보다 더 많이 支拂했다는 事實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우리들은 깨끗한 조그마한 방으로 들어갔다. 기차는 7月 15日 木曜日 午後 4時 55分 정각에 出發했다.

드디어 기차는 방대한 中國과 만주를 가로질러 北韓으로 向해 달리고 있었다. 같은 방에 다른 乘客들도 합류했다. 몇명은 北韓 官吏처럼 보였다. 종종 평양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우리들의 머리를 스쳐갔다.

우리들은 차창밖의 만화경같이 펼쳐지는 전경들을 보는데 정신을 잃고 있었다. 방안은 더웠고 창문위의 벽에 매달린 작은 선풍기는 더위를 몰아내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티-셔츠와 짧은 바지만을 입고 가능한 한 편히 하려고 애썼다.

中共은 커다란 나라였다. 기차는 친진, 산해관, 심양, 단동을 경유해 달렸다. 도시와 도시, 거대한 농토가 있고 있었고, 간간이 조그마한 마을이 자리해 있었다. 시골쪽에는 포장된 도로는 없었으며 주택은 가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뻥뻥히 들어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마을에서도 자전거는 볼 수 있었다. 곧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7月 16日) 우리들은 압록강을 건너 北韓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驛인 단동(예전의 안동)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北韓으로 향하는 客車는 分離되어 北韓 기관차에 연결되어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 연결되는 다리를 천천히 건넜다. 드디어 生後 처음으로 北韓땅으로 들어서는 歷史的인 순간이었다. 우리들은 서로서로의 긴장된 표정에 시선을 던졌다. 그 다리는 낮고 보잘것 없었고, 우리들이 건너는 部分의 압록강은 생각보다 좁았다. 몸에 비해 크고 더워보이는 군복을 입어 우중충하게 보이는 北韓 國境守備隊員이 우리들의 旅券과 入國許可書를 조사하는 동안 신의주에서 기다려야 했다. 뭔가가 잘못 되어 우리들의 入國에 대해 質問하지나 않을까 긴장된 순간이었다. “美國에서 오셨수”하고 묻고는 “거기서 무얼하슈” “미국에서의 대우는 어떻수”하고 質問을 하였다.

우리들은 이런 예기치 않았던 이상한 質問에 놀라 서로서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書類는 이상이 없었고 곧 入國이 許可되었다.

신의주역은 交通도 번잡하지 않고 사람도 거의 없는 조용한 곳이었

다. 食堂, 茶房 또는 선물가게 등을 찾았으나 눈에 띄지 않았다.

유일하게 우리들의 주의를 끈 것은 驛에 걸린 實物보다 큰 金日成의 肖像面였다. 모든 驛務員들은 마치 金日成을 위해 꾸준한 운동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金日成배지를 달고 있었다.

신의주驛 옆의 조그만 公園에 두세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위축되어 있어 보였다. 아이들이 노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역으로부터 넓은 도로가 고층 건물과 나란히 뻗어 있었다. 金日成을 찬양하고 住民들로 하여금 보다 열심히 일하고 國家에 獻身하도록 종용하는 현수막이 건물 꼭대기로부터 드리워져 있었다. 都市는 깨끗하고 밀집되지 않는 것 같았다.

신의주에서 평양까지는 기차로 약 5시간 걸렸다. 兩都市 사이에는 큰 都市가 없었다. 시골은 정결하고 번창하는듯 했고, 토지는 完全히 利用되고 있는듯 했다. 철길에서 멀리 떨어져 자리잡은 農家들은 갈끔해 보였다. 기차가 평양에 接近해 감에 따라 우리들은 씻고, 옷을 갈아 입느라 바빴다. “넥타이를 매야 해” “역에서 아마도 리셉션이 있을지도 몰라. 世界旅行者로서 뜨내기처럼 보여서는 안돼” 하고 서로에게 주의를 주었다.

7月 17日 金曜日 午後 3時 55分 기차가 평양시 교외를 통과해 마침내 평양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우리 일행 네명은 차례로 옷을 입었다.

우리들이 기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北韓官吏가 다가와서 우리들의 身分을 調査하고 기차에서 내려 주었다. 플랫폼트포에서 색동 치마저고리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4명의 靑年 아가씨들이 우리들에게

꽃다발을 걸어주고 군대식 인사를 하고는 우리 손을 잡고 같이 섰다. 그들의 눈을 보고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접견대열이 있어 인사를 주고 받았다. 그다음 우리들은 VIP 대기실로案内되었다.

“旅行은 어떠했습니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오신 것을 歡迎합니다. 참 피곤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을 歡迎하는 사람들은親切하게 인사말을 던졌다. 환영단은 몇명의 著名한 北韓教授, 案内員, 우리들의 公式招請團인 海外同胞委員會의 代表들로 構成되어 있었다.

우리들은 도착이 지체된데 대해 사과하고 동경발 북경행 비행기에 대해 說明했다. 그들은 이런류의 지연은 美國에서 豫想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우리들은 다른 두명의 동료에 대해서 물었다. 그들이 호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숨을 놓았다.

접견실에 잠깐 머문 후, 우리들은 4대의 벤즈 리무진에 나누어 타고 보통강호텔로 갔다.

우리들 각자 각자에 案内員 한명씩 같이 탔다. 호텔에서야 비로소 두명의 동료를 만났다. 그들은 사흘전에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 그들은 健康하고 잘 適應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쨌든 그들을 만나서 무척이나 기뻐했다. 호화판 리셉션에 초대되었다. 平和統一努力에 대한 호소로 끝을 맺는 환영사가 있었고, 답사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訪問目的 즉, 韓國民族의 福祉와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에 관심을 가진 美國에 사는 韓國人으로서 北韓에 대해 직접 알고 싶다고 반복했다. 유쾌한 밤이었다. 전백을 나누었고, 많은 음식이 나왔다. 그러나 우리들이 체류할 동안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염려는 우리들 마음

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평 양

옛날에 韓國의 여러 王朝의 首都였던 平壤은 유서깊은 고대도시이다. 서쪽으로 만주와 國境을 하고 있는 北韓의 北西部地方은 한때 中國의 支配下에 있으면서 平壤의 統治를 받았다. 따라서 平壤市는 中國文化의 影響을 강하게 받은 곳이다. 7世紀 新羅王朝에 의해 韓半島가 統一된 以來로 平壤의 重要性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歷史的 意義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滯留하면서 보았던 平壤은 새로운 現代都市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말대로 유엔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산산조각이 났던 韓國 戰爭 以來로 平壤은 完全히 再建되었다. 都市의 中心部에는 넓은 道路와 高層建물이 均衡있게 자리잡고 있었고 양쪽으로 대동강과 보통강이 흐르고 있다. 강을 따라 公園이 있고, 중심가를 따라 街路樹가 줄지어 서 있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김일성 偶像화를 역력히 드러내고 全體 都市를 非現實的 霧囀氣로 감싸는 展示館이었다. 百萬名 以上이 사는 大都市 치고는 가게수가 극도로 적었는데, 모두가 政府所有로 政府가 運營하고 있었다. 복잡한 골목은 없었고 교통은 한산했다.

대동강변을 따라 平壤市를 내려다보는 언덕 꼭대기에 자리잡은 平壤 교외에 있는 만경대는 北韓의 중요한 사적지로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金日成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이다. 그가 태

어나서 가난한 농부였던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집은 초가집으로 完全하게 再建立해 놓아서 모든 사람이 그곳에 와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또한 반일혁명투사이자 民族指導者로서의 金日成의 등장을 만경대 혁명역사박물관에 記錄해 두고 있다.

만경대 언덕 위의 초가집 뒤에서 金日成이 여러시간을 앉아서 명상했다고 들었다. 만경대 언덕 위에서 그의 발 아래에 平壤市 全體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다. 우리들은 이 언덕 위에서 都市의 中心部에 있는 北韓의 革命博物館 앞에 세워진 20미터 높이의 靑銅로 된 金日成 銅像을 볼 수 있었다. 나에게서는 平壤이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거대한 사적지라는 印象을 주었다. 勿論 그것은 住民들이 代價를 치른 것이었다.

모두 金日成을 위해서 또는 그의 이름으로 된 인상적인 建物과 博物館이 준비해 있었다. 어떤 것들은 눈에 띄게 거대해서 웅장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이런 건물을 지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費用이 얼마나 들었는가?” 우리들은 이와 같은 質問을 종종 던졌다.

“人民들이 원했기 때문에”, 라고 案内員은 대답했다. 그러나 많은 建物과 博物館들이 거의 使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았고 非經濟적으로 지은 것 같았다. 수많은 金日成 記念館 建立에 있어서 效率性 및 經濟性은 높은 比重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았다. 北韓에는 費用에 對한 資本主義的 競争이나 憂慮가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平壤은 박물관으로 가득찬 都市였다. 만경대 사적지와 博物館, 革命博物館 以外에도 芸術博物館, 民俗博物館, 中央歷史博物館, 靑銅혁명사박물관

관, 朝鮮勞動黨 創建 記念博物館, 戰爭勝利博物館 등이 있었다. 또한 혁명투사의 무덤이 있었다. 물론 우리들은 制限된 時間에 博物館을 다 訪問할 수는 없었다.

平壤은 다른 매력을 또한 갖고 있었다. 平壤地下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깊이가 100미터 이상이고, 各 電鉄駅은 대리석 기둥으로 되어 있고 벽은 타일로 그림을 그려 놓아서 마치 궁전과 같았다. 駅은 티하나 없이 깨끗했다. 電車는 2~3分 간격으로 정시운행되고 있었다.

1980년에 建立된 커다란 産婦人科病院은 現代式 外製裝備를 갖추고 있었다. 그 病院에서의 모든 治療는 無料였다.

平壤旅行中에 만수대의사당, 인민문화궁전, 平壤體育館, 창광원오락실, 평양학생어린이궁전, 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 만수대극장, 대성산 및 보통강운동장, 金日成大學 및 其他 教育機關, 많은 日日 및 週託兒所등의 名所들도 둘러 보았다.

旅行과 案内

平壤의 觀光名所 몇군데를 둘러본 후, 우리들은 모든 곳을 다 가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博物館들은 金日成과 北韓의 發展을 찬양하는 글귀들로 나열된 반복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와 똑같은 主題의 글귀가 學校와 劇場에도 반복되어 있었다.

平壤에서의 첫날 하루는 規則적이고 의식적이었다. 아침에 우리들은 金日成 出生地인 만경대로 案内되었고 午後에는 中央歷史博物館을 둘러

보았다. 저녁에는 평양교예극장에서 교예쇼우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은 北韓에서의 전체 체류기간 동안 最初로 아마도 唯一하게 北韓住民의 웃는 모습을 보았다.

경찰과 도둑의 코메디에서 특히 웃음소리가 컸다. 남한경찰복장을 갖춘 경찰들이 도둑들이 감추어 놓은 훔친 물건자루를 그들끼리 나누어 갖는 장면이었다.

北韓에서는 웃음과 쾌활함이란 정말 보기 힘든 것이었다. 住民들은 누추하고 지치고 심각한 모습이였다. 생활이 힘든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失業者는 없고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住民들이 반드시 그들 勞動의 結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生産의 大部分은 南韓을 意識하는 軍事力 增強 및 (특히 平壤에서의) 비싼 博物館과 公共建物 建立, 社會奉仕 支援 등에 充當되어야 했다. 基本的 生計, 教育, 医学治療는 住民들에게 提供되었으나, 그들은 國家建設과 南朝鮮의 兄弟 解放을 위해 끊임없이 犧牲을 강요당해야 했다. 住民들에게는 즐기기 위한 기회나 위로라고는 없었다. 우리들이 評價할 수 있는 바로는, 配給된 商品과 집은 비싸지 않으나 生活의 쾌적함을 맛볼 수 있는 그밖의 다른 것을 구할 수 없었다.

北韓에서의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다. 그날 저녁 우리들은 北韓에서의 日程을 짜기로 결정했다. 北韓側에서 우리들을 위한 計劃을 짜놓은게 틀림없었으나, 우리들은 우리들의 訪問이 浪費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리들은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의 目錄을 作成해서 首席案内員에게 건네 주었다.

그 目錄에서 攷 것을 보면,

- 金日成 또는 金正日과 會談
-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高位政府官吏와 會談
- 一般 市民들과의 만남 및 工場과 農場 訪問
- 住宅地 訪問
- 우리들끼리의 쇼핑과 산보
- 北韓學者들과의 意見交換
- 金日成大學을 비롯한 教育機關 訪問
- 오페라 관람
- 금강산관광 등이다.

우리 案内員들은 最大限 協助하려고 努力했다. 그러나 결국 우리들은 金日成이나 金正日과는 만나서 얘기하지 못했다. 다만 부주석을 만났다. 또한 北韓學者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었고 教育機關과 文化施設을 둘러 보았다. 이외에도 저녁에 오페라와 映画도 보았다.

集團農場과 工場, 아파트를 訪問했고 百貨店에도 잠깐 들렀다. 묘향산과 금강산을 觀光했고, 금강산으로 오가는 길에 北韓의 東海岸에 자리잡은 江原道の 道廳所在地인 원산에 들렀다. 그러나 우리들끼리 다니면서 北韓住民들과 얘기하고 觀光客들이 다른나라에서 할 수 있는 쇼핑을 할 自由는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들이 만난 정준기 부총리는 50대 후반이었는데 노련한 政治家이자 成功한 行政家로서의 인격과 용모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우리가 사전에 제시한 質問에 대해 열성적으로 대답해 주었다. 그는 숫자를 쉽게 열거했다. 회견중에 어떤 問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融通

성을 보였으나 北韓의 對韓國·美國 立場에 대해선 明確하게 얘기했다. 우리들과 인터뷰를 가진 후, 그가 우리들이 그의 답변을 어떻게 評價하는지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들에게서 그는 합격점수 이상을 받았다고 確信한다.

정준기는 北韓은 美國과의 善隣關係를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하면서 만약 美國이 진정으로 韓半島 平和에 關心이 있다면, 이제 美國이 行動을 취할 때라고 主張했다.

우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南北對話를 再開하고 南北間의 모든 交流 특히 學者交流를 추진하라고 촉구했지만, 그는 現在로서는 韓國과 對話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또한 그는 北韓은 금기의 나라가 아니라고 主張했다.

“訪問者들은 歡迎입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北韓은 그들 自身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필요로 하지만 生産할 수 없는 것을 外國으로부터 購入하고, 그들과 交易를 통해 배울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北韓의 “주체” 사상은 人民들이 國際市場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도록 특히 생활필수품에 관한 한 自力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說明했다.

정준기는 우리들이 만났던 北韓官吏 어느누구보다도 얘기하기 쉬운 상대였다. 北韓은 높은 계급에는 자신감과 권력이 함께하는 社會였다. 정준기와 만난 후, 그가 우리들과 함께 있을 때 다소 당황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들이 그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궁금했다. 나의 안내원은 우리들의 태도와 質問이 못마땅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매우 기분상했던게 분명했다. 우리들의 質問은 그에게는 별난 것으로 여겨졌고, 그

는 우리들이 공손과 예절이 결여돼 있다고 비난했다.

나는 그가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준기는 우리들 때문에 기분이 상했거나 화가난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우리들과의 얘기를 즐겼다고 생각된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할 것이지만, 우리 旅行에 대해 좀 얘기하고자 한다.

청산리협동농장은 平壤에서 약 35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6대의 벤츠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달려 農場에 到着했는데 시골길을 달리는 세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들이 지나갈 때 길가의 어린이들이 경례를 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경례할 필요가 없죠. 경례받는게 어색하군요”라고 내가 案内員에게 말하자 그는 “어린이들은 外國 訪問客에게 공손해야 한다는 것과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라고 説明했다.

우리들이 協同農場에 到着했을 때, 農場官吏들이 우리들을 歡迎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金日成 銅像이 거기에도 있었다. 옛날에는 가난했던 이 農村 마을이 金日成의 指導와 교시 덕분에 번창한 協同農場이 되었다고 얘기했다. 1960年 2月 金日成이 청산리를 訪問하고 現地指導와 교시를 내렸던 것이다. 그 결과는 청산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農夫들 사이에 政治意識을 높이고 協同農場의 行政家들과 農民들간의 關係改善을 통해 生産性を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1964年 2月 당에서 “社會主義 農村問題에 관한 테제”를 採擇했는데, 그것은 協同農場 勞動者들로 하여금 ‘命令系統의 單純化’, ‘業務의 專門化’, ‘勞動의 多樣化’, ‘技術化’ 등 네가지 原則을 따르도록

강조하고 있다.

청산리農場은 모범적 농장임에 틀림없었다. 그곳은 3,000 명이 사는 번창하는 農村인것 같았다. 좁은 도로나 구불어진 더러운 도로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포장은 안되었지만 거리가 넓고 直線으로 되어 있었다. 傳統的인 초가집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대신 아파트 형식의 주택가가 들어서 있었다. 또한 幼稚園과 一日託兒所에서 예쁘게 차려입은 健康한 어린이들도 볼 수 있었다.

청산리관리들에 의하면 1980年 平均家計收入이 穀物 10톤과 1,700 원(약 850 弗)이었고 大部分의 家庭이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고 한다.

北韓의 各 協同農場은 生産物의 80%를 國家에 販賣하고 나머지는 노동자의 계급과 그들의 1年동안의 노력공수에 따라서 勞動者들에게 分配된다는 事實도 알게 되었다. 보통 가장 높은 等級의 勞動者는 트랙터 기사와 정비사이다.

北韓의 모든 農場은 協同農場이고, 하나의 協同農場은 한개 마을(리)로 構成된다. 協同農場은 農業生産의 基礎單位일 뿐만 아니라 政治, 行政單位이기도 하다. 各 協同農場에는 자체의 幼稚園과 11 学年까지의 公立學校, 어린이 탁아소, 醫師들과 看護員이 있는 保健所가 있다. 또한 여러가지 文化行事와 政治活動이 開催되는 會議場도 있다.

協同農場은 勞動의 形態에 따라 生産소조로 나누는데 각 소조는 약 20명의 勞動者로 構成된다. 소조내에는 보통 3명의 勞動者로 構成된 監督委員會가 있는데 規模는 小組에 따라 다르다.

리의 最高 統治機構는 里管理委員會이다.

同 委員會의 20명 남짓한 委員들은 每年 總會에서 選出된다. 이러

한 統治機構는 同級 黨委員會와 連結되어 있다. 黨에도 自體의 統治委員會를 갖고 있다. 청산리에는 勞動者의 約 60%가 黨員이라 한다.

우리들은 平壤에서 約 35 키로미터 떨어진 大同江을 따라 高速道路邊에 자리잡은 大安전기기계 종합공장도 방문했다. 이 工場도 北韓의 觀光名所 中の 하나인데, 그곳은 특히 金日成이가 大안의 事業체제라는 事業방법을 천명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공장근처에 工場勞動者들이 사는 高層아파트 建物이 矗 늘어서 있었다. 北韓에는 모든 勞動者들이 그들 作業소 부근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 工場은 본관건물을 中央에 두고 矗 늘어선 거대한 工業團地였다. 1945年 日本人들에 의해 처음으로 세워졌고 그 以來로 定期的으로 擴張되어 왔다. 工場施設을 계속 擴大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들이 갔을때 建設이 進行中이었다. 同 工業團地는 전체 넓이가 114 정보 (285 에이커)에 달하고 約 8,000 명의 勞動者 (약 40%는 女性)들이 일하고 있었으며 8시간씩 2교대 조로 나뉘 있었다. 北韓에서는 差別給料制度가 採擇되고 있으나 最低賃金이 月 80 원, 最高가 130 원으로 차이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다. (公式換率은 1 원에 約 50 센트 比率이다.) 基本給料 以外에 勞動者들은 工場學校에서 無料技術教育을 받을 수 있다.

1961年 12月 金日成이 이 工場을 視察하고 生産을 加速化하기 위한 千里馬運動을 奨勵하라는 현장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대안의 事業방식’은 勞使間의 緊密한 關係維持를 위한 것으로 經營陣은 勞動者로부터 배우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指導하며 革命意識과 열의를 고취시키는 일을 担当한다.

金日成이 1961年 最初로 現地指導한 以來 자주 다녀갔는데 그 날
자들을 붉은 표시로 해둔 것이 눈에 띄었다.

工場을 視察하는 동안, 많은 外國製 機具와 機械들이 使用되고 있는
것에 놀랐다. 勞働者들은 대개 젊은 편이었고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勞働者들로 하여금 生産目標를 達成하도록 일깨우는 표지판과
포스터들이 工場 여기저기에 나붙어 있었다.(北韓의 第2次7個年計劃은
1978年에 시작되었음) 그러나 工場이 完全 稼動되고 있지 않는것
같았다.

北韓이 産業化되면 될수록,北韓이 外國과 交易해야 할 必要性이 점
차 增大되는 것은 分명한 事實이다. 이 工場은 電氣發電機를 生産하
고 있는데, 앞으로 어려운 問題에 直面할 것 같았다. 왜냐하면 國內
需要만으로는 모든 現代式 生産施設을 다 利用하고 숙련노동자들을 다
雇傭하기에는 不足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은 生産品을 輸出해야
하나, 지금 現在로서 直面한 課題는 아니지만 國際競争力에 부딪쳐야
하기 때문에 輸出이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러나 大안에서 生産되는
發電機의 약 20%가 캄보디아, 월맹, 中共, 쿠바, 유고, 헝가리, 불가리아
등으로 輸出되고 있다고 들었다.

北韓에 체류하는 동안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학생궁전, 어린이
궁전 및 여자중학교에서 본 학생연주회와 화려한 만수대 극장에서 본
오페라였다. 연주하는 학생들의 기량은 매우 우수했고 그들은 예술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北韓의 芸術은 政治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 연주든지 政治강령이 배제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김
일성을 人民의 最高指導者로 北韓을 天國으로 칭송하는 내용이 끊임없

이 반복되었다.

내용은 제쳐두고, 테크닉이 너무나 훌륭해서 우리들중 몇명은 하나의 地方學校에서 才能이 우수한 學生이 그렇게도 많은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만수대극장에서 본 오페라 題目은 “天國의 노래”였다. 줄거리는 北韓을 最高의 나라로 극찬한 것으로 아주 단순했다. 오페라는 韓國動亂中 父母와 헤어진 한 少女에 대한 얘기였다. 그녀는 자라서 記者로서 成功했으나 부모님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觀光地와 名所를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부모님을 찾아 다녔다. 마침내, 數年이 지난 어느날 부모님을 찾아 눈물겨운 기쁨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北韓에서는 예술공연을 國家가 後援하고, 공연자들은 높은 報酬를 받고 특권층에 속한다.

蘇聯에서와 같이 最高의 俸給으로 尊敬받는 사람들은 “人民의 배우”로 명명된다. 어린이들중에서 才能있는 者를 일찌기 選拔해 特別教育과 支援을 해 준다.

北韓에서 가장 머리가 우수한 젊은이들도 예술공연자에 선발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平壤에서의 日程은 매우 바빴지만, 우리들은 市内를 벗어나 묘향산과 금강산으로 旅行을 할 수 있었다. 平壤에서 묘향산까지 세단으로 약 2시간반이 걸렸다. 산위에 보현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한때는 北韓에서 가장 큰 절이었다. 우리들에게는 이 절이 예불과 명상을 위한 어느 장소보다 더 오랜 歷史를 가진 觀光名所로 보였다. 절에는 스님도 신도들도 보이지 않았다. 韓國動亂中에 폭격을 받아 破壞되어 現在 建物은 그 후에 새로 建立한 것이라 했다.

묘향산 觀光은 우리들이 원한 것은 아니었다. 이곳을 우리들의 日程에 包含시킨 理由는 明白했다.

現代式 高層建物에 우리의 전통적인 기와를 이은 인상적인 建物인 國際親善展覽館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 展覽館에는 金日成이 外國著名人士 및 官吏들로부터 받은 선물이 진열되어 있다. 同 展覽館에서 案内員이 說明한대로 이것은 人民들에게 金日成의 國際的 地位를 상징하는 것이자 同時에 獨立主權國으로서의 北韓의 國力과 명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많은 外國人士들이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선물을 가져옵니다.” 展覽館의 案内員은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金日成이 종종 이곳에 들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理由는, 이 展覽館이 休暇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듯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산이 주위를 감싸고 옆에 시냇물이 흐르는 이곳 展覽館의 전경은 한폭의 그림이나 다름없었다. 하여튼, 金日成은 北韓全域에 걸쳐 여러개의 방대한 전용맨손을 所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묘향산에 오기에는 봄이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금강산이 그렇게 이름지어진 것은 수많은 봄우리가 우뚝 솟아 있고, 봄우리 끝과 아름다운 색깔이 어울려 거대한 다이아몬드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산은 자연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으로, 南·北韓의 住民 누구나가 일생에 꼭 한번 가 보고 싶어 하는 곳이다.

금강산에 대한 전설도 많고 또한 흥미진진하다.

平壤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고속도로(1978年 개통)로 약 4시간

달려 원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남쪽으로 꼬부랑길을 두시간 달려 금강산 호텔에 도착했다.

그 부근에는 다른 호텔도 있었고 觀光客도 많았다.

호흡을 할 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高度가 높았고, 이곳에서 주위의 나무들과 시냇물도 볼 수 있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들은 다소 기분이 들뜬듯 했다.

“드디어 金剛山이구나” 하고 서로에게 외쳤다. 金剛山은 약 400평방킬로미터의 面積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1,200 개의 봉우리가 있다. 最高의 봉은 비로봉으로 해발 1,638 미터에 달한다.

구룡폭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들이 감격한 것은 폭포의 웅장함과 힘이 아니라 그것의 우아한 아름다움이었다. 폭포의 높이는 약 70 미터였다. 우리들은 폭포의 물줄기가 부서져 우리 몸에 와 닿은 곳까지 接近했는데, 물줄기는 그 밑의 자그마한 연못으로 떨어져 수정같이 맑은 시냇물에 합류하고 있었다.

金剛山에서의 날씨를 豫想할 수 없다고 한다.

햇볕이 나다가 구름이 끼기도 한다. 우리들이 金剛山에 있을 때는 비가 내렸으나 곧 구름이 가셨다.

변화무쌍한 날씨가 그곳의 경치에 또 하나의미를 더하는 것이기도 했다. 봉우리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 색깔과 그늘이 변화한다.

산, 봉우리, 주위 경관이 한시도 똑같지 않고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 따라서 金剛山은 갈 때마다 새로운 經驗을 할 수 있는 멋진 곳이다.

北韓訪問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案内員이 同行했다.

그들은 같은 호텔에 묵었고 식사도 같이 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不便했으나, 우리들이 머무는 날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들은 그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얼마후에는 그들과 농담하고 웃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항상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고 그들의 計劃에 따라 우리들의 旅行을 進行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며 우리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자, 그들은 우리들의 친구로서 도움을 주려고 努力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最善의 일은 北韓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北韓의 業績으로 우리들을 感動시키는 것이라고 그들 사이에 結論을 내렸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우리들을 金日成과 北韓共產主義 體制를 崇拜할 정도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案内員은 北韓에서 태어나 자란 忠誠스런 金日成 추종자이자 獻身的인 黨員인 40대의 男子였다.

그는 自身에 대해 完全히 알고 있는듯 했다. 비록 그가 北韓에 대한 우리들의 知識과 우리들의 質問에 감탄했지만, 결코 우리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일행의 수석안내원으로서 우리 訪問日程을 짚어주는 사람이었다. 그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항상 일종의 긴장감을 느꼈다. 그에게 있어서는 南韓보다 北韓이 더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점에 동의할 수 없었다. 北韓은 상당한 經濟的인 發展을 이룩할 수 없었던 反面, 南韓은 해낼 수 있었다.

金日成이 1945年 以前 잠깐동안 항일투쟁에 가담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唯一한 독립투사는 아니었다. 1948年 北韓에 共產政權을 樹立한 以來로 金日成이 정권을 장악해 왔으나, 蘇聯의 援助가 없었던들 金日成은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내 案内員은 案内員들이 항상 우리를 監視하고 있다고 빗대어 말했을 때 기분이 상했다.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訪問하고 싶었고, 또한 쇼핑도 다니고 거리의 住民들과 얘기도 하고 싶었다.

“당신들이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소, 우리들은 당신들을 돕기 위해 같이 다니는거요. 또한 인민들의 오해와 의심으로부터 당신들을 保護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訪問目的이 보다 더 잘 達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행하는 거요” 하고 말했다.

실제로 그들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도움과 知識이 없었던들, 우리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얻지 못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우리 旅行日程을 미리 다 짜 두었다. 그들은 北韓學者와 官吏와 가진 우리들의 會議를 도와 주었다. 또한 우리들이 가는곳 어디서든지 VIP대접을 받도록 해 주었다.

나의 案内員은 우리들이 日程에 대해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不適合한 反應을 보인다고 생각이 들면 서슴지 않고 화를 내고 불쾌함을 表示했다. 그는 우리들이 質問하는데는 너무 열성적인 반면 北韓住民들에 대한 칭찬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본 것에 대해 그의 생각 이상으로 회의적이었고,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아파트를 訪問했을때 女主人과 얘기하는데 보다는 부엌과 목욕탕 시설을 살펴보는 데에 더 關心이 많았다. 게다가 우리들은 벽에 걸린 金正日 肖像圖와 그에 대한 책의 진열에 많은 호기심을 가졌다.

平壤産婦人科病院에서, 病院管理人들은 모든 現代式 施設과 使用하는 醫療器具들을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으나 우리들은 外國製의 숫자를 把握하고 어떤부류의 住民들이 이런 安定되고 우아한 病院에서 애기를 분만하는가에 대해 더 關心이 컸다.

우리들이 旅行中 본 것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만 하고 感歎하거나 수공하는 일이 전혀 없자 案内員들은 짜증이 난듯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人民들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칭찬하고 나서 質問을 나중에 합니다.” 내 案内員은 나에게 열성적으로 일깨워 주었다. 우리들이 北韓訪問 동안에 東洋의 美德을 뒤엎어 놓은듯 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들은 北韓의 水準높은 예술연주에 감탄했다. 정치적 과장이 항상 存在했고, “偉大한 指導者”의 指導力과 敎示를 칭찬하고 認定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 자체는 정말 감명적이었다. 내가 “이 예술가들이 그들의 俸給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 以外에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연주를 잘할 수 있느냐”고 내 案内員에게 물었을 때 그는 내 質問을 理解하지 못했다.

“더 좋은 金錢上의 혹은 기타 인센티브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美國에서는 연주가들은 훨씬 많은 돈을 받고, 그중에는 호화로운 生活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하고 내가 說明했다. 즉시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 만수대에서 오페라 “天國의 노래”가 끝난 후, 내 案内員은 “당신은 무엇이 北韓의 예술가들과 人民들이 最善을 다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지 이해를 못해요”하고 말했다.

무대뒤에서 연주자 몇명을 만나 얘기하고 싶다는 나의 要請에 대해
“참 별난 要請이군요”하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는 北韓의 芸
術에 대한 우리들의 극찬에 대해 흐뭇해 하고 이 예술가들이 美國에
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알고 싶어했다. “아주 훌륭한 것으로”
하고 내가 대답했다. 나는 몇몇 北韓藝術團들이 日本과 東歐共產國家
들을 순회공연하고 좋은 評價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

韓國動亂때 北韓의 大部分이 폭격을 당해 破壞되었다. 내가 戰爭以
後 복구사업에서의 北韓의 業績을 지적하자 내 안내원은 나에게 감사
하다고 했다.

“위대한 指導者의 영도력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業績이 不可能했을 것
입니다”라고 무미건조한 發言을 되풀이 했다.

내 案内員은 “偉大한 首領”의 훌륭한 영도력을 힘주어 강조했지만,
金日成을 둘러싸고 形成되어 온 金日成 우상숭배와 절대화한 사람으로
지칭함에 대한 나의 끈질긴 質問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그는 단지 그들 首領이 朝鮮人民의 解放者요 指導者로서 어느 누구
보다 뛰어나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美國에서는 政治的 競争이 民主主義의 가장 重要한 보증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金日成의 指導力과 도
전을 받지 않는 지위가 널리 認定되고 있다고 假定합니다. 그럼 그
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北韓이 만약 당신들의 主張대로 民主主義라면
金日成 後繼를 두고 善意의 競争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하고 내
가 반문했다. (우리들은 金正日의 政府内에서의 役割이 점차 增大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의 이름이 여러가지 새로운 事業과 發展과 관

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내 案内員은 나의 反論에 대해 適切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러다가 “偉大한 지도자동지인 金正日은 오랫동안 그의 父親으로부터 指導를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多方面에 걸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指導 역량을 發揮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말했다.

만남은 헤어짐인가 보다. 우리들이 案内員들과 작별을 하고 北韓을 떠날 때, 우리들은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다. 우리들은 그들과 2週日동안 사귀었고, 또 다시 만날 可能性은 거의 희박하다. 헤어질 때, 그들은 우리들과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다. 그들 역시 우리들을 기억하고 싶었던게 분명하다.

北韓 學者들

우리들이 北韓 學者들(大部分 北韓 社會科学院과 金日成大学에서 온 學者들)과 가진 會議은 公式的으로 進行되었다.

우리측과 그들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앉았다. 分野別로 準備를 갖춘 두서너명의 學者들이 各 會議에 參席했다. 그러나 그들중 단 한명만이 연설을 했다. 우리들의 案内員들도 역시 會議에 參席했다. 우리들이 다룬 題目들은 金日成의 革命指導力, 主體哲學, 後繼者問題, 韓半島 統一, 北韓이 提議한 연방제방안, 北韓과 美國間의 學者交流 可能性 등이었다.

그들이 提示한 意見에서 새로운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主題와 심지어 使用하는 用語까지 한결같이 公式적이고 판에

박한 것들이었다. 우리들은 그들의 論理와 根拠에 대해 質問하고 意見을 交換하고 싶었으나 그들은 그들이 準備한 內容만 완강히 固守했다. “그들끼리만 討論하는게 아닌가” 하고 우리들은 의아해 했다.

“사실 그러했다. 결국 政治란 人間이 하는 것이고, 政治의 技術이란 多様な 見解中에서 妥協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唯一한 공식노선만 있다면 北韓의 學者들이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北韓의 모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學問도 自主思想인 “主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問題를 自身の 資源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얼핏보면 그럴듯하게 들릴는지 모르나 結果는 豫상외로 편협주의로 빠져든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된다. 이 고립된 社會에서 싹튼 편협하고 고도로 세뇌된 사람은 知識 習得이 매우 어려워진다. 北韓의 學問 특히 社會科學은 모든 아이디어의 政治的 管理와 結合되어 外界로부터 극도로 차단되어 있다.

北韓住民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偉大한 指導者가 主體思想의 창시자이다. 우리들은 北韓에서 大部分의 學問이 主體思想을 世界的인 범주에서 哲學化하는데 바쳐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北韓의 論理에 따르면, “人間은 自主를 원한다. 自主란 人間本性의 발로이다.” 나는 이런 논지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의도는 명백하다. 金日成은 人間에 대한 이 “심오한 진실”을 발견했고 主體는 이 發見을 土台로 한 것이다. 따라서 主體의 創造는 매우 重要한 것이고 金日成의 主體思想 實現은 世界가 北韓指導者의 惠澤을 받는 世界的인

意味를 갖는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北韓住民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일까?” 하고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北韓住民 어느누구도 金日成의 統一政策에 反對할 수 없다.

그런데 남북쌍방이 會議를 거쳐 그들의 견해차이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한 統一方案이 나올 수 있는가? 이유야 무엇이든간에 北韓은 韓國의 現정권당국자와의 대화 거부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었다.

우리들이 南·北韓·美國의 學者들이 參加하는 統一問題 심포지엄 開催를 提議했을 때 北韓學者들은 이를 거절했다.

그들은 韓國學者들이 參加하는 會議는 絶대로 參加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반면 美國學者들과는 會議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그들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南韓과 北韓은 重武裝되어 있다. 韓國動亂이 종식된 후 維持되어 온 불안정한 休戰協定이 깨질 可能性은 尚存하고 있다. 北韓側은 韓半島 統一은 朝鮮人民 자신들의 努力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主張해 왔다. 궁극적으로 韓半島 統一은 韓國民族의 問題이다. 그러나 韓半島 주변의 강대국 - 韓半島 平和와 安定에 関心을 가진 國家들 - 이 統一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다. 北韓은 美軍撤收를 고집해 왔다.

그러나 미군 주둔은 南·北 쌍방의 도발행위를 견제하는 역할을 担当하고 있다.

提議 自體가 最終解決策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어떤 제의든 어느 시점에서 쌍방이 檢討한 後 妥協에 도달해서 實現 可能한 方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開放的 接近이 南·北韓에게 가장

必要한 이때에 그들의 제의를 궁극적 解決策으로 보고 있다.

北韓은 南北聯邦制를 主張하고 있다. 남북한이 會談을 갖고 거기에서 남한의 제의와 연방제의 장점과 그 實現 可能性을 討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現在로서 평양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들은 北韓 教育制度의 본거지인 金日成大學을 訪問하고 싶었다. 北韓의 모든 영리한 젊은이들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入学基準은 體制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이다. 어떤 경우든 入学競爭率은 높다고 한다. 高等中學校의 추천을 받은 學生들만 應試할 수 있다. 일단 합격하면, 그들 教育은 無料이다. 學生數의 4分の 3이 男學生이고 약 70%가 기숙사에 주거한다. 대동강변에 자리잡은 同 大學은 平壤中心部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

우리들은 案内員들과 같이 얘기할 때 제시한 숫자들이 간혹 상충되고 우리들이 觀察한 것과 差異가 있었기 때문에 社會科學教授들을 만나 質問을 하고 싶었다. 심지어 정확한 인구수도 알 수 없었다.

또한 學生들과도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午前 10 時에 金日成大學에 도착했다. 넓은 운동장에서 學生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 以外의 學生活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넓은 캠퍼스는 조용하고 한산한 분위기였다.

同 大學에는 13 個 單科大學 5 個 研究所에 學生이 약 12,000 명이고 教授와 職員이 약 3,500 명이라고 한다. 이 大學에서의 教授들과 만 남도 똑같이 공식적이었다.

커다란 접견실에 우리들과 教授들이 마주 앉았다. 參席한 教授들의 大部分이 40 대 또는 50 대 초반이었다. 우리들의 質問은 主로 北韓의

中央計劃에 관한 것이었고 基本經濟 貿易統計와 大學豫算과 研究活動에 관한 質問도 했다. 우리들은 많은 정보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會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金日成大學에서 잠시 흥분한 적이 한번 있었다.

60대의 가장 나이많은 學者가 남한어투로 얘기했다. 떠날무렵에 우리들은 "당신은 南韓 어투로 말씀하시는데, 고향이 어디니까? 남한에서 어느 學校에 다녔습니까? 北韓에는 언제 오셨어요?" 하고 그에게 직접 質問했다. 다소 흥분된 순간이었다. "글쎄요. 당신들은 우리들의 몇명과 같은 都市에서 태어났을게요. 또한 우리들 몇명과 같은 大學을 卒業했을 거구요"

그는 大邱에서 태어나 1945年 以前에 서울大學校를 卒業했다. 그와 좀더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우리들과 따뜻하게 악수하고 형제같이 우리 어깨를 툭툭치는 등 우리들을 만난 것을 진실로 기뻐하고 있는듯 했다.

사실상 金日成大學 教授陣들중에 약 20명의 서울大學校 出身이 있다고 들었다. "우리들은 同門會를 가져야 합니다" 하고 우리들이 말했다. 정말로 우리들은 非公式的인 모임을 제의하고 우리 案内員들에게도 이 제의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金日成大學에서 講義室 및 中央圖書館, 博物館을 둘러 보았다.

클래스 規模는 전부 작았다. 한 講義室에는 강사가 흑판에 "레이저"라고 써 두었으나 物理學 時間인 것 같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실험도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실에도 들렀다. 약 10여명의 男·女 學生들이 第3世界 國家들의 여러 著者들이 쓴 主體에 관한 英文冊

子를 그들끼리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學生과 같이 두 패러그래프를 읽어 보았다. 그는 매우 영리해 보였는데, 첫 패러그래프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둘째것은 하지 못했다.

나는 선뜻 意味를 파악할 수 없어서, “자네가 왜 번역할 수 없는지 나는 알지, 뭔가가 빠져있어”라고 말하자, 이 學生은 잘못이 자기 能力에 있는게 아니라 책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소 기쁜 표정이었다.

中央圖書館은 넓었다. 한 열람실은 金日成 訪問 記念館으로 되어 있었다. 그 열람실에는 몇몇 學生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조그마한 원형 책상에는 학생이 혼자 앉아 있었다. 圖書館 資料目錄을 임의로 살펴보니, 大部分의 外國書籍이 러시아어로 된 것이었고 英語로 된 것은 극소수였다. “우리들의 책은 없군요”하고 우리들이 案内員들에게 농담조로 얘기했다.

도서관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것은 大學에서 使用한 교재진열대였다.

“이 책들은 우리 人民들이 쓴 것입니다”하고 大學校 職員이 힘주어 말했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한, 이 大學에서 學生들이 使用한 모든 책은 教授들이 쓴 것이고, 이들에 견줄만한 교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들이 몇권 사기를 원했으나 案内員들이 우리들을 서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곳으로 案内되지 않았다. 따라서 書店에 가보지 못하고 이 大學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大學書店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自然의 歷史를 한눈에 볼 수 있는 大學 博物館으로 案内를 받았다. 北韓에서 볼 수 있는 植物들, 이 地域 動物 그리고 金日成과 金正日이 提供한 여러가지 展示物이 있었

다. 커다란 호랑이 표본과 이국적인 야생 인삼은 우리들을 매료시켰다.

드디어 우리들의 北韓旅行은 끝났다. 마지막날 저녁, 우리들을 위한 환송만찬이 열렸다. 案内員들과 우리들이 만났던 많은 學者들과 官吏들이 參席했다. 이날의 霧靄氣는 환영만찬 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만찬에서 서로 건배를 했고, 우리들은 각자의 북한 인상담을 간략하게 얘기하곤 했다. 우리들은 우리들을 초청해 준 자들에게 訪問이 시작되던 날보다 훨씬 자유롭게 연설을 했다. 북한체류의 가장 重要한 結果는 우리들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서로를 理解하려고 努力했다는 사실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들은 마침내 초청해 준 자들을 어느정도 알게 되었고, 우호적으로 농담을 섞어가며 담소를 즐겼다. 이 만찬에서 나는 國際問題研究所委員인 博士 教授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1980年 冬季올림픽때 레이크플래시드를 訪問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신은 정말 美國이 北韓과의 戰爭을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그에게 물었다. “北韓은 平和를 위해 努力해야 합니다. 美國은 韓半島內에서의 어떠한 戰爭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내가 主張했다.

韓半島에서의 戰爭은 어떠한 形態이든 自殺行爲이고, 어느쪽도 戰爭에서의 利得은 없고, 쌍방이 막대한 損失을 입을 뿐이라는 데에 우리는 意見을 같이했다. 北韓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南北韓이 平和를 위해 努力해야 한다는 것을 그 어느때보다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일단 平和가 보장될 수 있으면 南·北間의 적대관계 때문에 막중한 댓가를 치러오고 있는 住民들을 위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韓半島의 統一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과
업은 후대에 그 解決을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들의 위대하신 지도자
가 살아계실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 教授가 主張했다.

나는 북한의 위대한 지도자가 내년이면(1982) 일흔살이 된다고 말
했다.

後 記

앞서 言及했듯이 1972년에 해리슨 솔리스베리가 金日成과 만났으며,
1980년에는 솔라즈議員과 김성낙 목사가 그를 만났다.
平壤에서 北京으로 되돌아 오는 길에 北韓을 訪問, 백두산 부근의 金
日成 별장에서 그와 만난 후 귀국을 하는 한 인도 學者를 만났다.
국가원수와의 만남치고는 이례적으로 긴 약 3시간 정도 되는 듯한 이
러한 만남들로 미루어 짐작컨대, 金日成은 訪問客들과 얘기하는 것을
즐기는 듯하다. 나는 우리들이 그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그
도 또한 우리들을 만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들이 案内員들에게 金日成과 만나도록 해
달라고 要請했을 때 그들은 하지 않겠다고만 얘기했다. 몇년동안 그
랬듯이 金日成이 아마도 休暇를 갖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진
정한 理由는 위대한 金日成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案内員
들이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들이 金日成의 맹목
적인 추종자이자 존경자로서 그를 訪問하는 것은 아닌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비록 우리들의 어렵고 비싼 旅行의 唯一한 目的은 아니었지만, 金日成이나 金正日을 만나지 못하고 北韓을 떠나야 했던 것이 실망적인 것이다.

平壤에서 北京까지 기차로, 北京에서 上海, 上海에서 東京, 東京에서 서울, 서울에서 美國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만약 김일성을 만났더라면 그것이 어떤 種類의 會議가 되었으며, 우리들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종종 생각해 보았다.

金日成은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決定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모든 決定은, 심지어 그의 지나가는 말로 던진것도 北韓에서는 가장 철저히 實踐에 옮겨지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우리들이 그를 만나지 못했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포스터, 사진등에 나타난 그의 모습으로 그를 묘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한국사람치고는 키가 큰 편이고 뚱뚱하다.

옛날 한국 선비들과 신사들 처럼(그리고 내가 어릴때 배웠던 것처럼) 걸음은 천천히 위엄있게 걷는다.

머리카락은 검게 염색했다. 이제 일흔이 넘은 그는 원숙한 할아버지의 모습이다. 김성락 목사가 金日成을 訪問했을 때, 그들은 서로 알고 지냈던 그들의 부모님에 대해 얘기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오찬에서 金日成은 金牧師가 祝福을 주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한다.

나는 金牧師가 金日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는 중에 에드거 스노우가 中共에서 모택동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中共의 모범적 공산당

革命家인 그가 하늘에 제신 그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하는 스노우의 보고서가 머리에 떠올랐다.

모택동의 만년에도 그러했듯이 金日成도 이제는 1945年 解放直後 蘇聯赤軍의 힘으로 北韓에서 權力을 잡았던 젊고, 활기찬 성급한 혁명투사였던, 만주의 독립투사는 이미 아니다.

그는 반쯤 은퇴해서 여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죽기전에 그는 그가 이루어 놓은 共產主義가 그가 죽은 후에도 繼續되어야 한다는 信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만약 金日成이 우리들과 만났더라면, 그는 우리들에게 할 얘기가 많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韓半島 統一의 必要性을 強調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時間은 이제 점차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金日成은 北韓住民들에게는 특별한 곳이고 자신에게도 일생동안 가보지 못했던 서울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들은 金日成에게 그밖의 다른 것이 다 不可能하다면, 단 한번만 서울로 와 보라고 초청할 수도 있었을텐데. 혹은 美國에 사는 우리들과 같은 한국동포에 대한 얘기를 들려 주고 우리들이 고국이 라 부르는 그 나라를 방문하도록 초대할 수 있었을텐데. 또한 보다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들은 南·北韓 關係에서의 보다 現實的인 接近方法과 美國과 北韓 뿐만 아니라 南韓과 北韓間의 文化·學術交流의 必要性을 強調했을텐데.

그리고 솔리스베리와 솔라즈議員에게 그가 시인했던 얘기에 추가하여, 金日成은 보다 富裕하고, 강한, 보다 平和的이고 必須 不可缺한 韓半島 統一에 대한 意味있는 전주곡으로 南·北韓間의 建設的인 交流 推進에 同意할 수도 있었을텐데.

個人崇拜와 後繼者 問題

(고 병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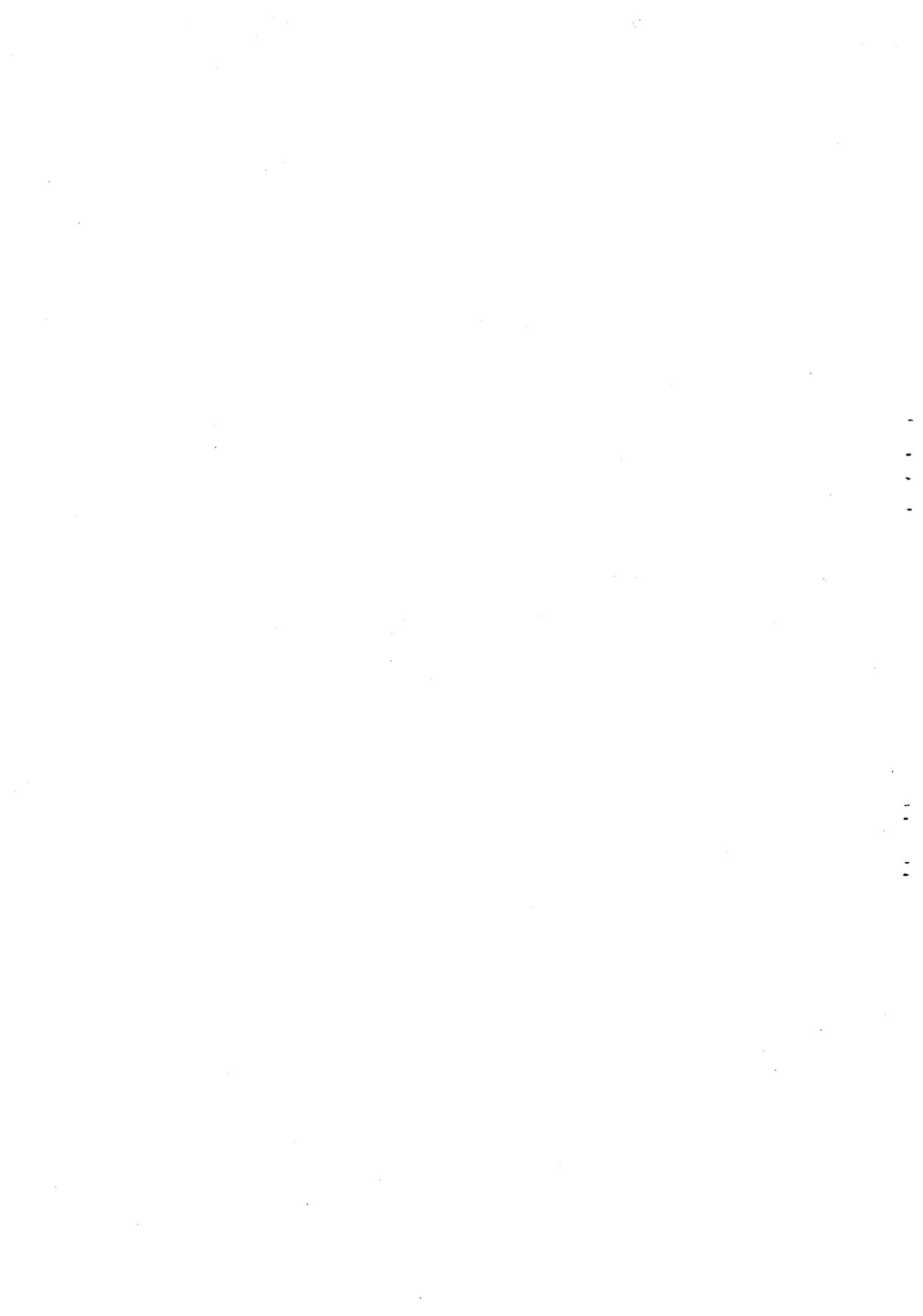
○ 現在 시카고 일리노이大學 政治學教授

○ 著 書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6.

北韓의 外交政策 (Praeger, 1969)

南北韓 外交시스템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序 論

내가 19日동안 北韓을 방문하면서 받은 수 많은 인상들을 한마디로 要約하면 國家主席 兼 黨總秘書인 最高指導者 金日成을 둘러싼 個人崇拜이다. 北韓 言論에 오랫동안 접해 오고 이전의 訪問客들이 쓴 訪北報告書도 자주 읽었지만 그 어느 것도 내가 北韓에서 實際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잘 說明해 주지 못했다.

金日成은 어느 곳이나 出現했다. 어디든지 3km만 가면 그의 초상화, 흉상, 座像, 引用文句가 있었다. 우리는 라디오, TV, 안내원의 브리핑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金日成의 이름을 들었다. 最近에 金日成을 찬미하는 주제는 그는 朝鮮이 낳은 最初의 革命家, 理論家, 政治家요 그의 主体思想은 맑스-레닌主義를 發展시킨 것으로 全世界에서 학습서로 使用되고 있으며 그야말로 世界의 指導者란 것이다.

金日成 神格化와 버금가는 또 하나의 現狀은 金日成이 물러난 뒤 그의 아들이 權力을 承繼하도록 한 金日成의 決定에 대한 合法性을 全 住民들에게 끊임없이 注入시키는 點이다.

北韓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個人崇拜가 金日成이 죽은 뒤에는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 짚은 박식한 歷史家가 아니라도 곧 알 수 있으리라. 이 歷史的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個人崇拜를 持續시키는 方法中 하나는 最高指導者의 後繼者를 金日成 神話保存에 유리한 그 누구로 定하는 것이다. 그 點에 있어서 金正日보다 有利한 者는 아무도 없다. 金正日만이 그의 合法性을 金日成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현상에서 좀 더 적을 만한 價值가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

個人崇拜의 實態

個人崇拜를 처음 본 것은 北韓에서가 아니라 北京에서였다. 北京空港에 到着하자마자 나는 몇명의 北韓 公館員이 왼쪽 가슴에 金日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음날 비자를 發給받으러 公館에 가보니 다른 北韓 公館員들도 그 배지를 달고 있었다. 사실 中共에서는 유일하게 北韓 公館員들만이 가슴에 政治的 象徴物인 배지를 달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그들을 곧 알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배지가 北韓에서도 꼭 같은 役割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北韓 住民들은 모두 그 배지를 달고 있었고(北韓 住民들은 "偉大한 首領의 崇高地位를 모시다"라고 表現), 外國人은 그 배지를 사서 손에 넣을 수도 없으므로 外國人은 北韓 住民들과 쉽게 구별된다. 外國人의 옷이 아무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그 모습이 아무리 韓國人일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말투에 아무런 흠이 없어도 곧 구분이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호텔 가까운 공원이나 평양 뒷골목에 나가면 언제라도 곧 아웃사이드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北京에서 平壤까지 비행기 스텐더디스가 金日成이 한 演說을 기다랗게 읽어 주는 것을 보고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놀란 것은 이 스텐더디스가 비행기에서 使用한 言語는 오직 韓國語와 英語뿐이었다는 事實이다. 하지만 個人崇拜의 문귀를 實際로 처음 본 것은 平壤空港에서 보통강호텔까지 30분간 드라이브 하면서였다. 우리는 운전수와 案内員이 하나씩 配當되어 있는 벤츠車에 나누어 탔다. 그들은 우리가 北韓에서 여행하는 동안 줄곧 우리의 동반자였다. 40세쯤 되어 보이는 內閣의 간부인 나의 案内員은 "偉大한 首領"과 "親愛

하는 指導者 同志"를 繼續 연발했다. "親愛하는 指導者"라는 表現을 들어 본 일은 없지만, 나는 그것이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를 즉시 알아차렸다. 즉 金正日, 党 6次大会에서 党秘書 2位, 軍事委員會 3位, 政治局 4位로 公式 選出된 者이었다. 이 핵심조직에서 金正日은 金日成, 김 일, 오진우 다음으로 地位가 높았지만, 北韓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우리는 金正日이 金日成 다음이요, 公式後繼者로 指目되어 있음을 確認했다.

내가 北韓에 到着하자마자 나의 案内員이 表現한 個人崇拜는 두가지였다. 하나는 北韓의 두 指導者를 尊敬하는 表現을 特別히 使用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世俗적인 일이건 고상한 일이건 모두 의도적으로 두 指導者와 관련지워 禮儀를 갖추어 들먹이는 것이었다.

北韓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들은 金日成에 대한 수천가지 表現中 99%는 "偉대한 首領"이었고, 가끔 "敬愛하는 首領"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金日成 主席"은 한두번 뿐이었다.

한편 金正日은 항상 "親愛하는 指導者 同志"로 호칭되었다. 또 한 사람 尊敬받는 자는 김정숙이었다. 金正日의 親母요 金日成의 첫아내인 김정숙은 "尊敬하는 김정숙어머니" 또는 "尊敬하는 김정숙女史"로 호칭되었다.

訪問者들은 案内員이나 간부들이 수없이 부르는 金日成·金正日의 이름을 들어야 했다. 偉대한 指導者는 사적관, 젊음의 広場, 병원부지를 選択해 주었다고 한다. 그는 建物과 그 機能에 관한 基本原理를 了解하고, 여러가지 선물을 주고, 定期的으로 現地指導訪問을 하므로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했다.

「親愛하는 指導者 同志」 역시 자기 아버지보다는 덜 분주하지만 비슷한 活動을 했다. 많은 경우에 두 指導者는 나란히 言及되었는데 때때로 不合理的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平壤 사적관의 부국장은 태연한 얼굴로 이 사적관은 1951年 偉大한 指導者와 尊敬하는 指導者 同志의 配慮 덕분에 지어졌다고 말했다.

두 指導者가 意識的으로 자주 言及되는 것은 오직 公的인 役割을 遂行할 때이다. 우리가 비교적 덜 公式的으로 그들과 얘기할 때는 그들 指導者에 대한 言及이 별로 없었다.

내가 네번이나 參席한 바 있는 宴會場에서 조차도 네번 모두 演說 끝에 그의 健康을 위해 축배들자는 程度 뿐 이었다.

또 하나 두드러진 것은 나이와 地位에 관련된 것이다.

一般的으로 幹部의 年齡이 높을수록 젊은 指導者(金正日)에 대한 言及回數는 적었다. 地位 또한 金正日의 言及回數와 反比例했다. 사실 우리가 만난 노장간부치고 단독으로 「親愛하는 指導者」를 言及하는 者は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적어도 두가지 그럴듯한 說明을 可能케 한다. 즉, ①金正日是 단지 北韓 에리트의 中間 또는 中上流層에 의한 미온적인 복종에서 나오는 인색한 支持만으로 만족한다. ②그들의 복종이 安定感을 나타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影響力있는 位置에 도달하면 젊은 幹部들 처럼 그들의 忠誠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야 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른다.

訪問中에 또 한가지 興味로운 點은, 決코 소설은 아니지만, 個人崇拜를 永久化하기 위해 北韓當局이 海外에서 活動한 것을 國內에 活用하

는 것에 있었다. 北韓 TV에 放送되는 國際뉴스중 大部分은 偉大한 指導者의 불후의 노작이 수많은 外國新聞, 雜誌에 報道되고, 主体思想에 관한 그룹학습, 세미나, 會議하는 場面이었다. 北韓當局이 벌리는 이 모든 活動의 背後는 住民들에게 대부분 알려지지 않고 있다.

事實 우리 案内員조차도, 그들은 나라밖의 事情에 대해서 比較的 잘 알텐데, 北韓 公館員들이 西歐의 主要 新聞社에 金日成의 演說, 論文, 초상화를 실기 위해 定期的으로 廣告費를 支払하고 있다는 事實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金日成의 論文을 실은 出版社나 그의 思想을 研究하는 海外團體의 사진을 金日成의 國際的 地位를 證明하는 근거로 北韓 住民들에게 提示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北韓 住民들에게 보여 주는 유일한 證據는 아니다.

묘향산에는 빼어난 博物館, 소위 國際親善展覽館이 있다. 이 展覽館은 1978年 8月에 開館했는데, 여기에는 金日成이가 130個國 指導者들로 부터 받은 수많은 선물인 진열되어 있다. 여기 진열된 선물은 金日成을 向한 全世界 指導者들의 尊敬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한다. 案内員은 말하길 과거에는 朝鮮이 中國으로 선물을 보내었지만 지금은 金日成이가 中國 및 다른 나라로 부터 선물을 받는다고 했다. 北韓 訪問客들 -여름에는 하루 平均 500名程度-은 大部分 相互 외교의전이 나 선물수수에는 익숙치 못하므로 그들의 主張 및 說明에 그냥 감명을 받아야 할 뿐이다.

만경대를 향한 訪問客들의 발걸음은 北韓 TV나 日刊誌에 날날이 報道되며 默示的으로도 住民들에게 전달된다. 外國인들이 메카로 와서

尊敬을 表示하는 것은 순전히 金日成의 偉大性和 國際的 地位때문 이란 다. 또 하나 巨大한 個人崇拜 側面은 거기에 投資된 博物館의 數와 規模에서 볼 수 있다. 위에 말한 國際親善展覽館 外에도 金日成의 偉大性을 찬미한 博物館이 2個나 있다. 하나는 만경대에 있는데 여기선 金日成 一家의 革命과 1945年 金日成의 귀환을 찬미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平壤에 있는 만수대 革命博物館이다. 金日成의 60回 生日記念日인 1972年 4월에 開館한 이 革命博物館은 50,000 ㎡의 홀과 90개의 방이 있다. 살아있는 政治指導者를 찬미하는데 이토록 巨大한 建物を 使用하는 것은 全世界에서도 유일한 것이다. 2層 正面에는 20m나 되는 金日成의 青銅銅像이 있는데 이것은 北韓의 곳곳에 치장한 수백개의 銅像중 가장 큰 것이다. 博物館에는 수많은 그림, 記錄文書, 遺物(예:김정숙이가 抗日 유격대활동중 쓰던 권총, 金日成이가 6.25 戰爭時 전방을 視察하면서 타고 다니던 접차), 그리고 其他 잡다한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偉大한 革命指導者 金日成의 高貴한 품성과 현명한 指導, 찬란한 革命歷史, 의심의 여지없는 愛國者, 國民的 英雄, 강철의 영장, 國際共產主義 勞動階級의 뛰어난 指導者인 金日成을 나타내는 것이다.

金日成의 實際 背景에 익숙한 우리들은 革命博物館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두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金日成을 유일한 韓國의 革命家로 미화하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金日成의 中國共產黨 入黨說을 부정하려고 모든 근거자료를 없앤 흔적이었다. 물론 진열품중에는 다른 革命家의 業績도 있었지만 그 모두가 金日成家系, 即 1866年 서면호 침범에 對抗하여 싸운 그의 祖父부터 김정숙에 이르

기까지 모두 그의 家族들이었다. 우리가 브리핑하는 博物館 幹部에게 이러한 事實을 지적하니 그는 金日成도 그 點에 對하여 비판을 했으나 偉大한 指導者에 대한 끝없는 忠誠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尊敬을 보내는 北韓住民들이 博物館內의 어떤 變化도 허락치 않는다고 대답했다.

記錄變更과 관련하여 우리는 '中國共產黨', '中·朝 抗日聯合軍'과 같은 表現이 '共產黨', '抗日革命軍'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다. 손질한 것이 뻔히 들여다 보여서 우리는 그것도 指摘했다. 이런 記錄을 읽을 수 있는 中共, 또는 日本 等の 訪問客들은 별로 그 記錄에 好感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 그 案内員은 이 진열품들은 처음에는 住民教育 및 教化用으로 갖다 놓은 것이라고 強調했다.

세계의 博物館에는 金日成의 神話를 위한 기념물이 꼭 있었다. 北韓에는 그런 目的으로 지어진 博物館이 수없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平壤에 있는 勞動黨創建 歷史博物館, 金日成의 革命業績을 기념하는 수많은 노천사적관, 특히 보천보, 백두산밑에 있는 삼지연의 것이 有名하다. 또한 表面上 目的이야 어떻든 간에 모든 博物館은 주요 진열품중의 하나로 金日成에 대한 찬사를 반드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平壤에 있는 藝術博物館은 두개의 主要部分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傳統的인 朝鮮藝術(조선화)을 진열해 두었다.

現代藝術部門이 진열되어 있는 방에는 모두 金日成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그림이 최소한 네개씩 있었다. 또한 壁의 中央에 있는 그림들(壁畫)은 진열되어 있는 그림보다 훨씬 많았다. 彫刻品 展示室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北韓住民들이 金日成銅像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절

하는 장면이 있다.

個人崇拜의 또 다른 측면은 사방에 널려 있는 "金日成 인용문구"이다. 모든 學校, 企業所, 協同農場, 其他 勤勞場所에는 金日成의 革命活動을 學習하기 위한 教室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결같이 金日成의 흰 대리석 흉상이 있으며, 많은 경우 金正日과 같이 서 있는 金日成의 사진이 있었다. 방마다 울긋불긋한 액자가 있으며 금강산을 비롯, 金日成이가 訪問한 여러 곳의 장면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芸術, 即 音樂, 무용, 革命오페라, 映画 等の 주제는 金日成 찬양이다. 결국 北韓住民은 모두 적어도 하루 1/3을 金日成 勞作學習에 보내는 것이다.

偶像崇拜의 說明

우리가 訪問한 첫날부터 나는 案内員에게 個人崇拜의 範圍에 실망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나는 金日成의 革命偉業에 대한 北韓의 說明과 외부세계, 특히 美國과 日本에 알려진 內容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案内員에게 指摘했다.

나는 金日成이가 抗日運動에 參與한 것은 認定한다 해도, 그가 1930年代와 40年代에 만주에서 活動한 수많은 獨立運動家들중 불세출의 指導者라는 北韓의 主張을 뒷받침 할만한 資料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는 金日成이가 中國共産黨에 入黨했고, 거기서도 下位職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가 차지한 가장 높은 地位는 지역대장이고, 實際 거느린 部下의 수는 500명 내외이고, 그 當時엔 만주에서 더 높은 地位나 동격의 地位를 가진 獨立運動家가 많았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案内員은 分明히 당황했다. 처음에 그는 北韓에 反對하는 우리들에 의하여 선전된 악의에 찬 중상모략이라고 내말을 무시해 버리려고 했다. 토론을 되풀이 하면서 내가 얻은 情報에 관한 信憑性있는 資料를 強調하니까, 案内員은 金日成이가 1945年 北韓에 들어온 후 이룩한 것은 北韓住民들로부터 尊敬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고 완강히 주장했다.

案内員들은 모두 訪問客들에 관한 情報를 교대로 交換함이 分明했다. 6月 24日과 25日에 각각 2時間 30分間 묘향산 이곳 저곳을 다니는 동안 나의 案内員은 副部長級 古參 案内員과 任務를 교대했다. 그 目的은 뻔했다. 즉 個人崇拜에 관한 나의 意見을 직접 確認하고 내가 個人崇拜에 좀더 동정적이 되도록 說明해 주려는 것이었다. 그의 說明은 다음과 같다.

『 過去 우리 民族은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의 犧牲物이 되었다. 이런 環境에서 살아 남아 國家 主權을 保存하려면 統合, 即 호소할 象徵을 必要로 하는 統合이 要求된다. 그의 빛나는 業績때문에, 即 만주에서는 항일 유격대 指導者요 戰後에는 北韓指導者로서 金日成은 그와 같은 象徵이 되기에 가장 適合하다. 』

그 案内員은 抗日運動 및 經濟建設과 人民統合에 있어서 金日成의 業績은 타의 추종을 不許한다고 강조했다. 金日成에 대한 住民의 愛情, 尊敬, 崇拜는 眞實하고, 이것은 다른 어떤 方法으로도 強要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金日成의 指導와 가르침이 北韓住民의 生活를 效果的으로 向上시켜 왔다는 것을 誇大宣傳한 것이었다. 그것은 住民이 願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偶像崇拜의 기동성과 機能

물론 그 고참 案内員도 다른 案内員이나 幹部들과 마찬가지로 金日成 神話 및 偉大性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임엔 틀림없다. 따라서 그의 說明은 自己의 진실한 信念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現象을 내가 說明해 보면, 3 個部門의 주요 배우, 即 金日成, 핵심간부 및 부장들, 그리고 군중사이에 기동성있는 相互作用이 이 個人崇拜를 持續시켜 간다고 하겠다. 金日成은 個人崇拜의 영속성에 있어서 主要한 힘이라는 점은 여러가지 척도에서 곧 알 수 있다. 이 척도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個人崇拜가 무리없이 維持될 수 있다는게 거짓말 같다.

北韓 映画에 나타난 그의 行態를 잘 觀察해 보면 그는 自身을 찬미하는 광경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함이 틀림없었다.

博物館의 案内員은 金日成이가 그 博物館의 단골 訪問客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金日成 自身을 선전하는 셈이 된다. 金日成 自身이 날카롭게 느낀 個人崇拜의 主要 源泉은 그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尊敬에 따른 보상 심리욕구를 充足시켜 주는 것이었다. 金日成의 배경에 대한 主要한 면은 다음과 같다. "金日成은 學校生活을 거의 모두 만주에서 보냈으며 학교에서는 고독과 소외를 당했다. 사실 金日成에 관한 권위있는 자서전에 의하면, 그는 中國人 동료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했고, 한번은 분노하여 自己學校 上級學生을 구타했다. 中國 항일유격대에 金日成이가 입단했다는 것은 더욱 重要한 것인데, 그는 中國人 상관의 부하였다. 소련점령하의 北韓, 즉 蘇聯後援下에서 金日成이가 權力을 장악한 주위환경 역시 이것과 관련된다. 결국 그의 公式學歷

을 상대적으로 짧게 한 것은 革命性向의 學生이라는 이미지를 企圖한 그의 더욱 큰 이미지와 연결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政治指導者가 教育面에서 박탈된 尊敬을 다른 면에서 獲得하려는 보상심리로 해석할 수 있다. *

權力과 尊敬은 相互關係가 있다. 라스웰의 말을 빌리면, '權력을 잡은 자는 權력을 주어야 한다. 權력의 依存關係는 끊임없이 주고받는 흐름이 있는 한 계속된다.' 따라서 우리는 金日成의 추종자, 即 '權력을 주고받는 反應' 을 보이는 추종자들을 說明할 必要가 있다. 金日成의 측근과 幹部들의 관심은 金日成의 權力과 特權의 유인력에 있으며, 그들은 個人崇拜를 推進시키는데, 주요한 役割을 해 온 것 같다. 여기서 過剩忠誠의 기동성과 金日成의 關心과 호의를 끌기 위한 競爭이 벌어진 것이다. 모택동의 偶像崇拜 고조기인 中共의 文化革命 (1966 ~ 69) 과 北韓의 個人崇拜 고조기가 거의 一致했다는 것은 北韓 政治人들 사이에 競爭이 있었음을 暗示한다.

결국 政治엘리트들이 통제된 出版, 學校, 各 地域 및 作業場에서 政治學習會를 통하여 일단 偶像崇拜를 고조시키기 始作하면, 大衆들은 그 대열에 吸收될 뿐 아니라, 過剩忠誠의 무리들도 나타나며, 權威에 대한 전통적인 忠誠心, 강요된 融和政策, 生存과 上向 이동을 위한 욕구에 의하여 한층 더 고조되는 것이다. 個人崇拜는 北韓住民들의 자존심 昂揚에도 큰 기능을 發揮하는 獨特한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金日成이가 眞實로 歷史上 가장 偉大한 革命家라면, 그런 특출한 指導者를 首領으로 두고 있는 것은 國民的 자량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個人崇拜가 金日成 및 그의 추종자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發揮케 한 것인 點이다. 대체로 北韓 政治体制의 초창기부터 個人崇拜의 주요기능중 하나는 政治의 社會化이다. 大衆들에게 金日成의 偉大性과 그의 思想 및 교시를 傳達해 줌으로써 個人崇拜는 그 体制에 대한 산만한 지지를 一般化시켰으며, 最高指導者에 대한 충성심을 注入시켜 주고, 行動의 出發點을 提供해 주고, 生産 및 作業에 있어서 최대의 努力을 끌어내게 한다.

한편, 個人崇拜는 또한 역기능을 한다. 個人崇拜는 最高指導者의 思想과 교시에 지나치게 依存케 하며, 주체의 目標를 흐리게 한다. 그것은 또한 허풍을 떨게 하고, 과장하거나 심지어 기만하기까지 하여 對內的으로는 合理的 計劃을 방해하고, 對外的으로는 北韓의 이미지를 損傷시킨다. 사실 訪問客들을 지나치게 統制하는 것과 이 個人崇拜는 海外報道上 좋지 않는 이미지를 나타내게 하는 원흉인 것이다. 결국 個人崇拜의 기회비용은 의심스럽다. 個人崇拜의 持續, 즉 이를 위한 수많은 사적관, 기념관의 建立과 이를 對内外에 선전하기 위해 消費한 時間과 努力이 비싼 것이요, 따라서 精神的, 物質的 희소한 資源으로 최대의 生産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指導者의 품성 承繼

後繼相統 概念은 共產主義体制에서도 매우 생소하므로, 나를 포함한 北韓問題 研究者들은 金日成이가 아들을 後繼者로 지목하고 있다고 70年代 中盤에 나돌기 시작한 소문의 진실성에 대하여 매우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그 소문은 끊임없이 持續되었을 뿐 아니라 北韓 言論界

에서 使用하고 있는 '당중앙'이라는 말이 그 소문들을 뒷받침하는 것같았다. 다음 6次党大会에서는 金正日을 세군대의 党 核心部分에 올려놓았는데 이는 결국 金日成 다음인 셈이었다. 金日成은 6次党大会 報告에서 이런 것들을 넌지시 強調했다.

'..... 党 事業에서 劃期的인 變革이 일어났다. 지난 期間(1970. 11 ~ 1981.10) 동안 党에서 이룩한 主要業績은 우리가 偉大한 革命課業을 完遂하고 우리党을 주체의 党으로 영원히 強化, 發展시키기 위한 組織的・思想的 기초를 確立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는 党과 革命의 運命을 결정해야 할 根本的인 問題를 현명하게 풀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明白한 증거에도 不拘하고, 나는 진짜 北韓이 社會主義國家에서 歷史上 처음으로 君主政治를 모방하려고 하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의혹은 평양에 到着한지 24時間以内に 完全히 흩어졌다. 平壤 地下鉄 駅長과 창광원의 여자안내원은 모두 金正日을 金日成의 유일한 後繼者로 은근히 말했으며 실지로 창광원에는 방마다 그 入口에 두개의 울긋불긋한 액자가 있었으니 곧 金日成과 金正日의 訪問紀念內容이 실려 있었다.

平壤 수공예품업소 가까이 있는 보육원을 우연히 들러서 처음으로 "親愛하는 指導者 同志 金正日"이라는 문귀를 보았다. 우리는 人民學校와 高等中學校를 자주 訪問하면서, 金正日의 思想과 活動에 대하여 주요한 質問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에 관한 教育은 金日成 革命活動에 관한 커리큘럼의 일부분으로 遂行된다고 말했다.

人民學校에서는 金正日의 思想・理論보다 그의 配慮와 덕성에 重点을

두고 있다고 했다. 金日成 革命活動을 教育시키기 위해 방안에는 金日成父子의 사진이 備置되어 있었다.

金正日의 이름과 그의 德性 및 思想에 관한 教育資料는 어린이공원 곳곳에 있었다.

金日成父子의 사진도 또한 많이 보였다. 우리는 또한 어린애들의 공책에서 金正日에 대한 수필을 써둔 것을 보았다.

마지막날 우리는 호텔근처 평양 뒷골목을 자유로이 거닐다가 몇명의 大学生을 만났다. 그들 모두가 두꺼운 공책을 갖고 있길래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어 보았더니, 그들은 서슴없이 공책을 펼치길래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金正日의 思想理論 要旨를 적어 두었던 것이다.

學生들은 또한 金正日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했다. 우리는 그런 책들중 일부를 副部長級의 숙소에 속하는 아파트에서 보았다. 그 책은 "시대의 별"이라는 詩集인데 이것은 金正日의 덕성과 業績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회고한 內容을 담고 있었다. 그 아파트에는 세 개의 침실이 있었는데 주요한 치장은 초상화였다. 그 첫째 방에는 金日成초상화, 둘째 방에는 金日成父子의 초상화, 세째 방에는 金正日 초상화가 있었다.

우리 동료 이채진은 그와 같은 초상화의 배열에서 象徵, 卽 後繼過程을 보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金日成이 北韓을 支配하고, 다음에는 金日成父子가 함께 支配하고, 마지막에는 金正日만이 支配한다는 것이다.

後繼의 合法化

北韓 에리트들이 外國訪問客은 물론 自己들 자신에게도 전무후무한 이 後繼問題를 어떻게 合法化하고 있는가?

우리 일행은 後繼問題는 重要한 것이라서 이를 說明하고 討議하려면 반나절을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金日成大學 哲學博士요, 講師라는 사람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천편일률적이었다. 그가 말해 준 것은 1977年 以來 朝總聯幹部 學習指針書와 통혁당 방송을 통해 海外에 알려져 있는 것과 꼭 같았다.

公式적으로 正當化시키는 要件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後繼問題는 革命의 運命에 影響을 미치는 근본적인 問題이다. 首領의 偉大한 革命課業은 한 세대에서는 完成될 수 없고 대를 이어 遂行해야 한다.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歷史上 경험을 통해 보면 後繼問題가 적절히 解決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과 失敗가 있었다.

둘째로 金日成의 後繼者는 ①그에게 절대 충성하고 ②그의 思想에 정통하고 ③새 세대이고 ④고매한 덕성을 부여받고 ⑤指導力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끝으로 이 척도에 꼭 맞는 사람은 오직 金正日뿐이다.

金正日의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는 또한 金日成思想을 "金日成主義"로 정식화했으며 자기 아버지의 고매한 덕성과 指導力을 체현했다. 거기다가 그는 文化, 理論, 政治面에서 記錄할만한 業績이 많다고 했다.

北韓住民들에게 注入시켜 온 金正日業績에 대한 예를 몇가지 들어보는 게 좋겠다. 양형만은 1971년 가을 金正日이가 백두산 아래 있는

삼지연, 무포에 갈때 같이간 의사인데 그가 1976年 2월에 쓴 論文에서 젊은 金正日是 어떻게 하면 金日成 首領의 思想과 業績을 빛나게 할까 하는 問題에 심취되어 있었다고 회고했다. 양형만은 金正日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 首領처럼 진실하게 革命을 이끈 사람은 이 세계에서 아무도 없다. 우리의 首領은 백두산정기를 타고난 전설의 英雄이요 現代歷史가 낳은 偉大한 指導者中 가장 偉大하다. 偉大한 首領의 革命思想은 넓고도 깊어서 아무도 필적할 수 없으며, 首領의 革命歷史는 不후의 서사시가 되어 人民들의 가슴에 永遠히 保存되어야 한다."

金正日是 그때 北韓 學者들은 金日成의 偉大한 思想이 世界史에서 차지하는 位置를 定立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 思想들을 正式化하지도 못했다고 한탄 했다고 한다. 金正日是 이 問題를 지적한 後 2年内에 자기아버지의 思想을 "金日成主義"로 正式化하는 課業을 完遂했다고 양형만은 報告했다.

金日成大学 政治經濟學部の 前 學長이던 현호범은 金正日의 1960年代 大學時節을 이렇게 회고한다.

"親愛하는 指導者 同志가 캠퍼스에 到着하자마자 講義室 環境이 時代에 뒤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어떻게 恩惠로운 方法으로 고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특히 현호범을 包含한 金正日의 先生들은 金正日의 도움을 받아 政治 經濟學의 全体 커리큘럼을 다시 編成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外國의 概念과 外國用語로 된 어휘를 영무새 마냥 지껄여 오던 것을 버리고 金日成의 經濟思想과 理論에 기초를 둔 주체형의

커리큘럼으로 바꾼 것이다. 金正日은 또한 '現代 帝國主義'의 性格에 관하여 처음에는 學級討論에서, 다음에는 論文에서 '最初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한다.

"..... 現代 帝國主義와 그 공격성을 完璧하게 해부하고 모든 기회주의적 變遷을 철저히 淸부수고, 우리 時代에 맞는 帝國主義 概念을 定立하려면 偉대한 首領의 主体思想과 革命理論에 基礎를 두고 分析해야 한다. 現代 帝國主義는 單純히 資本独占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國家独占資本에 두고 있으며, 旧植民主義가 아니라 新植民主義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수평조직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美帝國主義를 우두머리로 한 수직체제를 갖추고 있다. 결국 現代 帝國主義는 더 發展, 強化되는 것이 아니라 急速히 衰退하여 곧 瓦解될 것이다." 현호범은 이 말을 "過去의 낡은 思想을 完全히 벗어 버린 새롭고도 偉대한 發見"이라고 회고했다.

金正日은 또한 1972年 10月 철강부문의 自動化) 事業에 관한 생각을 최초로 발기하여 다음 해에는 그 具體的 實行을 指示했다고 한다. 그는 "自動化의 目的"을 明確히 요해했다고 하는데 그 內容인즉 "自動化는 單純히 生産過程의 現代化가 아니라 勞動者의 負擔을 덜게 함으로써 온 社會를 金日成主義로 물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는 勞動者들에게 工場内部를 "궁전"으로 바꾸고 그 주변환경을 "공원"으로 바꾸라고 가르쳤다.

이런 자상한 가르침 외에도 金正日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와 指針을 주고 担当幹部를 시켜 보급문제의 애로사항을 풀어 주었다. 그는 또한 北韓의 技術者들이 자동화 장비를 購入하기 위해 外國으로

여행하고자 하면 이것도 도와 준다. '자애로운 配慮'를 나타내 보이면서, 金正日은 北韓의 모든 기술단을 監視하고 있으며 그 기술단이 訪問하는 資本主義나라에서도 선망을 받을만한 사치스런 옷과 고급시계를 주도록 한다. 그의 配慮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北韓 기술단이 여행하는 중에도 그 代表와 전화를 하면서 대원들의 건강상태를 묻고, 購売하고자 하는 장비가 생각보다 비싸다고 하면 즉시 돈을 더 보내주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 한가지 金正日의 主要業績은 황해도 은률광산에서 황해까지 4 km에 이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가설한 것이다.

그는 그 事業을 처음으로 발기했을 뿐 아니라 事業遂行에 따르는 巨大한 장애를 解決하는데 도왔다는 것이다.

軍人을 包含하여 수많은 사람이 그 事業에 動員되어도 바다밑에다가 콘크리트 기초를 다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金正日은 担当幹部들에게 問題解決의 가능성에 대하여 一般勞働者들과 商議했는지 어떤지를 물어 보았다.

幹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金正日은 다음과 같이 교시했다.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는 어려움을 당할때마다 軍중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힘을 믿고 그들과 함께 그 問題를 討論한다.

偉대한 首領이 어려운 問題를 풀어 나간 것은 軍중들의 지혜를 動員한 때문였다. 우리는 이 偉대한 모범을 따라야 한다'

이 교시에 따라 幹部들은 事業場에서 勞働者들과 商議했으며, 勞働者들이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결국 金正日은 어려운 問題에 대하여 幹部들을 試驗해 보고, 勞働者들이 크나큰 고통을 참고 지낸다

는 것을 알고 트럭, 운반용 자동차,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迅速하게 提供 供해 준 것이었다.

金正日이 이룩한 다른 業績을 들어 보면 ①가극 '피바다'에서 보인 새로운 예술창작법 개발 ②經濟建設에서 '速度戰'創造 ③3大革命小組運動 주창 및 指導 ④다른 수많은 運動, 特히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 유격대식으로' 또는 '은 社會를 주체사상화'로 하는 등이 있다.

後繼體制의 展望

重要하면서도 答하기 어려운 質問은 思想注入運動의 效率性이다.

北韓住民들이 金正日의 才能, 덕성, 業績에 대하여 學習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外部人들에게 낯은 이야기인것 같다. 몇사람은 確實히 緊張할테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19세 내지 20세된 學生이 自己 先生을 가르치고 社會科學 커리큘럼을 전부 再編成하는데 도와 주었다는 主張은 엉터리로 보여진다. 더 重要的 것은 金正日이 가르쳐 준 것은 하찮은 것으로 記錄될 뿐이다.

그러나 北韓當局이 住民의 行態와 態度를 조립해 가는 能力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外國訪問客들과 재외교포들이 繼續 北韓을 드나들어도, 北韓은 大部分의 住民들을 外部世界로부터 遮斷시켜 놓고 있다. 訪問客들이 住民들과 自由로이 섞이고 여러곳을 자유로이 徘徊하는 것을 統制하려는 北韓當局을 보아도 北韓住民은 外部의 情報를 접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訪問客들에게 가장 훌륭한 곳만 보여 줌으로써 對外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어쨌든 北韓住民들이

情報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것은 公式的인 커뮤니케이션의 신빙성이 豫想보다 훨씬 더 희박함을 뜻한다.

내가 만난 北韓住民에게서 받은 印象은 그들이 열렬한 신봉자라는 것이다. 이 印象은 우리 案内員에게도 해당된다. 確實히 우리는 一般住民들의 느낌을 바로 알아 차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 體制가 오랫동안 持續해 왔고 무난히 움직여 왔다는 事實은 곧 政治思想教育이 최소한 效果的임을 暗示한다. 即, 널리 그리고 깊이 支持를 받았고, 體制의 合法性과 各계각층 대중들의 支援을 끌어낸 것이다.

통치의 불변요소, 特히 北韓에서는 필수도구인 強制力은 당연히 豫想할 수 있는 것 보다는 덜 현저한 것 같았다.

이러한 判斷이 妥當하다면 後繼者 承繼의 展望은 外部에서 보듯이 희미한게 아니다. 두개의 변수는 權力의 漸進的 이전에 所要되는 時間과 承繼의 能力일 것이다.

金日成이가 이룩한 것은 다른 어떤 共產主義 指導者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金日成은 소련과 中共에서 일어난 네번의 承繼問題 - 레닌, 스탈린, 흐루시초프, 모택동 - 에 있어서 前任指導者는 아무도 成功的인 結果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北韓住民들도 알듯이 必要한 것은 後繼者가 指目된 이후 準備期間이 豊富해야 새로운 唯一指導 體制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後繼問題에 관한 발상은 1972年 4月 金日成 60회 생일에서인 것 같으며, 韓國情報가 正確하다고 전제하면 金正日是 1973年 가을 党 第5期 第7次 全원회의에서 組織. 煽動担当秘書에 任命되었다. 이는 實際로 金正日을 党中央委員會 秘書職에 앉힌 셈이 되며, 곧 北韓의 權力

核心에 얽힌 꼴이 된다. 同時에 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運動이 두가지 次元, 即 보도매체를 通하는 것과 사람대 사람 (man to man) 을 通하는 次元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보도매체를 通한 方法은 이 運動을 北韓住民들에게는 다소 가사문제에만 머물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金正日是 1980年 10月까지는 事實上의 後繼者로 公式 登場하지 않았다. 金日成이 앞으로 10年 더 존재하다면 金正日是 거의 20年間 訓練하게 된다. 그때까지는 住民들은 充分히 세뇌될 것이다. 黨·政·軍에 있어서 戰略的 地位는 金正日 中心의 새 世代로 넘어갈 것이다. 金正日是 실질적인 業績을 세울 充分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두가지 변수를 생각할 수 있다. 金正日의 能力은 어떤가? 金日成에 대한 그의 忠誠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버지 傳統을 維持하는데는 가장 有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신의 주요한 合法性의 근거이다. 그럼 實際로 그는 현명한가? 그는 住民들에게 감명을 주고 忠誠心을 이끌어 낼만큼 人間的 매력에 있는가? 그는 現在 및 장래에 精神的, 肉體的으로 嚴格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를 찬양하는 말이나 行動에서 보면 사람들은 金正日이 가 비범하고 타의 추종을 不許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 것 같다. 사진이나 記錄映畵(예: 第6次 黨大會)에 나오는 그의 외모나 肉體的 지구력을 보면 특히 그렇다. 물론 金正日이가 바톤을 이어 받을 때까지는 北韓政治體制가 充分히 組織化되어 새로운 指導者에 대한 다른 어떤 것이 要求되지 않을 可能性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의 出身背景, 金日成의 祝福, 오랜기간의 訓練生活에 힘입어

그는 知識, 人間性, 才能에 있어서의 弱點을 커버할지도 모른다. 要約
해 보면, 金日成은 스탈린, 모택동이 失敗한 것을 이룩하는데 成功할
可能性이 매우 높다. 即, 革命의 永続성과 최소한 한세대만이라도
그의 個人崇拜를 永続化하는 일이 말이다.

北 韓 의 經 濟 生 活 相

(이 채 진)

○ 現在 캔사스大学 文理科大学 副学長兼 政治学教授

○ 主要著書 :

Japan Faces China: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in the Postwar Er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Communist China's Policy toward Laos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70).

U.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 (Praeger, 1982).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Western Pacific
(Westview 1981).

Security Policies in East Asia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82).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一般的 特性

北韓을 訪問하는 外國인들이 납득하기가 困難한 것은 北韓住民들이 "자기들은 金日成이 만들어준 地上의 낙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韓國戰爭時 거의 完全히 破壞되었던 平壤이 括目할만 하게 再建되었다는 점에 큰 감명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넓고 나무가 우거진 거리들은 깨끗하고 조용하며, 길 양편에는 大型 事務室建物, 高層아파트단지, 博物館, 연극공연장, 공원, 호텔들이 있다. 그러나 包括的이고 確實한 資料를 活用할 수가 없기 때문에 訪問者들이 北韓의 經濟實相에 대하여 客觀적이고 公正한 評價를 내리기가 대단히 困難하다. 따라서 필자가 1981年 7月中에 19日동안 北韓을 訪問한 것을 토대로 쓴 이 글은 필연적으로 印象記 내지는 感想文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休戰後 北韓이 이룩해 온 經濟成果가 어떠한 것이든지간에 그 성과는 단순히 어떤 한 個人의 指導力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老·少를 막론한 國民 대다수가 피땀흘려 努力함으로써 이룩된 것이다. 그들은 수십년동안 共同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비교적 수수하고 검소한 生活을 고통스럽게 忍耐하고 個人의 安樂과 快樂을 犧牲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당국은 衣·食·住에서 基本的으로 必要로 하는 制限된 必需品들을 提供하는데 그쳤다. 北韓의 高位層은 그들이 完全雇傭의 實現, 税金制度 廢止, 保健醫療의 無料, 11年制 義務教育을 實施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北韓住民들은 經濟的 慾望充足, 職業選擇, 居住地移轉, 貨幣使用,

生活스타일 決定, 오락활동 등에서 극히 制限된 範圍內에서만 自由가 認定되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의 職業選擇權은 個人이나 家族의 욕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國家의 計劃에 있는 것이다.

北韓의 전반적인 經濟政策은 中共, 蘇聯과 마찬가지로 몇가지 重要한 原則下에 樹立되고 있다. 이 原則은 生産手段의 國有 또는 公有를 비롯하여 中央集權的인 生産計劃, 價格統制, 分配 및 對外經濟關係의 國家獨占 等이다. 그러나 北韓의 經濟生活과 社會生活에서는 中共, 蘇聯과는 아주 判이하게 다른 여러 面들이 있다. 실례로 北京이나 上海에서는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는 수백만의 인파를 볼 수가 있고 百貨店에는 쉽게 購入할 수 있는 消費品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으며, 색색의 商業廣告,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 등을 볼 수 있으나 平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또한 재즈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춤을 추고 있는 연인들을 볼 수 있는 輕양식집이 널려 있고, 自家用車와 흥청거리는 農民市場을 볼 수 있는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와도 平壤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으며 모스크바와 北京에서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商店主人들조차 의아스럽게도 北韓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다. 主體와 自立을 指導理念으로 하는 北韓의 經濟政策은 物質的 誘因을 抑壓하고 있으며 消費性向을 배격하기 위하여 修正主義 傾向도 容納하지 않고 있다. 또한 經濟開發을 위한 經濟政策은 思想的 선동과 政治的 手段에 依存하고 있으며 大衆들에게는 검소하고 금욕적인 生活를 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미덕이라고 強調하면서 이 미덕이야말로 金日成의 指導力과 韓半島 統一 達成에 北韓住民들이 絶對的으로 奉獻한다는 마음의 表現이라고 強調하고 있다.

北韓만이 갖고 있는 獨特한 經濟的 特性을 살펴 보면, 實質的 問題, 潛在的 問題 等 많은 問題를 發見할 수가 있다. 即 北韓은 政治的, 思想的인 面을 너무 強調한 나머지 合理的이고 客觀的인 經濟的 決定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官료조직이 비대하고 高度로 中央集權化되어 있어 가장 効果的인 經濟管理方法을 採択할 수가 없다. 北韓은 보수 구조가 不明確하나 完全雇傭이 保障¹⁾ 되어 있기 때문에 徹底한 監督과 繼統的인 政治性的의 주입에도 不拘하고 勞動者 個個人들이 社會主義的 要求에 대하여 最大限으로 寄与를 하고 있지 못하며 빈틈없이 組織되고 高度로 訓練된 國家機關이 人間의 창조력과 經濟的 專門化를 방해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問題는 指導層이 갖는 特權과 細分化된 社會 經濟的 等級이 實質的으로 存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과 理念的으로 내세우는 平等原則과의 괴리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可能性이 內在되어 있다.

賃金과 物價

每月 現金으로 支給되는 北韓의 最低賃金 對 最高賃金間의 比率은 中共和 蘇聯에 비해 큰 것 같지 않다. ²⁾

訳者註 1) 北韓은 職業選択, 轉業 등이 中央計劃 當局에 의해 決定되기 때문에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失業은 있을 수 없음.

2) 北韓의 賃金은 同一 階層, 同一 職種內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階層과 階層間, 예컨대 勞動者와 芸術人, 教授 정권기관 관리 등간의 平均賃金 隔差는 相當히 큰 것임.

평양근교에 있는 대안중기계공장의 경우, 工場勞動者의 初賃水準이 70 원 (35 \$) 인 반면 1 級技術者가 받는 最高賃金은 130 원 (65 \$) 인 바, 이와 같은 賃金比率 (1:1.9) 은 中共의 代表的인 工場의 賃金比率과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는데 中共의 賃金水準은 80 원 (47 \$) 부터 150 원 (88 \$) 까지이다. 또 金日成大學에서 勤務하는 教授들의 俸給水準은 初任講師가 100 원 (50 \$) 이고 1 級正教授가 250 원 (125 \$) 인데 비해 上海에 있는 후단대학의 俸給水準은 各各 80 원 (47 \$) 과 325 원 (191 \$) 이다. 그 외에도 平壤産院에서 勤務하는 醫師初年生이 120 원을 받는 反面 先輩醫師들은 250 원까지 받고 있고, 事務員들은 90 원부터 始作하여 1 級官吏 (政務院 部長) 정도가 되면 300 원까지 받고 있다. (圖表 1 參照)

그러나 北韓住民들이 받는 賃金を 經濟的인 面에서의 消費全額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 理由는 그들에게는 각종의 支給品, 物質上의 惠沢과 선물들이 支給되기 때문이다. 이것들의 質과 量은 個個人의 職業, 政治的 地位, 階級에 따라 명백하게 決定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金日成大學에서 勤務하는 教授들에게는 政府가 制服, 冊, 그 以外の 物件들을 支給하고 있고 博士學位를 갖고 있는 正教授들에게는 大學의 車들을 利用할 수 있는 便宜를 提供하고 있다. 한편 政府의 高位官吏들에게도 벤쯔승용차가 支給되고 있는 바 北韓의 運輸技士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이들의 승용차의 型은 使用者의 階級에 의하여 決定된다 한다.

< 圖表 1 >

俸 給 水 準

(單位 : 원)

事 務 員	
5 等 級	90
1 等 級	300
教 授 (金 日 成 大 學)	
講 師	100 ~ 150
正 教 授	200 ~ 250
醫 師 (平 壤 產 院)	
5 等 級	120
2 等 級	200
1 等 級	250
工 場 勞 動 者 (大 韓 中 機 械 公 廠)	
一 般 勞 動 者	90
最 下 級 勞 動 者	70
最 上 級 勞 動 者	130
技 術 者 (5 等 級)	75 ~ 78
技 術 者 (1 等 級)	125 ~ 128
教 師 (平 壤 人 民 學 校)	
初 任 教 師	78 ~ 80
教 師 生 活 20 年 인 教 師	120

註 : 大 略 1 원 이 50 센 트 에 該 當 함 .

그의俳優, 音樂家, 美術家, 무용가, 곡예사 등과 같은 藝術家들은 俸給, 賞勳, 惠沢, 社会的地位에 있어서 待遇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으며, 종종 이들에게는 金요일 義務노동³⁾이 免除되기도 한다. 실례로 T.V. 인기연속극인 "무명용사"에 出演하는 여배우들은 室外勞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타지 않아 平양산원에 入院하고 있는 다른 임산부들과 확연히 區別되고 있으며, "피바다"라는 有名한 오페라에 出演하고 있는 무용수들은 얼굴이 하얗지만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유원지 등에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남의 눈에 들어 오게 된다. 한편 "인민배우"나 "인민예술가"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경우, 그들에게는 승용차와 또 다른 特權들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音樂大學과 高級藝術大學에 入学하기 위하여는 통상 18대 1이나 되는 치열한 競爭이 벌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高位 黨·政指導者와 高位 軍將星과 같은 特權 指導層들은 特別商店에 드나들 수가 있고 새 아파트를 分讓받으며, 여행도 自由로 할 수가 있고, 輸入品, 一般米, 고기 등을 購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 百貨店이나 商店에서 購入할 수 있는 物品의 價格은 이중구조를 띠고 있는데 통상 日常生活에서 널리 必要로 하는 商品들은 價格이 싼 편이지만, 個人的인 욕망을 充足시키는 사치품이나 生活必需品이 아닌 商品들은 비싼 편이다. 個人的 한달 平均俸給(90원~100원)을 가지고서는 고급 견직물을 2미터밖에 살 수가 없고 116원 하는

訳者註 3) : "金요일 義務勞動"은 매주 金요일 都市勞動者, 事務員 등이 農村支援事業이나 建設工事支援事業에 動員, 特別한 보수없이 勞力 奉仕하는 것임.

男子既成服을 살 수가 없다. 金日成은 자신의 生日날 學生들에게 學用品, 學生服, 코-트, 스웨터, 문구류, 모자, 가방, 셔츠 등을 配給할 때마다 學生들과 그들의 父母들에게 金日成의 慈愛로운 보살핌과 恩惠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며 이들은 配給받는 선물의 값어치가 勞動者의 賃金보다도 많기 때문에 열광에 복받쳐 울부짖곤 한다.

680원하는 大型 아코디언과 350원하는 사진기, 19인치 黑·白 T.V.등을 한꺼번에 사기 위해서는 平均 工場勞動者가 1年半동안 받은 賃金全額을 支払해야 한다. 하지만 21인치 黑·白 T.V. 1대를 生産하는데 要하는 費用은 北韓이나 中共이 같음에도 不拘하고 1981年 現在 北韓의 T.V價格은 中共보다도 약간 싼편이었고, T.V.보급도 4) 農村地域까지 中共에 비해 많이 되었으며 平壤 第2百貨店에서 勤務하는 女店員의 말에 따르면 이곳에서 每日 20대의 T.V.가 팔리고 있다고 한다. 고기통조림, 인삼주, 화장품, 만년필, 핸드백, 평상화, 목욕수건들은 거의가 비싼 價格이고 美術品, 자수품, 공예품, 칠기상자들과 같은 藝術品들은 賃金에 비하여 엄청나게 비싼 편이었다. (凶表 2 參照)

生活必需品의 種類는 限定되어 있었고 전반적인 質을 判斷하기가 어려웠으며 대부분의 商品들이 北韓에서 生産되고 있었지만 전기제품의 相当數는 外製部品들을 使用하고 있었고, 조악한 포장지의 質은 물론 쇼핑가방은 아예 있지도 않았다.

가장 특이한 사실은 中共과 蘇聯에서는 쉽게 購入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가정용 선풍기, 자전거, 팔목시계, 사진기, 양산 등과 같은

訳者註 4) : 金日成은 70年代初 住民教養事業에는 T.V.가 가장 效果的이라는 理由로 大量 普及指示

物件은 평양 시내 大規模 百貨店에서조차 찾아 볼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北韓의 商店이나 거리에서는 外製消費品들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北京과 相當한 차이가 있었다. 즉 北京에서는 세이프시계, 價格이 500元 (300\$) 하는 히다찌 黑白T.V., 2,500元 하는 21인치 칼라 T.V., 코카콜라를 살 수가 있었고, 蘇聯에서는 동구산 용단, 인도제 보석과 양털 스웨터, 프랑스제 과자, 영국산 담배, 펄시콜라를 살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北韓 当局이 一般住民들에게는 外製商品들을 보지도 못하겠음 嚴格히 제한하기 때문이고 住民들의 消費 自体를 統制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圖表 2 > 平壤商店에서의 商品價格

(단위 : 원)

고급실크 (미터당)	45.50	학생용 만년필	5.50
저급 레이온 (미터당)	3.55	" 노트	1.80
어린이용 한복 (색동옷)	11.20	연필 (12자루)	1.20
여자용 치마	7.40	필 통	3.00
여자용 실크옷 (조선옷)	50.00	학생용 모자	5.00
남자용 소매달린셔츠 (폴리에스터)	28.00	어린이용 합성수지 신발	1.50
		" " 구두	2.30
남자용 자켓 (")	62.00	실내화	1.40
남자용 신사복 (")	116.00	여자용 합성수지 신발	3.80
수건 (인견사)	2.30	" 굵이 중간치인 신발	15.60
학생용 가방	3.60	비누 ("인삼표")	2.00

분(소)("인삼표")	2.20	전기사진기	350.00
"(대)(")	3.00	아코디언(대)("백두산표")	680.00
얼굴크림 ("인삼표")	3.00	" (소)("평양표")	400.00
치약 ("고려인삼표")	1.20	칠기화장품상자	68.00
여자용 빗	1.20	벽시계	28.00
부 채	1.50	책상시계	20.00
닭고기통조림	3.45	축구볼	12.00
청어통조림	2.20	테니스라켓	13.00
돼지고기통조림	3.80	합성수지로된 손가방	23.00
돼지염통조림	4.70	알루미늄으로된 밥통	10.00
소고기통조림	6.00	보온병	15.00
깡통과자	2.50	만연필 ("만경대표")	20.00
사과통조림	1.80	술 ("홍삼술")	16.10
대동강제흑백 T.V.(19인치)	500.00	술 (인삼술)	8.04

내가 호텔 책가게에서 勤務하는 한 처녀에게 家族들이 쓰고 남는 돈을 어떻게 處理하느냐고 물어 보자, 그녀는 대개 1년에 한번 식구들을 위하여 좋은 옷 한벌을 사고, 그 나머지는 오락비, 일요일날에 드는 점심값에 充當하며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特別配當金을 받을 수도 있는 추첨제저축을 5) 한다고 대답했다.

記者註 5) : "추첨제저축"은 저축성예금의 一種으로 일정액저축 단위로 추첨권을 부여하고 滿期日에 추천 당첨자에게 規定된 利子外에 상여금을 支給하는 저축종류임.

만일 이 家族이 俸給의 10%를 貯蓄한다면, 1년에 170원하는 소형냉장고와 40원하는 가정용 트란스를 購入할 수가 있고, 20%를 저축하면 黑白T.V 1대를 購入할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쇠고기 500g을 먹으려면 俸給 전부를 써야 한다.

우리 一行은 平壤의 중심부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訪問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에는 부모, 여고생 2명, 신혼인 아들부부(아들은 화학공업부에서 技術者로 勤務하고, 며느리는 의료보조원) 등 6명이 3개의 방에서 살고 있었다. 家長은 제 2기제공업부의 부국장으로 勞動黨 6次黨大會에도 參席하였다 하며 金日成이 會議 參席者들에게 선물한 대동강 대형냉장고 외에 편리하게 設計된 부엌에 소형냉장고를 갖춰 놓고 있었다. 아파트에는 傳統的인 커다란 온돌방이 2개 있었고 그 나머지 한개는 젊은 부부들이 使用하는 방으로 아름다운 실크시이트가 덮인 서양식 2人用 침대⁷⁾가 있었다. 金日成과 그 아들인 金正日의 천연색 사진이 눈에 잘 띄게 안방 벽에 나란히 걸려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책장에는 이들 金日成, 金正日과 관련이 있는 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으며 다른 두 방에는 각각 金日成과 金正日의 초상화가 있었다. 사진이 걸려 있다는 것은 이미 豫想되었던 權力承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象徵的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다.

平壤市에서 上流層에 속하는 이 家庭에는 韓國語로 "목란"이라고 쓰

訳者註 7) : 北韓의 一般國民은 大部分이 온돌방에 기거하고 外國人을 위한 고급호텔이 아니면 서양식 침대가 없으나 필자가 訪問한 아파트는 外國人에게 案内하기 위한 指定된 곳이므로 서양식 고급침대를 備置한 것으로 보여짐

여진 히다찌 칼라 T.V.(1 대 당 700 ~ 900 원) 가 있었으나 라디오, 재봉틀, 선풍기, 세탁기, 전축들은 볼 수 없었고 가구는 다소 초라한 것이었다.

부끄러움을 타는 50대 중반의 주부는 우리 一行에게 과일, 과자, 사이다를 대접하면서 제 2기제공업부에서 새로 진 이 아파트를 자기들에게 分讓해 주었고 매월 드는 施設使用料는 여름에 10 원, 겨울에는 16 원이라고 말해 주었다.

性能이 좋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초현대적인 이 아파트와 戰爭直後 지은 낡은 단층집과는 현저한 差異가 있었다. 平壤에는 낡은 집들이 새로운 집들로 대체되고 있었으며 수만명이 居住할 수 있는 巨大한 아파트단지가 대동강변에 建設되고 있었다.

南北協商때 重要한 역할을 했다는 필자의 案内員은 필자에게 平壤에 居住하는 5인가족이 1년동안 國家로부터 받는 經濟的 惠沢의 大略的인 明細를 알려 주면서 北韓住民이 단순히 賃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強調하고 있었다.

食糧配給特惠		500 (원)
醫 療 費	120 원 × 5 명	600 "
아파트 임대보조금	50 원 × 12 개월	600 "
教 育 費		3,000 "
衣 服 費		100 "
小 計		4,800 "
俸 給	100 원 × 2 명 × 12 개월	2,400 "
總 計		7,200 "

이러한 資料를 證明할 수 있는 독자적인 方法이 없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惠沢의 價值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특히 教育費에서는 너무나 과대책정된 것 같다. 왜냐하면 1,000 원이라는 액수는 金日成大學에 다니는 學生 한사람의 일년치 學費總額보다도 많기 때문이다.

政府補助와 現金所得 외에도 北韓住民들은 金요일 노동활동과 같은 노력봉사에서 약간의 經濟的 惠沢을 獲得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굴이 검게 탄 어떤 政權機關 従事者는 자신이 매주 金요일 동료들과 함께 교외에 있는 돼지사육장에서 일하고 있고 가끔마다 그 農場에서 할당해 주는 돼지고기를 집에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 金요일노동이 國家經濟의 繁榮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自身の 肉體的, 精神的 健康에도 有益하다고 力說하고 있었다. 그러나 個個人의 가정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金요일 노동의 正確한 役割을 判斷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요일이나 公休日에 平壤市民들은 1인당 10전하는 地下鉄을 타고 대성산에 있는 유원지에 간다고 하는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약 5만명 정도 모인다고 한다. 이곳에 온 市民들은 천동열차(어린이 10전, 어른 40전)를 타기도 하고, 美帝國主義者를 과녁으로 하는 사격도 즐기며, 그저 자연경관들을 즐기기도 하나 사진기를 가지고 紀念撮影을 하는 사람은 볼 수 없었다. 그 외에 平壤市民들은 가끔가다 곡예공연이나 映画, 演劇을 보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北韓의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재창(양코르)도 要請하는 中共이나 蘇聯의 청중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감각한 것 같다.

그러나 金日成의 초상화나 그의 출생지 만경대 또는 急速한 經濟成
果의 象徴으로서 建立한 천리마가 画面에 나타날 때는 대부분 거의
自動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음이 特徵的이었다.

北韓의 T.V.는 선전적인 프로그램만을 放映하고 있지만 T.V.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立場에 있어서는 日常生活에서 즐길 수 있는 重要的
오락수단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뉴스들은 金日成이 世界到處
에서 崇拜되고 있으며 外國 訪問客들이 金日成의 永久不滅한 主体思想
과 社会主義 樂園인 北韓을 찬양하고 있다고 報道하고 있고, 연속극,
연극 및 스포츠, 韓國動亂時 유엔군에서 活動하는 親共產系 간첩을
묘사한 "무명용사"라는 연속극과 같은 것을 매일 저녁 放映하였으며
西歐 유행음악, 映画, 연극과 같은 오락물은 전혀 放映되지 않았다.

農 業 開 發

北韓人들은 農業의 自給自足を 自立經濟政策 達成을 위한 기본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当局은 처음부터 農業部門에 대하여 막대한 投
資⁸⁾를 하게 되었고 主体農業에 있어서 思想性を 強調하는 것 같다.
또 当局者들은 北韓이 여타 社会主義國家와 開發途上 國家와는 달리 農
業生産과 管理面에서 발생하는 問題를 成功的으로 解決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는데 어떤 관계관은 국명을 밝히지 않은 몇몇 友邦國家들이 農

訳者註 8) : 北韓은 重工業 우선정책으로 輕工業, 農業部門에 대한 投資
를 抑制해 왔으나 필자는 北韓農村의 土地整理, 灌溉水路 등
외형적인 事實을 보고 投資가 增大된 것으로 判斷한 것 같
음.

業에 失敗함으로 해서 世界的으로 社會主義 體面을 損傷케 하였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어떤 蘇聯學者는 北韓의 單位當 穀物生産量이 蘇聯과 中共보다 높다⁹⁾는 것을 선뜻 認定하면서도 부연해서 北韓이 이들 國家보다 農業部門에 相當히 많은 投資(總 基本投資額의 약 20%)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행기가 압록강을 건너 平安北道에 들어서자 우리는 곧게 뻗은 관개시설, 大規模의 저수지, 굵은 나무들로 뒤덮인 산들, 西海岸에 있는 墾拓地들을 볼 수 있었다. (編輯者註:이채진教授와 고 병철 教授는 1981.7.14 일 飛行機便으로 北京에서 平壤으로 왔으며, 나머지 일행들은 3日後 기차편으로 平壤에 到着했다)

그 以後 元山까지 승용차로 여행을 하면서 인상깊었던 것은 土地들이 集約적으로 耕作되고 있다는 點이었다. 即 한치의 땅이라도 耕作될 수 있는 土地라면 모두 耕作되고 있었으며 언덕과 야산에는 쌀 이외에 옥수수가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이는 필자가 1976年에 訪問한 바 있는 中共의 有名한 다자이生産隊에 있던 옥수수보다 더 많은 量이었다.

東海岸은 대부분 옥수수 밭이었고 西海岸에는 논, 옥수수밭, 其他 穀物 耕作地가 혼재하고 있었다.

農村에서 초가주택은 보지 못하였고 農民들은 傳統的인 기와집이나

訳者註 9) : 蘇聯學者는 北韓에서 發表하는 알곡개념을 정곡개념으로 받아 드린 것임

高層아파트¹⁰⁾에서 살고 있었다. 1981年 7月 當時 北韓의 農業狀況으로 미루어 볼 때 가을추수의 單位當 生産量은 確實히 中共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金日成은 1979年 現在 耕地面積 100정보당 트랙터가 평야지대에는 7대, 중간지대와 山間地帶에는 6대가 있으며, 1정보당 化學肥料 施肥量은 1.5톤이라고 報告하였다. 한편 第2次 7個年經濟計劃 ('78 ~ '84)에 의하면 1984年末에는 알곡을 천만톤까지 生産하기로 되어 있고, 1989年末에는 1,500만톤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公約하고 있다.

또한 그는 1980年代에 30만정보의 墾拓地를 開墾하고 20만町步의 새 땅을 獲得할 것이라는 計劃을 發表하였고 1980년에는 알곡 900만톤을 生産했다고 했다. 이 9백만톤이라는 숫자는 탈곡되지 않고 乾燥되지 않은 벼, 보리, 옥수수, 밀, 콩, 감자 등의 알곡을 根拠로 하여 나온 숫자이다.

탈곡되고 乾燥된 알곡들을 計算할 수만 있다면, 그 숫자는 相當히 줄어들 것(적어도 약 30%까지)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北韓이 야심적인 農業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國家次元에서 機械化, 化學化, 灌溉化 등 科學的 營農을 위해 投資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北韓農民들이 더욱 힘든 일을 해야 하고 더욱 많은 負擔을 져야만 한다.

어느날 아침 우리 일행은 平壤에서 승용차로 約 1時間 걸리는 北韓農業의 메카(MECCA)인 청산리협동농장을 訪問하였다. 近處의 山

訳者註 10) : 農村地域에는 통상 2~3層의 '農村文化住宅'이 있으나 필자는 이를 車輛内の 遠距離에서 보았기 때문에 高層아파트로 본 것임

頂上에는 靑山里精神을 찬양하는 선동적인 標語板이 세워져 있었다.

展示場에 있는 대형차-트에 따르면, 金日成이 1946年부터 청산리를 83회 現地指導하였으며 그때마다 農民들과 함께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을 지냈다고 한다. 한편 金正日은 청산리를 10回以上 訪問하였다. 管理委員會 副委員長이 提供한 資料에 의하면, 이 協同農場의 特性은 다음과 같다.

- (1) 協同農場에는 602世帯, 3,100명의 住民이 살고 있으며, 이 중 1,000명이 勞動力을 갖고 있는 成人으로서 直接 農事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數는 700명이다. 協同農場에 所屬되어 있는 土地는 1,614정보로, 이 중 1,100정보가 耕作되고 있고, 이 1,100정보중 논은 657정보, 쌀 以外的 穀物耕作地는 247정보, 나머지는 과수원, 뽕나무밭 등으로 利用되고 있으며, 1家口當 耕作할 수 있는 土地는 2정보도 안되었다.
- (2) 1978年 現在 穀物生産量은 1963年에 비해 162%가 增加하였고, 채소생산량은 432%, 과일생산량은 3,581%, 생선생산량은 210%가 增加하였다. 穀物生産의 增加率은 每年 約 4%로서 滿足할만한 水準이었고, 農場所得에서 非穀物 生産物이 차지하는 重要性이 점차 增大하고 있으며 農場에는 62頭의 家畜이 있다.
- (3) 農場에는 75馬力の 트랙터 10대, 28馬力の 트랙터 83대를 포함한 110대의 트랙터가 있으므로 정보당 트랙터 保有台數는 10대 (全体水準은 7대)가 된다. 이들 트랙터들은 대부분 12馬力짜리 農場트랙터를 使用하고 있는 中共의 人民公社 트랙터들 보다 더 強力한 힘을 가지고 있다.

(4) 1980年 現在 정보당 平均 논벼 生産量은 11) 国家全体 平均보다 1.3톤이 많은 8.5톤이지만 청산리協同農場의 生産量은 最低가 6.5톤, 最大가 12톤이었다.

1980年 現在 總穀物 生産量은 約7,000톤이었고, 이 중 5,500톤을 国家가 收買하였다. 1家口당 穀物 生産量은 11.6톤으로서 이를 貨幣로 換算하면 5,830원이다. 1980년에 1家口마다 現金으로 1,700원이 支給되었으며, 以外에도 穀物, 其他 農業 生産物이 支給되었다.

(5) 国家는 住宅, 化学肥料, 트랙터, 其他 農機械를 提供하는 반면, 農場에서는 살충제, 其他 化学製品, 작은 농기구, 機械에 必要한 油類 등을 供給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의 人民公社는 自体的으로 貯蓄한 돈을 가지고 트랙터를 購入하고 있다.

(6) 過去에는 50坪이었지만 지금은 줄어 1家口마다 約35坪 規模의 터밭을 갖고 있다.

個人 耕作地는 청산리협동농장 耕地面積의 1%도 안되고 있다.

이같은 趨勢는 中共에서 施行되는 政策과는 正反對되는 것으로 中共은 農村地域에서 個人 耕作地의 擴大(耕地面積 15%以上)를 권장하고 있다.

訳者註 11) : 6次党大会에서 北韓이 發表한 (논벼: 정보당 7.2톤) 生産量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北韓이 發表한 논面積 70만 정보를 根拠로 計算하면 논벼生産量은 504만톤, 옥수수:町步当 6.3톤 파종면적 68만정보로서 總生産量은 428만톤으로 감자를 비롯한 잡곡을 제외하고 이들만을 합해도 北韓이 發表한 알곡 900만톤을 32만톤이상 상회함

個人 耕作地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거나 닭과 오리를 사육한다.

- (7) 農場内에는 專門化된 機能을 갖고 있는 작업반이 19개가 있으며, 穀物生産을 担当하는 11개의 작업반, 과일생산을 担当하는 4개의 작업반, 가축사육, 야채재배, 기계, 양잠을 担当하는 各各 1個의 작업반으로 構成되어 있다.

보통 작업반의 人員은 70~80명이며, 1個의 작업반은 3~5분조, 1분조는 약 20명으로 構成되어 있다.

- (8) 作業의 種類는 크게 6가지로 分類되고 있는데 最高의 作業은 트랙터운전수와 같은 技術者가 遂行하는 作業이다. 個人의 매일 作業量(点数)을 記錄하여 분조에서 매일 發表하고 있다.

- (9) 청산리협동농장 소속원의 60%(全体住民의 約 20%에 該当하는 600명)가 勞動黨員이다. 20명으로 構成되는 勞動委員會가 모든 重要한 事項을 決定하면 그 決定된 事項을 24명으로 構成되는 管理委員會가 執行하고 있다. 管理委員會 委員들의 60%가 黨委員會의 委員을 兼職한다 하더라도 兩 委員會의 委員長은 各기 다른 사람이다.

靑山里에서 우리 一行이 訪問한 시골집은 家長이 트랙터운전수로서 5人家族이 살고 있었다. 그 집에는 3個의 온돌방과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하나 있었고 40대의 주부가 우리들을 접대해 주었다. 家口는 아주 초라하였고 조그만 옷장이 하나 있었다. 몇년전에 300원을 주고 購入했다는 흑백T.V.가 있었고, 다이얼이 고정된 라디오의 스피커가 벽에 걸려 있었으며, 책상위에는 두달전 것인 勞動新聞이 놓여 있었으나 金正日의 초상화는 볼 수 없었다.

여러 가지 質問에 대답하면서 그 주부는 自己 家族이 35평의¹²⁾ 터
밭을 耕作하면서 6마리의 닭을 기르고 있으며, 農民市場이 10日 마다
近處에서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청산리에는 傳統的 家屋 以外에 수많은 農村아파트 團地들이 있었다.
그리고 새 아파트들이 建設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作業에 參與하고
있는 일단의 勞動者들은 청산리 사람이 아닌 外地사람들 이었다.

트랙터, 수확기, 이앙기, 其他 農機械들이 保管된 倉庫에는 韓國의
金斗煥大統領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불도저는 하나도 보지 못 하였으며, 協同農場內에 보육원, 유치원, 人民
學校, 高等中學校가 있었다.

청산리 協同農場은 北韓農業의 發展을 象徵하는 전형적인 표본이긴
하지만 이 農場만을 보고 農業發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一般化
할 수는 없다는 것을 強調해 두고 싶다.

平壤을 떠나기 전날밤, 우리 一行은 정준기(勞動黨 政治局候補委員,
前 勞動新聞 主筆) 副首相을 정무원 事務室에서 만났는 바, 그는 北
韓의 전반적인 農業政策에 관한 書面 質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答
하였다.

(1) 每年 經濟計劃委員會에서 農業生産에 대한 전반적인 計劃을 樹立하
여 人民들로 하여금 이를 討論케 한다.

各 地方에서 이에 관한 討議를 거친 後, 農業政策에 관한 最終決定
을 最高人民會議가 하게 되고, 이 政策을 協同農場 管理委員會가 추
진하고 있다.

訳者註 12) : 協同農場員의 터밭은 土地法 第13條의 規定에 依拠 20
~ 30坪以內로 許容되어 있음.

- (2) 穀物秋收가 끝난 後에는 協同農場員들이 필요한 만큼의 量을 남기고 그 나머지는 모두 國家가 收買한다. 農民 自身の 勞動의 量과 質에 의해서 穀物分配의 量과 其他의 經濟的 惠沢이 決定된다.
- (3) 政府의 物價專門家들이 協同農場으로부터 收買하는 穀物價格과 消費者에게 販賣하는 穀物價格을 正確하게 策定하고 있다.
- (4) 北韓은 勞動條件, 生活水準 및 文化生活에 있어서도 都市와 農村과의 차이를 줄이려고 努力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그는 北韓이 農產品을 輸出하고 있는 대신 原油와 天然고무 등과 같은 各種 原料와 레이저빔과 세포학 등과 같은 各種 先進技術을 導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北韓이 蘇聯, 인도네시아, 홍콩에 쌀을 輸出하고 蘇聯과 호주에서 밀을 輸入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事實이다.

對外經濟關係

우리 一行은 金日成大學 政治經濟學 教授들과의 討論에서 北韓의 經濟活動에 관하여 많은 争點을 提起하였다. 그들은 主要한 政策基調로서의 自立經濟가 갖는 重要性을 強調하면서 北韓에 있는 機械의 98%가 國內에서 製作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정준기 副首相과는 달리 그들은 援助, 借款, 技術移轉 및 合作投資 등과 같은 外國 經濟의 유입이라는 問題에 대해서 당혹감과 不快感을 表示하였다. 그들은 外國援助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努力으로 外國에서 많이 輸入해 가고 있는 良質의 시멘트(순천시멘트공장)와 알미늄, 機械, 트랙터, 造船工業에서 使用되는 鋼鐵(金策製鐵所)을 生産하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北韓의 總國民所得中에서 對外貿易이 차지하는 比重이 大略 어느 정도 되느냐고 質問을 하자 그들은 統計的 資料는 提示하지 않고 經濟理論에 대해서만 言及하면서 質問自体에 대해서는 별 反應을 보이지 않았다.

經濟自立을 強調함에도 不拘하고 北韓에 外國經濟가 상당히 침투해 있음을 보여 주는 證據를 發見할 수 있었다. 필자가 묵은 평양보통강호텔 방들에는 산요냉장고, 마스시다제품인 내쇼날에어콘, 목란표가 붙은 히다치칼라 T.V.가 있었다. 平壤의 한 人民學校와 원산관광 호텔에는 소련제 T.V.가 있었으며 청산리의 學生들은 야마하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北韓은 여러 國家에서 승용차들을 輸入하고 있었던 바 西獨의 벤츠, 스웨덴의 볼보, 日本의 도요타, 中共의 흥기가 그것이다. 또한 日製트럭과 東歐製관광버스 역시 利用되고 있었다. 대안중기제공장에는 그곳 기사장이 全機械中에서 6%만이 輸入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西獨의 시멘스, 베르티즈, MAAG로부터 輸入한 여러 機械와 裝備들이 使用되고 있었고 日本으로부터 輸入한 고마쓰블도저, 가또벌목기가 實際로 使用되고 있었다.

수많은 日本商人들이 보통강호텔에서 바쁘게 텔레타이프를 치고 있었으며 일단의 蘇聯技術者와 그 家族들이 우리 一行과 함께 금강산을 동반하였고 이란 經濟購買使節團 一行中 머리를 뺏작은 젊은 친구 몇사람이 우리 一行이 머물렀던 묘향산호텔에서 당구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평양산원에서는 西獨(시멘스), 日本(시에이), 헝가리, 스웨덴, 스위스 等地에서 高價로 購入한 醫療裝備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널리 使用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外製裝備들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냐는 質問에 대하여, 그곳 醫師는 北韓에서는 生産地와 價格이 비싸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人民들의 健康增進이라는 目的을 위하여 가장 現代的인 醫療器具들을 購入하고 있다고 태연스럽게 대답하였다.

最近 北韓의 主要 交易相對國으로는 蘇聯, 中共, 日本이 있다. 1980年 現在 北韓의 全体貿易(約 30 億\$)中 蘇聯, 中共, 日本이 차지하는 比重은 각각 30%, 21%, 18%라고 評價되었으며 이 比率은 1981年에 각각 32%, 17%, 19%로 變化하였다.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의 報道에 따르면 1980年 現在 北韓의 對蘇 輸入額은 4 億 3,620 萬달러(前年對比 20.8% 增加)인 反面 對蘇 輸出額은 4 億 3,060 萬달러(前年對比 9.5% 增加)이었으며 1979年에는 美貨로 3,220 萬달러의 黒字를 보인 反面 1980年에는 560 萬달러의 赤字가 發生하였다 한다. 그리고 同誌는 北韓이 蘇聯으로부터 原油, 機械, 飛行機를 導入하고 마그네사이트 파우더, 帶鋼, 시멘트, 쌀을 販賣한다고 報道하였다. 以外에도 北韓은 蘇聯에서 크롬, 망간, 베어링, 점결탄을 수입하고 비철금속, 카아바이트, 공구, 야채, 과일 등을 輸出하고 있다. 蘇聯은 1981年에 차관상환(40 億루우블 : 56 億\$)¹³⁾의 연기를 동의한 것 같으며 北韓에 대하여 17 億루우블(23.6 億\$)相當의 借款을 새로 提供하였다.

北韓에서 建設中인 수많은 工場, 특히 石油化學工業(例, 雄基精油工場)과 火力發電所(例: 淸津火力)建設에 蘇聯의 技術者와 專門家들이 參與하고 있었다.

北韓은 當面한 經濟問題의 解決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訳者註 13) 北韓은 蘇聯으로부터 約 9 億弗의 차관을 얻고 있고 相當額이 延滞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1981年の 상환 연기와 23.6 億弗 相當의 新規借款을 얻었다는 것은 알려진바 없음. (現 北韓의 外債規模는 總 33 億정도임)

소련과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는 것이 必須的인 것 같다.

中共이나 北韓 어느 쪽도 對外經濟活動에 대한 詳細한 統計를 發表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간의 相互經濟關係의 本質을 正確하게 把握하는 것은 대단히 困難하다. 이 問題에 대하여 正確하고 滿足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北韓에는 한명도 없었다. 政府官吏들과 政治經濟學者들은 단지 우리 일행의 끈질긴 質問을 묵살할 뿐이었다. 北京으로 귀환하는 길에 필자 자신이 증공주재 북한대사인 전명수(노동당 중앙위 후보위원, 前 外交部 副部長)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에게 1980年의 對中共 貿易額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모른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쟁이가 되겠지요. 우리 政府는 中共과의 協助下에 政策上 貿易量을 發表하지 않기로 決定하였으며 이같은 우리 立場을 여러분들이 理解해 주십시오. 다만 명백한 事實은 양국간의 經濟關係가 매우 密接하고 더욱 增大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經濟, 外交, 軍事分野에서 北韓이 점차 中共보다는 蘇聯에 기울고 있다는 어떤 西方學者의 主張에 대하여 그의 意見을 묻자, 그는 그러한 見解가 잘못된 것이라고 극구 否認하면서 北韓은 中共, 蘇聯 兩國과 동등하게 階級的 형제關係를 잘 維持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1980年 現在 中共의 對北韓 貿易額¹⁴⁾은 北韓의 總貿易額의 約 21%를 차지하였으나, 1981년에는 貿易額이

訳者註 14) 北韓의 對中共 貿易高는 1979年 6億4,722万弗(輸出 3億1,701万弗, 輸入 3億3,021万弗)인바 引用된 數値는 交易額 單位의 錯誤로 보임.

출어든 것 같다. 中共의 對北韓輸出品中 原油가 차지하는 비중(10% 이상)은 크며 “朝-中 友情 送油管”이 1976년에 개통되어 대련으로부터 石油를 供給받고 있다. 圖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 首相이 평양을 訪問한 直後인 1978년에 中共은 對北韓 石油輸出을 增大하였으며 1970年代 末까지 友情價格인 배럴당 4.5\$를 適用하였다. 確實히 中共의 石油供給 增大은 北韓의 第2次 7個年計劃遂行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것이었다. 만일 日本에 輸出되는 대련의 原油價格(배럴당 14\$~26\$)을 適用하였다면 中共의 原油收入은 3,290萬\$이 아니라 1億4,600萬\$에 達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北韓에 販賣된 原油量이 730萬배럴(約 100萬톤)이었기 때문이다. 1979年 北韓이 輸入한 原油量은 中共이 每年 生産하는 原油 總生産量(1億615萬메트릭톤)의 約 1%에 해당한다. 北韓은 1978년에 平安북도에 있는 溶化석유화학공장의 1段階 建設工事を 完工하였고 2年後에 2段階 計劃을 完成하였다. 한편 中공이 原油生産量의 減少(1980年 1億590萬MT)에 직면하게 되자, 對日 原油輸出(1980年 배럴당 32.3~34.6\$이라는 高價로서 810萬MT 輸出)을 더 늘려야 하며 国内經濟에 있어서 긴축정책을 實施하여야 한다는 主張이 接증하였고, 이에 따라 中共은 大북한 原油輸出量을 削減하는 동시에 1981년에 原油價格을 引上하였다. 이렇게 되자 北韓은 原油供給의 安定을 確保하기 위하여 原油導入先을 蘇聯, 이란, 其他 中東産油 國들로 變更하였다.

圖表 4 : 中共의 對北韓 原油輸出

年 度	量 (B / D)	費用 (百萬달러)	배럴당價格 (달러)
1975	18,000	29.6	4.50
1976	18,000	29.6	4.50
1977	8,000	13.2	4.50
1978	20,000	32.9	4.50
1979	20,000	32.9	4.50

資料 : 石油經濟誌, 1980年 7月號, p.293.

中共과 北韓은 地理的으로 隣接해 있기 때문에, 특히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中共의 연변 朝鮮人 자치지구와 함경북도간에 國境貿易이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兩國은 오래 전부터 수풍 (70萬 Kw), 운봉 (30萬 Kw),¹⁵⁾ 위원발전소와 같은 수력발전소를 合作으로 運營하고 있는데 一般的으로 이러한 發電所에서 生産된 電氣는 같은 比率로 兩國에 配分되고 있다. 中共의 인민일보 報道에 따르면 조-중 압록강 수력발전공사 第33次 이사회의가 1981年 2월에 평양에서 開催되었으며, 共同議長인 中共 電力工業部 副部長 이시밍과 北韓 전력공업부 부부장 이정선이 회의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재정상의 決算과 수풍, 운봉, 위원발전소 (現在 改建중임)에 대한 計劃에 合意를 보았으며 압록강에 다 대평만 수력발전소를 새로

訳者註 15) 운봉발전소의 施設容量은 40만 Kw라고 發表하고 있으나 實際上으로는 30萬 Kw라는 說도 있음.

建設한다는 中共의 豫備計劃을 인준하였다. 1980年代 末까지 水力 및 火力發電所의 發電量을 1,000 億Kwh까지 增産시킨다는 北韓의 거대한 計劃의 하나로서 建設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發電所이다.

한편 第34次 理事會議는 1981年 10月부터 11月까지 北京에서 열렸다. 이와 같은 協力과 交易 以外에 兩國間에는 學問的, 科學的 交流가 계속 增大하고 있다. 1981年 現在 金日成大學에 留學中인 約 150명의 外國人 中에는 中共留學生이 30名으로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蘇聯留學生은 約 20名 程度였다. 北韓주재 中共大使館의 젊은 領事는 필자에게 韓國語로 자기는 "4年동안 金日成大學에서 修學하였다"고 말해 주었다.

한편 북경대학에는 주로 外國語를 專攻하는 약간 名의 北韓人들이 留學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1981年 8月부터 천진 난카이 大學校에서 12名의 北韓留學生들이 生物學과 其他 學문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經濟的 困難을 겪고 있는 中共自身の 立場에서 보면 北韓經濟를 援助하고 있는 蘇聯과는 競爭할 만한 能力이 없었다.

蘇聯은 아마 北韓도 마찬가지로 韓國과의 貿易關係를 增大하고 있는 中共에 대하여 批判을 가하고 있다.

日本商人들은 평양에서 아주 活動的으로 勤務하고 있었으며, 大部分의 日本人들은 日常對話를 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었다. 조강복을 입고 있던 한 製鐵會社 代表는 자기 자신이 金策제철소 擴張計劃에 따른 技術協力問題를 협의하기 위하여 이곳에 招聘되었다고 말하였다. 미쓰비시 쇼지의 계열회사인 메이와 貿易會社 代表인 젊은 日本人은 北韓에서 岬박 한달을 보냈지만 去來契約을 맺은 額數의 綜合計가 단지 80萬\$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이 額數는 1980年 10月에 開催된

당 제 6 차 대회전에 北韓이 걸잡을 수 없이 구입한 額數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그에 따르면 오사카에 本社가 있는 니찌멘會社가 北韓과 貿易을 하고 있는 제일 큰 會社라 하며, 北韓의 日本貿易會社의 상주를 認定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日本人 貿易業者들이 일시 旅行이라는 名目으로 평양에 實際로 거주하고 있고 또 北韓의 시멘트는 양질이지만, 쌀과 트럭의 質은 그리 좋지 않다고 한다.

그 日本人의 經驗과 失敗談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北韓人들은 日本의 現代的 商品에 대하여 상당한 關心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外換保有高의 減少와 輸出商品種類가 制限되어 있다는 理由로 하여 同 商品을 살 수가 없다.
- (2) 北韓에서는 意思決定 過程이 複雜하여 意思決定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關及적 장애 역시 상당히 存在하여 契約締結을 위하여 매일 매일하는 상담이 오래 걸리고 비비 꼬인다. 그러나 商談에서는 政治的 혹은 理念的인 發言들을 일체하고 있지 않으며, 北韓의 貿易專門家들은 國際市場의 現 추세를 正確하게 把握하고 있다.
- (3) 北韓人들은 고집이 세고 세세한데까지 흥정을 하기 때문에 日本 貿易業者들이 얻는 利潤은 적을 수 밖에 없다.
- (4) 北韓은 종종 代金支払 契約의 履行을 遲延할 뿐만 아니라 輸送難 때문에 石炭과 같은 商品을 제때에 船積하지 못하고 늦게 인도하는 境遇가 종종있다.
- (5) 長期間을 要하는 商談으로 드는 費用이 北京보다는 평양이 더 비싸다. 매일 호텔費用은 150 원 (客室이 100 원, 飲食費 50 원) 이

들며, 평양에서 동경까지의 텔렉스費用은 동경에서 평양까지의 그것보다 2배 반이 더 든다. 때때로 그는 북경이나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동경에 있는 會社로 電話를 하곤 했다.

그러나 그는 日本과 北韓과의 貿易은 점차 增大되고 있으며, 미쓰비시 會社와 미쓰이 會社가 5年内에 평양에다 事務室을 開設할 것이라고 豫想하였다. 日本을 비난하는 北韓의 언사에도 불구하고, 1980年代에는 金日成의 웅대한 計劃을 達成하기 위해서라도 소련과 중공보다는 아마 日本과의 經濟的 유대를 강화해야 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北韓이 美国 貿易使節團을 歡迎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묻자, 정준기 副首相은 美国政府가 北韓에 대하여 經濟封鎖政策을 取하고 있기 때문에 美国貿易使節團이 北韓을 訪問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個人資格으로 오는 무역사절단에 대하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質問에 대해서는 “그러한 訪問의 징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역시 그것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그는 海底油田과 鉍物資源開發을 위한 美国과 北韓과의 合作 可能性을 단호히 부정하였고 이에 덧붙여 심지어 그 어떤 社會主義 國家들과도 合作으로 資源을 開發할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미심장한 점은, 그가 將來에 美国과 北韓間에 經濟交流가 있을 것이라는 豫想을 完全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蘇聯, 中共과 比較해 볼 때 北韓은 觀光産業 開發에 그리 큰 重要性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 蘇聯의 外国人觀光局과 中共의 國際觀光會社와 같은 아주 發達된 觀光機構가 北韓에는 없었으며 조선민항기가 평양과 북경간을 일주일에 2회 就航하는 반면, 中共의 民航總

局이 運營하는 航空機는 往復 就航하고 있었다. 북경행 列車와 평양행 列車가 一週日에 2回 각각 평양과 북경에서 出發하고 있었으며 평양과 모스크바를 往來하는 航空機와 列車는 그리 빈번하게 있는 것 같지 않았다.

北韓을 訪問하는 外國觀光客들의 대부분은 社會主義國家 國民, 그 중에서도 동구인들이었으며 日本에 거주하는 조총련 사람들이 大規模로 北韓을 訪問하고 있었다. 北韓에는 外國觀光客들의 關心을 끌만한 선물을 販賣하기 위하여 진지한 努力을 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中共의 鎭邊商점과 같이 多樣한 商品과 飮食物을 갖추고 있는 商店도 存在하지 않았다. 金강산에 있는 記念品 商店에서는 오직 硬貨만을 받았으며 선물이 될만한 商品도 별로 없었다.

호텔에 있는 商店 역시 商品을 골고루 갖춘 것은 별로 없었으나 傳統的인 韓服을 입은 女店員들은 매우 친절하고 協調的이었다. 博物館, 映画館, 展覽會場에는 外國語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案内員과 解説者들이 많이 있었다.

結 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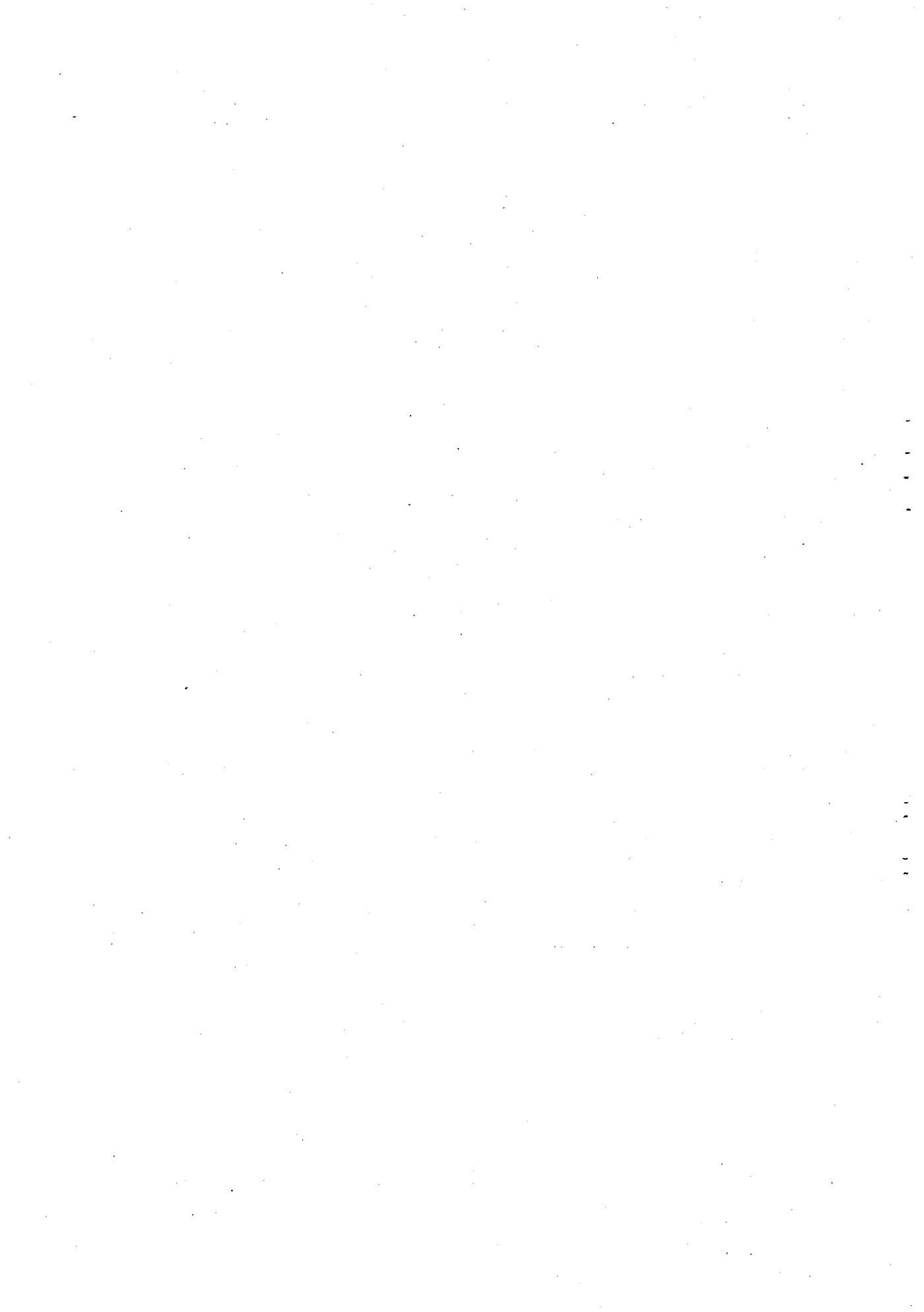
向後 北韓의 國內·外政策, 특히 第2次 7個年經濟計劃이 어떻게 展開될지는 確實하지가 않다. 그 理由들중의 하나는 北韓이 外債償還의 遲延, 資源과 勞動力의 不足, 複雜한 官僚制, 상당히 많은 農業投資에 비해 그 收益率의 減少, 重工業의 費用增大 및 科學的 經營訓練計劃 遲延 등과 같은 많은 심각한 問題들로 困難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政治權力의 承繼가 어떠한 方向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對外政

策上 어디에다 우선권을 둘 것이냐에 따라北韓의 經濟成果가 左右될 것이다.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순박하지만 고생스럽게 일하고 있는 南·北韓의 大衆들이 戰後 經濟復旧와 發展을 위하여 상당한 負擔과 犧牲을 감내하고 있지만 不幸스럽게도 아직까지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수 많은 惠澤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目的을 위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創造的인 潛在力을 充分히 活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狀況이 發生하게 된 여러 가지 理由들은 양쪽의 体制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지만 가장 重要한 理由는 韓半島가 分断되어 양쪽이 극단적인 적대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적대의식으로 인하여 相互 有益한 南·北韓間 協力 可能性이 희박해지고 南·北韓 양쪽에다 經濟的 負擔과 그 외의 負擔을 과중하게 부과하고 있는 軍備競爭이 繼續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때 南·北韓에서 살고 있는 同一民族의 經濟的 福祉는 평양과 서울이 政治的 타협, 經濟協力 및 軍備制限에 관한 協定을 맺는 方法을 發見할 수 있을때 改善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의 社會主義 教育

(양 성 철)

- 現在 켄터키大學 政治學 教授
- 主要著書 :

Korea and Two Regimes (Schenkman, 1981)



序 言

北韓을 訪問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1981年 여름 北韓을 訪問할때 나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北韓旅行은 나에게 걱정과 추측이 뒤섞이는 감정을 불러 일으켰고 不安과 호기심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값비싸면서도 가치있는 經驗이었다. 나는 남한에 있으면서 韓半島의 分斷과 同族相殘의 悲劇을 보아 왔고, 北韓 共產主義는 惡魔보다 더 지독하다고 배워 왔기 때문에 北韓에 갔을때는 이상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北韓이 “간교한 敵”으로 여기는 美國에 살기 때문에 北韓 訪問에 대해서 이중적인 아러니를 느꼈다.

나의 複雜한 感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 자신이 韓國태생 韓國人이어서 北韓을 보고 싶었고 또한 政治學徒의 觀點에서 北韓의 사람, 政治, 政策등을 공부하고 싶었던 것이다. 前者는 感情을, 後者는 理性을 각각 끌어 당겼다. 나는 北韓社會에 대하여 参与者가 되는 동시에 分析者가 되어야 했다.

北韓에 대한 나의 印象, 觀察, 理解, 分析들이 뒤섞였다. 皮상적인 觀察과 本質的인 分析, 感情과 理性, 希望的인 생각과 냉엄한 現實등이 나의 머리속에 일시에 集中되었다.

위에서 指摘한 內容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北韓에서 본 社會主義 教育制度에 대해 說明할 수 있는 데 까지 말하고자 한다.

우선 教育制度의 發達과 變化過程을 初期段階부터 現在까지 簡略하게 考察하고, 두번째로 北韓의 教育制度 및 政治社會化 過程에 대하여 살펴 보며, 마지막으로 北韓 社會主義 教育의 基本理念, 目標, 內容, 方法을

檢討해 보겠다. 이때 政治的 統制에 있어서 教育의 역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려고 한다.

덧붙여서 北韓教育이 一般的인 社會主義 教育으로부터 이탈된 점과 非 社會主義 國家의 教育哲學과 實際로부터 이탈된 점등을 살펴 보려고 한다.

北韓의 社會主義 教育을 論하기 前에 情報의 부족과 正確度에서 비롯되는 問題點을 밝혀 두고자 한다. (北韓의 教育과 政治社會化에 關한 資料는 적고 불완전하다. 한 예로 北韓의 “朝鮮中央年鑑”에는 모든 教育問題는 고사하고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조차도 매우 빈약하고 난삽한 資料가 수록 되어 있다. 한 案内員은 “수치와 통계 높음은 자본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北韓人들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案内員을 통해서 教育에 관한 資料를 여러번 要求했으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이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순된다.

왜냐하면 北韓과 같은 社會主義 國家는 中央 集中化된 經濟, 政治, 社會計劃을 統制하기 위해 資本主義 國家보다도 난삽한 資料에 더 依存해야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不調和에 當황하였다.

물론, 그것이 社會主義 社會의 閉鎖性의 表示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만이다. 아마도 外國人 訪問客을 包含한 소수 特殊層만이 資料와 數值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어떤 경우를 莫論하고 利用할 수 있는 적은 情報도 그 正確度와 信憑性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北韓에 있어서 教育에 관한 公式的인 出版物은 우선적으로 金日成의 演說, 語錄, 인터뷰,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것들은 소수 핵심인물과 사건을 包含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공된 資料중 어느정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은 問題點은 黨이 전지전능하고, 선전과 선동이 黨의 공식수단이 되며, 教育이 黨의 統制裝置로 利用되는 그러한 北韓 政治體制를 다루기 때문에 發生하는 것이다.

教育制度의 發達과 變遷

過去와 現在 ;

北韓의 主張에 의하면 1945年 解放 당시 約 230萬名이 文盲이었고 學齡兒童의 35%만이 就學하였다고 한다. 現在는 文盲者가 없고 모든 兒童이 就學하고 있다고 한다. 그 당시만해도 보편적인 義務教育이란 것이 없었다. 지금은 11년제 義務教育이 施行되고 있다.

1945년에는 大學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늘날은 大學이 約 170個校(單科大學, 綜合大學 網羅), 高等中學校 600個校, 그리고 다수의 專門教育機關등이 있다. 1980年 北韓의 公式發表에 의하면 約 400萬名의 어린이가 60,000개 이상되는 託兒所나 幼稚園에 들어갔다. 동시에 全體人口의 절반에 해당하는 約 860萬名의 靑은이가 學校에 다니고 있다.

위 事實은 두가지 觀點에서 指摘할 必要가 있다.

첫째, 위의 모든 數値에는 制限이 必要하다. 이 외에도 教育의 質的인 面이 檢討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公式으로 發表된 數値의 타당성에 대하여 別途의 方法으로 檢證 해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수치들은 基本的으로 옳다고 해도 教育의 質은 學校施設,

教師陣 등의 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둘째로, 이러한 수치들은 그것이 發表되었던 時期와 대조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解放된지 30여년, 그리고 韓國戰爭이 발발한지 30여년이 지났다.

教育의 發達이 勞動黨의 教育政策과 金日成의 현명한 통치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어떠한 社會에서도 그 정도의 時間이면 보통의 努力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義務教育制度의 變遷 ;

義務教育에 관한 최초의 發表는 1946年 3月 23日에 採択된 20個 綱領의 第 16項속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義務教育制度和 各級學校의 增設計劃등이 言及되어 있다.

그러나 韓國戰爭으로 義務教育의 實施가 遲延되었다.

初級學校의 義務教育은 1956年 9月 1日 實施되었다. 그 직후인 1956年 11月 1日에 中學校 義務教育制가 決定되었다. 9年制 義務教育에 관한 法令은 1964年 4月 1日 公布되었으나 1967年 4月 1日에야 部分的으로 實施되었다. 10年制 義務教育에 대한 決定은 1972年 7月 1日에 이뤄졌으며 1972年 9月 1日부터 部分的으로 施行되었다. 11年制 義務教育에 관한 法令은 1975年 9月 1日에 公布되었다. 義務教育에 대한 決定, 發表등이 한결같이 실제 施行보다 앞서고 있는 짐은 주목할 만 하다.

여기서 “施行”이라는 單語에 대해 주의할 必要가 있다. 北韓의 官吏들은 “部分的 施行”과 “全面的 施行”을 구별한다. 그런데 “部

分的 施行”의 限界와 정도의 문제는 애매한 것 같다.

義務教育制度의 變遷에 덧붙여 學年制에도 많은 變化가 있었다.

1945 - 1953 : 5 - 3 - 3 - 4(2)

1954 - 1960 : 4 - 3 - 3 - 4

1961 - 1966 : 4 - 3 - 2 - 4

1967 - 1972 : 4 - 5 - 4(5)

1973 - 現 재 : 4 - 6(4-2) - 4(5)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1年間의 예비학교 기간을 포함한 11年制 義務教育制度는 1975年에 施行되었다.

表面的 觀察

2週日間 北韓에 滯留하면서 託兒所, 幼稚園, 人民學校, 高等中學校, 平壤少年宮殿, 平壤어린이公園, 金日成綜合大學校등을 가 보았다. 託兒所制度의 特徵중 한가지는 하루 또는 週間으로 어린이를 맡아준다는 점이다. 청산리 協同農場의 경우 일터에 나가는 애엄마는 아침에 애를 맡기고 하루 勞動이 끝난 다음 애를 찾아가는데 이것은 매일같이 되풀이 된다. 平壤 週託兒所에서는 父母가 일하러 가는 동안 1주일 또는 그이상 아이들을 맡아 준다.

나는 이러한 다양한 教育期間, 施設등을 訪問하고 나서 착잡한 印象을 받았다. 내가 살펴 본 大部分의 場所들은 깨끗하고 現代의인 施設들이었다. 장난감은 넉넉 했으며 교사들은 따듯하고 열성적이었다. 高等中學校에는 많은 實驗 施設物들이 있었다. 高等中學校의 어린이

樂隊와 平壤少年宮殿은 매우 印象的이었다.

1인1기 教育原則 아래 모든 學生들은 적어도 1기를 習得하도록 되어 있다. 大部分의 어린이들은 영양상태가 좋아 보였다. 가는곳마다 귀엽고, 상냥하고, 예절바른 어린이들이 나를 반겨 주었다. 그들의 수줍음에 가까운 순진한 얼굴과 태도에 적지않게 놀랐다.

그리고 나는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두려움마저 느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청산리 託兒所에서 화색이 좋고 유쾌해 보이는 어린이들을 만났다. 어린이들은 現代的 教育施設과 娛樂施設로 祝福 받은 것 같았다. 나는 이 託兒所가 各地에 있는 모든 託兒所中의 하나인지 外國訪問客들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용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때면 平壤에 있는 6·8 高等中學校는 풍부한 實驗 및 教育施設을 갖추고 있었다. 남학생들은 자동차, 트랙터, 현미경등을 가지고 實驗 實習을, 여학생들은 자수, 옷만들기 등을 하고 있었다. 나는 또한번 이 학교가 大部分의 學校中 하나인지 선전용인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少年宮殿에서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노는 모습을 보았다. 벌집같이 생긴 이 宮殿안에서 수 많은 어린이들이 자기 다른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음악, 운동, 실험, 독서, 보더-빌딩 등. 한방에서는 이산가족의 슬픔을 그린 演劇을 보았는데 北韓에 있는 孫女가 南韓에 있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하는 內容이었다. 그런데 孫女는 할머니를 본적도 없고 아직 생존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줄거리다.

이것은 北韓社會에 가득차 있는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의 한 예에 불과하다.

金日成綜合大學校는 外形적으로 웅장한 規模였으나 學生이 적은 사실에 놀랐다. 學生들이 모두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 동일한 規模의 美國이나 韓國의 大學 캠퍼스와는 달리 온통 텅텅비어 있었다.

이 大學校의 圖書館에는 최신 外國(西歐, 東歐)의 新聞, 雜誌, 刊行物은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오직 各國語로 翻譯된 金日成 저작물만이 전시되어 있었다.

講義室이나 圖書館에서 만나 본 學生들은 대부분 英語나 佛語로 번역된 金日成 저작물을 읽고 있었다. 번역물들이 매우 조잡해서 이 學校에는 外國語에 능통한 학생이 없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이 學校를 둘러보면서 강한 印象을 받은 것은 어디를 가나 “자애롭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라는 구호가 내걸려 있는 점이었다. 託児所에서 大學校에 이르기까지 學校 建物과 教室에는 金日成의 銅像과 사진이 있었다. 김일성의 초상화와 일대기가 모든 교실에 있었으며 김일성의 어록이 벽과 천장에 걸려 있었다.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앙하도록 선전하는 教育도 철저하였다.

내가 계속하여 강한 印象을 받은 점은 어린이들의 유쾌한 얼굴이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모습은 거리, 공장, 농장 등에서 볼 수 있는 침울하고 긴장된 성인들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成人들은 몹시 지치고 찌들려 보였으며 몇몇은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기도 했다. 이 어린이들에게는 뭔가 잘 못된 점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아마도 이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스러움, 자발성, 개성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았다.

또한 “존 듀이”가 지적한 自由와 獨立思想을 開發시켜주는 基本要素인 “격리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았다.

北韓의 어린이들은 놀이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자신의 관심을 開發시키고, 자아를 찾으며, 즐기고, 선택하고, 창조하고 成長할 수 있는 自由를 상실한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이 어린이들의 활달함과 쾌활한 인사가 꾸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計劃되어진 것인지 자문해 보았다. 勿論 어느 社會나 어느 文化圈에도 완벽한 어린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스키너”의 말을 빌자면 모든 어린이는 의도된 計劃이 있건 없건 하나의 社會的 存在로 길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北韓 어린이들의 幸福해 보이는 얼굴은 위에 지적한 “길들여지기”의 한 대표적인 반응일 것이다. 北韓의 어린이에게는 個人精神의 결여 즉 진공상태가 엿 보였다.

내가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접촉해 본 北韓의 젊은이들에게서도 이러한 진공상태가 있음을 확신하였다.

세가지 예를 들어보면 내 이야기의 초점이 보여질 것이다.

北韓에 도착하는 外國訪問客은 통상 관계기관의 官吏와 花童의 영접을 받는다. 북경으로부터 北韓에 당도하자 몇몇 官吏와 꽃을 든 少女가 역사에 있는 貴賓室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내가 그 官吏들과 환담하는 동안 꽃을 든 少女는 내옆에 서 있었다. 다른 일행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그 少女에게 나이와 여기에 뿔혀 온 理由를 귀에다 대고 물어 보았다.

속삭이듯 대답하기를 나이는 9세이고 學校에서 보내서 왔다고 했다.

그 少女는 짜증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아이가 여기에 와야만 한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 결정할 自由가 있었을까. 집에 있는 아홉살 짜리 딸애가 생각났다. 나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少女가

내 딸과 비슷한 아이들이라는 점이 아니라 完全히 對照的 이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少女가 갑작스런 질문을 받을때면 매우 곤혹스런 표정을 보였다는 점이다.

어느날 아침 보통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보통 강변을 거닐어 보았다.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취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 한명을 만났다. 내가 접근하자 그 여고생은 경계하고 당황하는 눈치였다.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했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는 듯 주위를 두리번 거렸다. 내가 美國에서 왔다고 말하자 깜짝놀라 비명을 지르며 발을 뚱뚱거렸다. 그러나 적국인 美國에서 왔으나 나도 韓國人이라고 말하자 다소 진정되는 것 같았다. 그 女學生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썼지만 공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걱정은 나하고 같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당국의 누군가에 發見되면 어쩌나 하는데서 오는것 같았다. 나는 그 여학생으로부터 學校施設이 부족하고 오전 오후 이부제 수업을 한다는 事實을 알았다(그후에 案内員에게 이 事實을 물어보자 그는 깜짝놀라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화제를 돌려 버렸다.) 또한 學生들간에는 러시아어보다도 영어가 더 인기 있을 뿐 아니라 약 70%이상의 學生이 러시아어 대신 영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와 헤어지면서 내일 여기서 이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러나 나 자신과 그녀의 안전을 위해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했다.

北韓社會와 같은 不確實하고 예측할 수 없는 狀況에서 나 자신도 누구를 만난다는 사실이 몹시 조심스러웠다. 지금은 그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으나 처음 대화를 시작할때 겁에 질린듯 했던 그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기만 하다.

어느날 점심식사후 모처럼 自由時間을 얻었다.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가까운 보통강변 다리를 건너 갔을때 벤취에 앉아 있는 한 少女를 発見했다. 나는 그 少女가 女高生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전기공학을 공부하는 女大生이었다. 그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저작물을 열심히 암기하고 있었다.

한 전기 공학도가 공원에 앉아 오늘날 北韓社會의 金日成崇拜 물결속에서 金日成 저작물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수줍은 21세 처녀였다. 내가 求婚者를 찾으라고 농담을 걸자 깜짝놀라 일어섰다. 그녀와 말을 주고 받는 동안 저만치서 한 남자가 모여드는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을 게다.

잠시후 호텔에 돌아 오면서 뒤를 보니 아까 그 남자가 그 女大生과 말을 하고 있었다. 나와 의 對話內容에 대해 質問하였을 것이다.

아무튼 學生들은 모두가 순수하고 幸福하며, 예절바르게 보였다. 또한 “자아”가 없어 보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정말 행복할까? 단지 그렇게 行動하는 것 뿐일까? 2週日間の 旅行은 이와 같은 의문을 갖기에 充分하였으나 確實한 답을 얻기에는 너무나 짧았다.

標語와 教育

“우리는 이세상에서 가장 幸福한 어린이다,” “우리는 온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없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원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한다.” 이것은 北韓의 어린이들이 매일 같이 되풀이 하는 標語다. 마치 美國의 어린이들이 祖國에 대한 맹세를 낭송하는 것처럼. 同

一한 內容의 포스터들이 學校나 어린이公園에 눈에 띄게 내걸려 있다.

1978年 10月 1日 全國教育者大會에서 金日成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優秀한 教育制度를 開發하였다”고 強調하였다.

이와 같은 과장은 金日成의 獨特한 近視眼的인 표명으로 나타나며 北韓社會의 보편적인 閉鎖된 高립생활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한편, 金日成의 이러한 자랑은 다른 共產主義國家에서 볼 수 있는 國內 消費 生活와 關係되는 宣傳이라든지, 最高 指導者가 잘 나서지 않는다든지 하는 점과는 判이한 言動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社會에서 볼 수 있는 많은 廣告物 - 解放戰爭, 分斷, 소련占領, 同族 相殘의 戰爭, 戰後復旧, 南韓과의 敵對關係등 - 을 놓고 판단해 보면 오늘의 北韓 教育制度에 대해 심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社會主義 教育의 變化

지난 30여년동안 北韓 社會主義 教育에는 다른 分野의 發展과 마찬가지로 적은 폭이지만 주요한 變化가 있었다. 北韓 社會主義 教育에 대한 산발적인 言及이나 報告를 除外한다면 1977年 9月 5日 朝鮮勞動黨 第5期 第14次 全員會議에서 비로소 “社會主義 教育에 關한 題제”가 發表되었다.

1977년에 採択된 社會主義 教育에 關한 題제는 그때까지 發表된 다양한 教育 政策의 최고봉을 記錄하는 것이었다. 北韓 政權 樹立初期의 演說, 論文, 報告, 計劃부터 始作해서 現在의 社會主義 教育 題제에 이르기까지를 大略 살펴보면 興味있는 양상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로 初期에는 愛國心을 高취하는데 우선적인 比重을 두었다.

1947年 金日成은 “祖國의 獨立,” “祖國의 繁榮,” “祖國을 위한 學習” 등의 주제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보편적인 社會主義의 구호도 많았다. -- “大衆의 모범되기,” “個人利益 버리기,” “人民의 利益을 위한 투쟁” 등. 같은 해 第1回 金日成大學 創立記念日 式辭에서 金日成은 大學生들에게 다섯가지 사명을 역설하였다.

- (1) 日本 帝國主義 잔재를 拂拭할 것.
- (2) 祖國建設을 위한 愛國心과 民主思想을 高擡할 것.
- (3) 政治意識을 涵養하고 國內外 情勢를 研究하며 人民政府의 政策을 지지할 것.
- (4) 科學과 技術을 익히는 한편 마르크스 레닌주의 理念으로 武装할 것.
- (5) 높은 國家的 자부심과 革命的 열성으로 人民을 指導하는 國家의 기간요원이 될 것.

1950年代 後半에서 1960年代 初까지의 期間동안에는 教育의 비중이 國家主義에서 共產主義 테마로 變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國家主義나 愛國心을 社會主義 教育에서 배제시켰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主體 教育과 共產主義의 통합을 뜻하며 이 결과 社會主義·國家主義 테마는 좀더 체계가 잡히게 되었다. 결국 北韓의 궁극적인 教育目標은 단지 새로운 社會主義者를 양성하는데 있지 않고 주체형 社會主義者를 길러내는데 있는 것이다.

예컨대 金日成은 1961年 4月 25日 全國 教育者大會에서 “붉은 教育者”의 任務는 새로운 社會의 새로운 人間을 教育시키는데 있다고 強調하였다. 즉 共產主義型 人間으로 주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金日成은 共產主義 教育을 特徵지우는 네가지 主要 目標를 밝
혔다.

- (1) 個人英雄主義 대신 集團主義 教育
- (2) 愛國主義 教育
- (3) 精神 및 肉體勞動 찬양 教育
- (4) 社會主義 體制의 우월성 教育

또한 金日成은 黨이 主體思想을 教育에 採択함으로써 韓半島 革命 完
成과 社會主義 建設에 必要한 人테리를 양성시킬 計劃임을 보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主體教育이란 勞動黨이 教育制度를 더욱 통제 할
것이라는 신호였다. 金日成이 主張했듯이 主體教育이란 모든 教育이
黨政策의 要求에 대한 確信에서 수행되는 것을 중요시 한다.

勞動黨은 教科書, 教材, 學課 時間 등의 內容을 決定하며 科學的인 調查
研究를 包含한 모든 教育活動까지도 指示한다.

大學에서는 모든 學生이 黨委員會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學生들이 강한 党性, 넓은 知識, 共產主義的 기질 등을
함양하고 黨과 國家에 奉仕하는 充實한 일꾼이 되도록 하는 共產主義
教育이 強化되는 것이다.

勞動黨은 初級學校에서 大學과 研究機關에 이르는 모든 學校의 敎員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다. 요컨대 北韓의 社會主義 教育이란 經濟 및
技術開發에 必要한 基本 技術 教育을 包含한 강한 교리, 주입식 教育
인 것이다. 교리 주입은 興味있는 시대적 조망도 包含하고 있다.

교과서는 과거의 항일 계렬라 活動을 강조한다. 메로는 맨 주먹의 金
日成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또한 미래 北韓 共產社會의 유토피아를 強調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보

편적인 삶이나 特殊한 教育은 과거 성과와 未來의 열망을 찬양하는 과정에서 根本적으로 도외시 되고 있다.

住民들은 오늘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과거 抗日 게릴라 투사들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理想的인 共產社會의 達成을 위해 必要한 것이라고 믿도록 繼續적으로 길들여지고 있다.

이리하여 北韓의 社會主義 教育은 과거 抗日 게릴라 투쟁에 대한 學習을 包含한 未來의 共產社會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南朝鮮에서의 社會主義 建設,” “중국적인 朝鮮革命의 完成,” “未來에 대한 사랑,” “共產化되는 未來”와 같은 구호들은 1차적인 테마의 例이다. 2차적인 테마는 다음과 같은 구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이다.” “게릴라전식 투쟁은 진정한 共產革命과 革命隊列의 確固한 단결을 예견하였다.”

勞働者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와 같이 과거와 現在를 混合시킨 意識의 주입으로 정당화 된다.

에릭호퍼의 지적에 의하면 “北韓社會의 교리 주입식 教育은 未來의 展望과 潛在力에 대한 무모한 意識”이다.

1961年 11月 金日成은 理想的인 共產社會를 다음과 같이 그렸다. “우리의 理想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입고, 오래 살 수 있는 社會, 거지와 失業者가 없으며 모두가 진보적, 헌신적으로 일하는 社會, 모두가 한 가족처럼 조화를 이루는 社會,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配分 받는 社會를 建設하는 것이다.”

北韓의 教育은 이와 같은 理想社會 建設에 住民을 대처시키기 위하여 革命化, 無產階級化, 共產化의 세가지 目標를 수행해야만 한다.

具體的으로 말해서 이러한 目標을 위해 敎사와 학생 모두가 肉體勞動이건 精神勞動이건 기꺼히 수행해야 한다.

學生들은 언제 어디서나 必要할때 勞動하도록 되어 있고, 敎師는 農村에 보내져 大衆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도록 한다. 敎師는 보통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그룹이 學校에 勤務하는 동안 다른 한 그룹은 리 단위의 農村에 들어가 당사업 일꾼으로서 2年間 일한다. 一例로서 1969年 이후 모든 大學生과 敎授는 1년에 最小한 3個月을 工場이나 農村에 가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다.

끝으로, 北韓敎育은 全體主義的이다. 黨은 個個人的 敎育과 敎리 주입을 지시한다. 모든 住民은 일생동안 政治學習에 參與하도록 要求된다. 北韓의 敎育은 學校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家庭, 學校, 社會 全體에 전파되어 있다.

이리하여 金日成은 北韓의 모든 黨員, 모든 人民, 모든 兵士를 敎育시키는데 투쟁하고 있다고 떠들어 대는 것이다. 나아가서 金日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배운다”고 말한다. 實例로서 黨員은 매주 토요일마다 學習한다. 그들은 1년에 1個月에서 6個月을 學校에서 學習하도록 要求되기도 한다.

地方黨員과 主要 郡 黨要員들은 高級黨學校나 國家 經濟 研究院에 가서 學習한다.

즉 郡 黨幹部는 地方共產大學에, 里 黨幹部는 郡 黨學校에서 각각 學習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工場 勞動者는 初級에서 大學水準 또는 이에 該當하는 工場學習所에서 배운다.

一般勞動者—農場, 漁業, 林業 等等—도 각각 해당과정이나 夜間學習所에 나가야 한다.

北韓의 軍隊化는 教育의 全體主義化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 北韓社會에서 軍隊化는 軍事教育을 教育過程의 必要한 部分으로 正해 擧고 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教育內容과 學科에 관한 章에서 論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高學年이 될수록 軍事訓練이 많아진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 가겠다.

軍事訓練은 유치원 段階에서부터 시작되어 上급학교에 갈수록 더욱 심하여 진다. 1969年 이래 人民軍隊에서 卽任된 現役 敎官들이 各級學校의 軍事訓練을 監督하고 있다. 또한 中學校 卒業生들은 大學가기 전에 3 - 5年間 軍隊나 工場에 들어가야 한다.

北韓 教育制度에 대해 이와 같은 初步的 觀察을 넘어서 各분야 敎育原則, 內容, 學科, 方法, 制度 任務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주로 1976年의 어린이 保護 및 養育法, 1977年의 社會主義 敎育에 관한 敍則, 1972年의 北韓憲法, 勞動黨 規約등을 基礎資料로 活用할 것이다.

細部的인 教育 內容

北韓의 어린이들은 共和國의 將來와 共產主義와 革命의 後備隊로 간주된다. 社會主義 敎育의 궁극적인 目標은 모두 한꺼번에 革命家, 프롤레타리아트, 共產主義者로 造就하는 것이다. 노동당 規約 제 5조에는 共產主義者의 10가지 資質을 나열하고 있다.

즉 社會主義와 共產主義 建設에 있어서의 활발한 투쟁정신, 분파주의와 極端주의에 반대하고 黨思想으로 武装되고 黨路線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 革命事業의 성공적인 완수, 黨 思想과 黨 活動의 強化, 共產主

義 도덕의 획득, 勞動生産量의 增大, 黨 規律과 黨 規約에 對한 복종 자기비판과 상호비판 및 감시(반당분자에 대하여) 등이다. 1972年의 憲法은 1948年의 憲法이 教育에 關해 단 1個條項(18條)만 갖고 있었는데 비해, 社會主義教育에 關한 여러개의 條項을 갖고 있다.

1972年의 憲法 第3章(文化)과 第4章(公民의 基本權利 義務)에 包含되어 있는 것들로 教育의 目標와 原則을 全人民을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建設者로 공부하고 訓練시키는데(35條, 36條)와 전분야에 새로운 社會주의 生活方式를 指導하는 것(38條), 자라는 세대를 새로운 共產主義 特性의 人間으로 만드는 것과 확고부동한 革命家로 만드는 것(39條), 주체教育(44條, 45條)과 教育을 받을 수 있는 公民의 權利(59條) 등에 두었다.

1977年의 提제는 社會主義 教育의 네가지 原則을 包含시켰다. 教育의 黨 統制와 指導, 主體教育, 革命的인 實習, 教育費의 無償과 支援 등이다.

北韓 社會主義 教育의 내용과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지금의 소련이나 中共의 경우를 훨씬 능가하여 政治思想面을 극단적으로 強調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學生들은 政治思想的 訓練을 教養받을 수 있도록 즉 革命的인 세계관, 共產主義者로서의 덕성과 理論的 資質, 主體思想, 革命偉業과 經驗學習, 抗日 革命戰士의 모범등이 要求된다. 그들은 階級教養과 集團主義, 社會主義 愛國心,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 革命 樂觀論 등이 테마로서 깊고 부단하게 주입되어 진다. 그들은 共產主義에 대한 믿음으로 진정한 信賴者나 진정한 共產主義者가 되는데 必要한 訓練과 教育을 받게 된다.

특히 學生들은 共產主義學習, 勞動學習, 義務的 技術學習, 1人1技學習, 軍事訓練 등의 슬로간 아래 學習해야 한다. 全體學生들은 찬란한 抗日 빨찌산 투쟁역사를 배워야 하는데 여기에는 맑스 레닌주의와 勞動黨 歷史, 金日成의 과장된 伝記등이 必須的으로 들어 있다. 4學年부터 學生들은 各 學校에 配當된 人民軍 軍官에 의해 教練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붉은청년 근위대와 소년단에 들어가도록 고무된다. 그들은 無報酬로 방학동안이나 주말에 여러곳에서 社會主義 義務勞動을 해야 한다. 1959年 3月 2日의 내각결정 18號로서 규정한 義務勞動은 中等學校나 大學 專門高等學生으로서는 1년에 7週(50日), 10週(70日)나 된다.

1977年の 테제에서는 社會主義 教育方法의 5個項을 밝혀 주었다.

즉 자습식 교수법, 理論教育和 實習의 配合, 組織生活과 社會政治活動의 增加 및 強化,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의 연계, 終身教育 등이다. 자습식 교수법은 實例의 例示를 통하거나 視聽黨教育 討論등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理論教育和 實習의 配合이란 즉 무보수 學生勞動처럼 실습장 訓練과 經驗으로 授業과 講義를 連結하는 것이다.

社會 政治的 活動은 全學生들이 소년단,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의 參加 등이다.

中等教育을 마친 學生들은 大學에 들어가기 전에 人民軍이나 농장 기업소에서 5-6年間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學校教育은, 8-14세는 소년단에 16-27세는 社勞靑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條件으로 社會教育和 연계되어 있다. 셋 또는 그이상의 學生

들도 學校에 모임을 組織한다. 學生들은 學生證, 黨員證, 少年團 또는 社勞靑員證, 軍隊 身分證(16세나 그이상은) 등 많은 身分證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규모과목 이외의 會合과 活動으로 學生들의 時間을 占 채워버리고 자유스런 時間이라곤 없다.

學生이나 成人들에 時間을 거의 주지않는 것은(全體的 社會的, 終身教育이란 이름으로) 통치 엘리트에 의한 교묘한 政治 통제방법으로 간주 될 수 있다.

前述한 요약에서 明白한 것처럼 北韓 社會主義 教育은 몇가지 특이한 要素를 갖고 있는바 他 社會主義國家의 教育의 理論과 實際와도 상위하고 民主的 教育原理와 實際와는 완전히 틀린다.

그러한 특질은 주체를 強調하는데 있다.

北韓教育의 궁극적인 目標은 주체형의 새 社會主義 人間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되고 南北韓의 적대관계가 계속되며 南韓에 美軍이 存在하는 특별한 한반도 상황은 北韓社會主義 教育이 주체사상을 더욱 強調하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또 다른 특이한 양상은 教育過程에서 金日成 찬양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理論上 學生들은 불후의 建적을 배우고 抗日 빨찌산 투쟁의 革命傳統을 경쟁학습하도록 要求되고 있으나, 事實上 다만 위대한 수령 金日成의 지난 業績을 尊敬하도록 가르쳐지고 있다.

다른 抗日 빨찌산의 공로는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

결국 그리고 매우 重要하게 金日成은 소위 共產主義의 理念的 토대를 經濟的 下部構造의 生産을 理論化 하는 대신에 유물론적 토대와

동등하게 부여하였다.

金日成에 의하면 맑스와 엥겔스는 두가지 決定的인 점에서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理論的인 訓練과 教育의 重要性을 認識치 않았고 資本家の 저항이 영속됨을 理解하지 못하였다.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썼다.

共產主義 革命 建設의 理論을 主張함에 있어서, 맑스와 레닌은 經濟的인 面에만 重点을 두었지만 그것의 理論的인 面에는 소홀히 하였다. 그들은 共產主義 建設에 있어서의 個人的인 經驗이 없이 그들의 理論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로 가는 期間이 짧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낡은 思想의 잔재와 바깥세계로부터 浸透되어 들어 오는 부르조아 思想이 共產主義 建設을 크게 방해한다는 것과 많은 어려움이 共產主義 建設 過程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을 豫測치 못하였다.

金日成에 의하면 레닌도 역시 틀렸다는 것이다. 즉 레닌은 맑스와 엥겔스마냥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로 가는 轉移 기간이 짧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너무 길게 보았다. 그러나 레닌은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로 가는 轉移 기간에서 思想革命을 통하여 수행할 프롤레타리아트 獨裁 階級の 必要性을 상술하지 않았다.

金日成은 한걸음 더 나아가 思想教育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效果的인 思想教育이란 成功的인 經濟建設에 決定的인 要素이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 金日成은 그 自身은 맑스보다는 헤겔에 가능토록 하였다.

맑스가 그 꼭대기에 헤겔 理論을 세웠듯이 金日成은 그 꼭대기 위에 맑시즘을 세워 그 추이를 거꾸로 하였다.

金日成은 맑스와는 달리 헤겔처럼 의식(관념)을 주장한다. 物質的인 요소가 아니라 根本的인 것으로 物質的 基礎의 反映이 아니라고 본다. 意識하든지 無意識으로든지 金日成은 그의 統治가 根本的으로 기반 잡혀지게 되었던 변증법적 유물론을 침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맑스에 대한 金日成의 비평이 전부 타당한게 아니다. 필립 케인이 最近에 지적하였듯이 역시 맑스는 觀念은 무시하거나 物質的인 상태로 떨어뜨릴 수 없다고 明白히 한바 있다.

物質的인 狀態가 觀念을 決定하는데 있어 支配的이다 라는 것은 정말 타당하다. 케인은 더 論述하기를 觀念은 物質的 狀態에 따라 決定된다. 그러나 觀念自體는 이러한 物質的 狀態로 떨어지지 않는다. 觀念은 物質的인 狀態를 決定하는데 있어 支配的인 것이다.

北韓 社會主義 教育의 특이한 점은 그것이 民主的 教育原則과 目標와 비교할 때 더욱 明白히 나타난다.

확실히 民主主義 教育의 原則과 目標의 特質에 대하여서는 일치점이나 합의점은 없는 것 같다. 달리 表現하자면 만약 確實性, 目的性, 教育目標의 배타성이 社會主義 教育을 特徵지운다면, 불확실성, 목적성의 결여, 개방성 등은 民主主義 教育을 特徵지운다.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教育의 目標가 社會主義 人間의 創造임이 자명하고 불변이다. 그 반대로 民主主義 教育의 目標는 明確하지도 않고 明確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民主的 人間의 創造를 教育目標로 삼는데 일치하겠지만 그러한 人間을 어떻게 만들며 어떠한 資質이 함양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는 일치하지 않다. 본래 民主主義 教育의 目標란 不明確하고 가변적인 것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思想과 制度, 理念의 차이에 關係 없이 모든 教育이라 함은 주어진 社會에의 연장자들의 생각에 따라

決定되어 진다. 세대의 特性和 社會의 性格, 統治者의 야망 등이 直, 間接的으로 教育原則과 教育政策, 計劃등에 影響을 미친다. 그렇다면 사실상 社會主義 教育和 民主主義 教育의 차이는 種類보다는 정도의 差異에 있다 할 것이다.

그 差異는 더욱 明白하다. 존 듀이의 공로는 이런 면에서 느낄 수가 있다. 그는 非民主的 社會는 自由로운 교섭과 經驗의 傳達에 內外的으로 장벽을 쌓는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民主主義 教育은 다양하게 교차되어 있는 生活樣式의 相互作用을 통해 制度의 신축성 있는 再調整을 보장하고 같은 기간에 進 構成員의 參與를 準備할 수 있는 社會라야만 可能한 것이다. 다양성과 비획일성, 경쟁과 비투쟁, 조화와 非 일치성 등이 民主主義的 教育을 特徵지워 준다. 民主主義的 教育은 社會關係와 統制에 있어서의 個別的인 各個人의 利益에도 기여한다. 그래서 民主主義的 教育의 目標은 個人的인 完成 充足 - 自己實現, 自己決定, 自己統合(調整) 등등으로 充足된다.

民主主義的 教育의 目標은 人間性-存在, 신성함, 주어진 社會와 世界에서의 位置와 價值등을 배우게 하는데 있다. 자크 마리탱이 사람은 단순한 物質的 存在가 아니라고 主張했듯이 人間에게는 보다 풍요롭고 보다 고상한 存在가 內在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知識과 사랑을 통해 精神的인 超 實存을 얻는다.(느낀다) 사람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고 全體이다.

知識을 통해 대 우주를 포괄할 수 있는 소우주이며 그 自身에 있어서 하나의 우주이다. 이와 비슷하게 알프레드 노드 화이트헤드는 民主主義 教育은 知識을 活用하는 예술의 習得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했고 그 모든 表現에 있어서 삶이란 教育을 위한 단 하나의 從屬物

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要約하자면 民主主義 教育의 軸점이 人間關係, 自然과 超自然 등에 대해 배우는데 놓여 있는데 대하여 北韓을 包含한 社會主義 教育에 있어서는 미리 計劃된 복안에 따라 共產主義者로서 人間을 訓練시키고 만 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후자는 最終의 教育成果에 대한 淸사진이 벌써 준비되어 있고 전자는 그 淸사진이 學習하고 研究하고 修正하는데에 따라 달라진다.

結 語

北韓에는 勞動黨이 教育原理와 目標, 計劃을 규정하고 教育科目과 教授法을 決定하며 幼稚園부터 大學과 그 以上까지 全體 教育機關을 指導한다. 勞動黨에 의한 教育의 政治化, 軍事化, 總力化는 出處 계속되고 철저히 될 것이다. 思想革命은(具體的인) 下部構造의 建設에 必須的이다. 教育은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 基礎로써 思想과 物質의 요새를 세우는데 주요한 수단이 된다.

大量生産이 標準化를 要求하듯이 大量의 社會主義的 教育은 복종과 一致性, 勞動黨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行動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렇게하여 北韓 어린이는 教育의 犧牲物은 아닐지라도 불쌍한 目的物이 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役割과 그의 教育은 惡用되게 된다. 教育은 존 듀이가 '항상 새로워 지는것'의 生活이라고 한 것은 제쳐 놓고서라도 全體人間을 다 계발시키는 수단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勞動黨의 道具이며 主體型的 共產主義者를 大量 生産하고자 하는 것을 勞動黨이 目標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教育은 人間이 그들의 信念과 教養, 社會的인 能率등을 신장할 수 있고 同時에 개성과 사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勞動黨이 특히 어린이들과 모든 어른들을 社會主義建設과 革命에 적합한 人間型을 創出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드는데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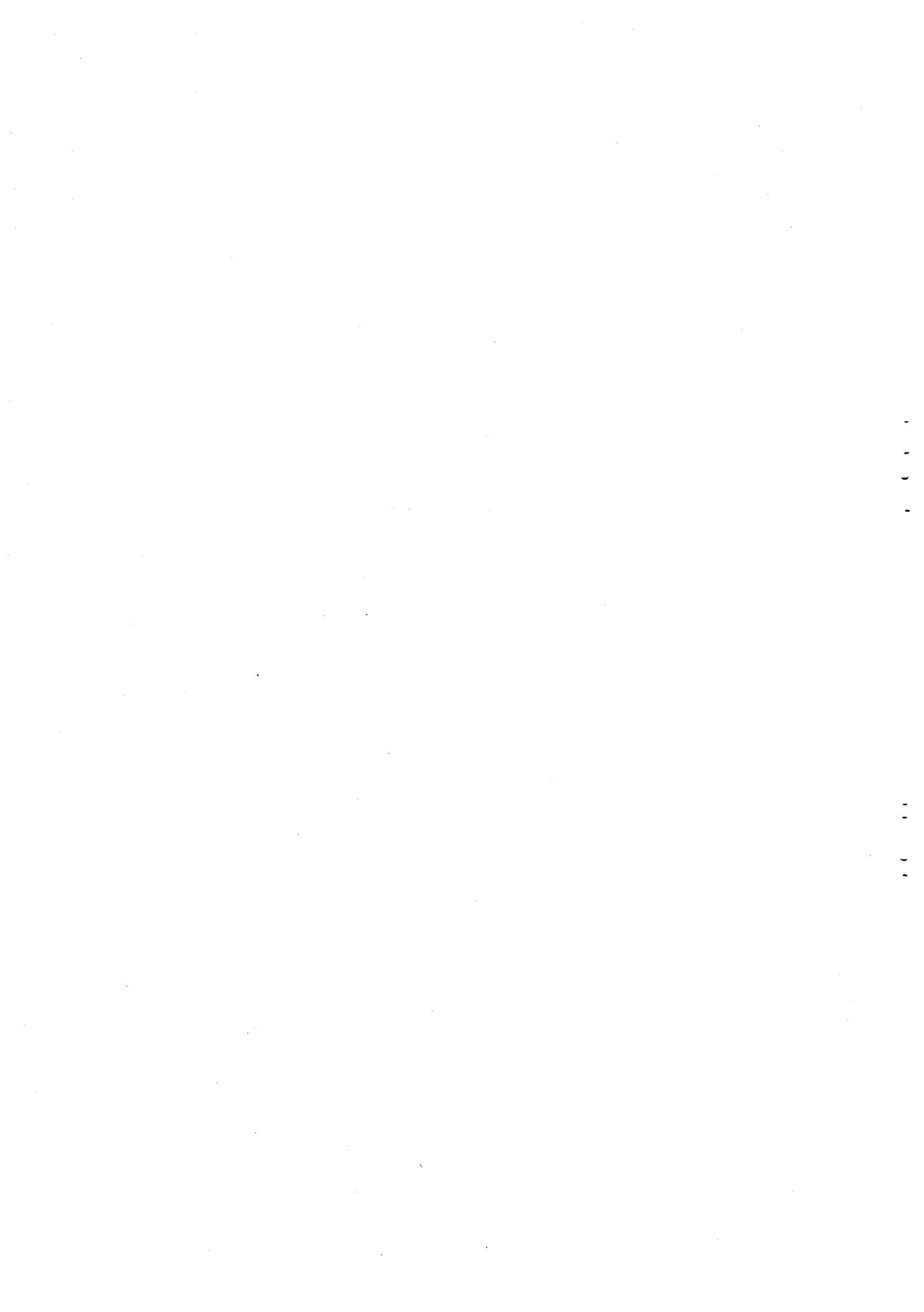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는 北韓의 社會主義 教育은 民主主義的 教育과 정반대이다. 北韓教育에서는 集團的인 테마가 最優先權을 갖는다. 一致性, 服從性, 規格化는 個性과 多樣性, 自由를 무시한채 널리 시행하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教育制度가 통치 엘리트의 目標에 기여된다는 事實을 잊혀져서는 안된다. 또 支配層이 必要로 하고 希望하는 스타일의 자세와 技術이 確實히 함양되도록 하고 지난 30年 동안의 經濟建設 成果를 北韓이 達成할 수 있게 하는데는 이러한 教育이 밑바탕을 이루었다.

主體 : 北韓의 이데올로기

(박 한 식)

- 現在 조지아大学 政治学 副教授
- Human Rights Quarterly,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Asian Profile, Korea and World Affairs 등 刊行物에 研究論文 多數 寄稿



이 세상의 모든 社會中에서 北韓과 같은 閉鎖社會는 없을 것이다. 영원한 指導者인 金日成은 1948年 政權을 잡은 이래 西方世界로부터 사실상 단절된 狀態에서 北韓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1950 - 1953年의 韓國戰爭 以來 몇년 동안, 오직 몇명의 美國人만이 北韓을 旅行할 기회를 가졌다.

北韓 역시 유엔대표부 몇명의 관리만이 美國을 訪問하도록 許諾받았을 뿐이다.

北韓은 戰略地域으로서 소련과 中공 양측에 모두 중요시 되어 왔다. 그리고 過去나 現在에도 두 主要 共產勢力은 그들의 조그만 共產主義 이웃에 원조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1960年代 中·소 紛爭이 격화됨에 따라 平壤은 두나라 사이에서 위태로운 平衡을 維持하는 政策을 採択했다.

그러나 이러한 平衡은 오래 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中·소의 긴장은 北韓이 두 勢力에 대하여 동시에 步調를 維持하는 것이 극히 어려울 정도로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時期에 美·中 關係의 정상화가 北韓에 대한 새로운 壓力手段으로 등장했다. 北韓이 지금까지 敵으로 간주해 온 나라, 즉 美國과 戰略的 제휴를 맺으려는 나라를 모욕하는 미묘한 位置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北韓은 깨닫고 있다. 北韓指導層은 냉전시대의 양극화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現 時代의 世界政治 變動상을 직시하는 것 같다.

이같은 重要한 歷史的 시점에서 동료학자들과 함께 北韓을 訪問할 기회가 있었다. 北韓당국이 이와 같은 특이한 時期에 美國으로부터 몇몇 學者들을 招請했다는 그 事實은 그들의 政策方向의 變化를 암시해 주고 있다. 체류기간 동안 필자는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北韓

大衆信仰의 동질성 정도와 金日成의 카리스마가 大衆의 生活을 支配하는 정도에 특히 注目했다. 필자는 金日成 位置의 견고함과 理念的 통일 뒤에 숨어 있는 強力한 힘을 깨닫는데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 힘이란 바로 “主體”思想이다. 따라서 北韓社會에 대해 意味있는 研究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 思想을 分析하지 않으면 안된다.

世界觀으로서의 “主體”

“主體”란 보통 自己依存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路線은 金日成이 政治的 統合 및 정당성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한 初期段階에는 唯一思想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유일사상은 祖國統一이라는 명분아래 金日成의 權力 기반을 確固히 하는데 利用된 政治的 슬로건에 불과했다.

1960年代 중·소紛爭이 심화됨에 따라 유일사상을 主體路線으로 變化시킬 必要性이 대두됐다. 北韓은 중·소에 대해 한쪽은 버리고 한쪽을 취하는 政策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웃 共產主義 強大國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됨에 대응하여, 北韓 指導層은 주체노선으로 더 응집력 있는 理念的 體制를 이룩하려 했다. 따라서 國內 權力基盤 구축이나 두 共產 強大國間의 등거리 외교의 合理化에 目的을 둔 당시 하나의 政治的 슬로건만으로서 주체를 理解하는 것은 부당하다. “主體”는 그 自體가 하나의 哲學, 즉 社會와 人民의 進歩的 發展을 유도함에 있어 理論的으로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實際的으로 유용하다고 일컬어지는 完全한 哲學과 같은 것이다. 이렇듯 “主體”란 觀念은 世界歷史는 물론 韓國을 다시 해석하는 根柢로 使用되어 왔다. 또한 “主體”는

北韓住民에 대해 行動의 案内者, 그리고 國民的 자부심의 궁극적 근원
으로 認識되고 있다.

北韓에서의 한 討論會에 主體思想 理論家인 金日成大學에 在職中인
한 中年의 哲學教授도 參席했다. 그와 함께 3時間 동안의 馬拉톤 會議
에서 필자는 익히 알려진 宣傳만 늘어 놓는 지루한 그의 반복 주장에
아주 失望했을 뿐만 아니라 理念의 論理的 및 哲學的인 面을 理解하
는 데에는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 내가 그의 주체노선 說明에 미심쩍
어 하는 것을 눈치 채고 그는 思想이란 것은 完全히 理解될 수가 없는
심오한 “영생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로하려
고 했다.

아마도 그 哲學을 마스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創造者인 金
日成 自身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하에서는 내가 北韓에서 들은 것과
主體思想의 本質的 要素라고 認識될만 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적어
본다.

民族精神 實現으로서의 “主體”

“主體”는 民主主義의 요체라고 強調하면서 會議席上의 그 教授는
“主體”는 한 國家와 그 世界에 대한 弁證法的 合이라고 主張했다.
한 國家는 그 獨立性和 他國과의 主權的 關係를 維持해야 한다.
그러한 狀況下에서 世界 各國은 그 自身이 主人이어야 하고 同時에 어떤
다른 나라에의 증속도 배척해야 한다. 그 教授가 說明했 듯이 이것
은 人間文明의 發展過程의 견지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大
國에 의한 小國의 植民地的 支配時代는 끝났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도

더 이상 植民主義 行動을 정당화 하는데 성공할 수 없다.

勞働者 至上主義로서의 “主體”

生産者는 生産物을 統制하기도 하고 生産物에 의해 조종되기도 한다. 필자가 會議期間 동안 그 教授에게 勞働者 至上主義의 概念은 “主體” 思想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며 또 社會主義 사상사에서 맨처음 나타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자 그는 勞動階級이 社會階級 關係에서 主人이라는 觀念이 北韓에서 기원되지는 않았을지라도 生産組織에 대한 勞働者關係는 主體哲學에서 만큼 심오하게 分析된 예는 예전에 없었다고 答辯했다. 그 教授에게 問題가 된 맑스 理論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努力은 無益한 것이었다. 그는 맑스주의에 대한 어떤 이질적 해석에도 귀를 기울리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심오한 思想은 위대한 指導者 外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主體”를 發展시킬 運命에 있는 北韓

그 教授의 理論的 설명의 클라이막스는 그가 “主體” 理念이 어찌서 北韓에서 기원됐느냐는 질문에 도달했을때 다가왔다.

그는 그러한 심오한 思想은 北韓 以外の 나라에서 理解하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強調했다. 그것은 오직 北韓만이 그 思想의 탄생에 적합한 客觀的·主觀的 條件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客觀的 條件에 관하여 教授는 나의 시야를 韓國의 歷史的 經驗쪽으로 돌리게 했다. 韓國은 수천년동안 특히 고려왕조(918-1392) 때에는

主權國家였을지라도 20세기 전반(1910-1945)은 식민주의와 外部勢力의 종속의 쓴맛을 맛보아야만 했다. 그렇기때문에, 한민족은 그러한 經驗이 없는 民族보다 더 민감하게 國家主權의 重要性을 깨닫고 있다. 그는 또한 한반도에서 主體理念의 탄생을 쉽게 한 客觀的 條件으로서 정치, 지정학적 환경을 引用했다. 소련, 중공 그리고 日本과 같은 強大國에 둘러싸인 소국으로서 韓國은 더 힘센 國家의 行動(侵略)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行動의 동기에 대해 추리할 기회가 많았다.

이와 같은 經驗은 韓國民으로 하여금 그보다 강대한 나라의 侵略을 피하기 위해 강대국과의 융화적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獨立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에 직면케 하고 있다.

獨立後의 政治의 현실은 또다른 客觀的 條件을 낳았다고 그 教授는 主張했다. 韓國은 強大國에 대한 종속 또는 國家의 獨立 양자사이에 서 하나를 선택해야 만 했다. 이같은 선택에 직면하여 北韓은 獨立을 선택했고, 반면 南韓은 美國의 支配下에 놓여 있다고 했다. 필자는 이 教授가 金日成의 권력장악의 초기에 北韓에 대한 러시아의 影響力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이 느껴져 적잖이 놀랐다.

필자가 똑 같은 客觀的 條件을 갖춘 나라가 많다고 지적했을 때, 教授는 소위 “主觀的 條件”에 대한 나의 관심을 끌어냄으로서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答辯했다. 重要的, 아마도 유일한 그런 조건으로서, 그는 위대한 指導者 金日成이 韓國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金日成의 강림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客觀的 제조건은 “主體”哲學의 發展에 必要하나 그것들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영원한 真理를 創造하는 歷史的 課業”을 완수하

는데 그와 같은 條件들을 利用할 수 있는 위대한 指導者의 탄생은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要素라는 것이다.

唯一 哲學으로서의 “主體”

위대한 指導者에 의해 創造되었기 때문에 ‘主體’는 다양하게 統一
을 촉진하며 主體를 통하여 統一된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 주체노
선이 적용될 때 남성 대 여성, 지배자 대 피지배자, 客觀對主觀, 즉 대체
로 소수 대 다수라는 세계의 2大分은 상호 보완적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그 教授의 說明은 論理的이긴 하다. 필자가 그가 개괄한
변증법적 論理가 그럴듯 하며 심지어 確證的이라고 말하자 그는 매우
만족해 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을 교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필자가 그 教授가 설명한 변증법
철학에 대해 새로운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指導者의 思
想에서 기원된 것은 전혀 없다고 論評했을 때 그는 상당히 실망하는 눈
치였다.

필자는 그에게 플라톤 헤겔 그리고 古代 中國의 陰陽論까지 상기 시켰
지만 그는 별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主體’內의 主 統一原理는 위대한 指導者와 人民과의 關係에 適用
된다. 나의 안내원은 내가 만났던 사람들중, 指導者와 人民과의 關係
에 관한 심오한 성격을 깨닫지 못하고 선 北韓을 理解할 수 없다고
主張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 관계란 指導者는 人民
의 핵심이며 그 逆도 같다는 弁證法的 含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한

論理로 權力의 정당화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政治制度는 어디서도 存在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필자는 내게 설명해 준 이러한 변증법적 關係를 도저히 理解할 수가 없다. 정치사적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3個의 정당성의 根柢가 있어 왔다. 古代에는 지도자에게 그의 우월한 자질에 기초한 정당성이 주어졌다. 플라톤時代의 철인왕은 피치자들보다 더 전지하고 전능하였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이 發揮됐다.

로마시대의 황제들은 싸움에서 우월한 身體的 및 戰略的 能力을 과시한 것 같았다. 중세에는 왕을 정당화하는 것은 신의 뜻이었다. 철인왕과 왕권신수에 의한 왕, 양자에 대한 정당성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미리 정해진 자질의 差異에 根柢하였다.

哲學的 個人主義와 自由放任主義 經濟原則이 中世의 유산을 무너뜨렸던 16~17세기에 自由主義 思想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社會契約說이 탄생했다. 이 理論에 따르면 支配者는 우월한 資質을 所有한 것도 아니요, 초자연적인 전능이 부여된 者도 아닌 것이다. 그는 단지 契約에 대한 한 當事者에 지나지 않으며 그 契約의 內容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가 契約상의 義務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의 지위는 效力이 없어지고, 必要하다면 무력에 의해 제거되기도 한다. 社會契約 概念의 도입이래 세계의 指導者 大部分이 이데올로기에 무관하게 어떤 規則 또는 立憲상의 제한 아래서 나라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리더십에 관하여 특이한 狀況이 存在하고 있다. 社會契約의 原理는 北韓大衆의 믿음 체계에는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다. 중세의 전통과 유사한 구시대의 전통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 더군다나 北韓은 共產政權의 創設 以來 指導層의 變動이 없었다. 지금 金日成이 노쇠함에 따라 北韓은 공공연하게 세습체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즉 金正日이 그의 아버지를 계승할 유일한 資質을 갖추었다고 宣傳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단순한 政治指導者 以上이다. 그는 온 人民의 國父的 存在이다. 아버지가 그의 자식들에 의해 選擧된 것이 아닌 것처럼 金日成은 人民에 의해 選擧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의 選擧者로 간주되고, 그의 리더십은 그의 강림이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金日成의 리더십은 세상의 어떤 契約에 의해 구속받지 않으며 그의 부권상실은 人民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

슈퍼맨과 같은 金日成이 자기유지를 위해 어떤 수단이 사용되는가? 여러 要素들이 그의 카리스마를 뒷받침 하고 있다. 첫째, 그는 日帝식민지배로부터 거의 단독으로 그의 人民을 해방시킨 國家的 英雄으로 認識되고 있다. 그가 10대 시절부터 獨立運動에 參與했다고 함으로써 카리스마 형성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상당히 유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金日成은 나라를 구하고 그의 人民을 산꼭대기로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영웅이며 따라서 그 어떤 나라도 자기들을 증속 내지는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北韓 사람들의 심중에 박혀있다.

平壤에 머무를때 安重根에 관한 영화를 본적이 있다. 안중근은 1909年 日本의 韓國 식민지 政策의 개척자로 評價되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人物이다. 안중근 영화에서 안중근이 일본당국에 체포되기 직전에 “태양은 언제 떠오를 것인가?, 우리의 어둠을 밝혀 줄 구세주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라고 크게 탄식한다. 이는 곧 하늘이 金日成이라는 人物을 韓國의 指導者로 내려보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金日成은 또한 完全한 社會主義의 창시자로 각색되어 있으며 따라서 大理論家로 불려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맑스 레닌주의는 社會主義의 시초에 불과하며 그것은 특정 나라의 土着的 條件에 따라 添加와 修正이 要求되는 원재료에 불과하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이와 같은 견해는 毛沢東 思想을 展開했던 中國의 그것과 類似하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에 關係없이 重要한 것은 北韓 사람들이 金日成이 가장 진보적이고 完全한 社會主義 理論家이며 따라서 이 哲學者的, 知識와 知識은 세계도처의 피압박민을 해방하는 원천이라고 의심치 않고 있다는 事實이다.

平壤滯在 期間 동안 우리의 接待者들은 우리에게 1980年 10월에 열린 第6次 勞動黨 전당대회에 관한 記錄映画를 보여 주었다. 이 필름에서 비동맹블럭에서 온 많은 代表團들은 위대한 指導者에 대해 깊은 경의를 表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으며 이는 北韓 住民들에게 金日成이 世界的 指導者임을 생생하게 證明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었다.

金日成大學 訪問時에 金日成 思想研究를 위해 獨立學科가 設置되어 있는 事實이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더군다나 모든 學生들은 金日成의 思想에 관한 知識程度에 대해 試驗을 치른다고 한 教授가 말해 주었다. 金日成 思想研究가 하나의 學問을 構成하고 있는 狀況아래서 主體가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 이상의 것임이 分明하다. 그것은 유일하고 신권적이며 절대주의적인 國家를 위한 기초를 形成케 하고 있다.

機能과 意味

필자는 보편적인 문구로 “主體”를 記述하려고 시도해 왔다. 이러

한 主體思想은 分明히 北韓政權에게 유익한 기능을 제공해 왔다.
제반 기능중 몇몇은 다음과 같다.

新民族主義: “타인 부정에서 자기 긍정으로”, 주체사상의 中心的 機能은 大衆들에게서 강렬한 民族主義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主體”를 통하여 北韓은 적극적인 民族主義 意識을 뚜렷이 고양해 왔다.

第3世界에 있어서의 民族主義는 특히 예전의 식민지 제국에 대한 적대감에 통상 근거하고 있다. 北韓도 例外는 아니다. 여기서 또 民族主義는 部分的으로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끊임없는 공격을 감행했던 까닭에 反日主義와도 關聯되어 있다.

사실상 金日成의 카리스마는 政權의 政治的 目的達成에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었던 반일감정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北韓은 反日을 強力하게 指向하고 있으며 金日成의 革命的 鬪爭을 찬양하는 취지의 슬로건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韓民族이라는 우월성과 독창성을 確固히 함으로써 “主體”思想은 北韓住民들로 하여금 단순한 적대감을 넘어서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 왔다.

北韓은 人間의 文明은 韓半島에서 기원되었으며 한민족은 모든 압제 받는 사람들을 “主體”라는 약속 받은 땅으로 이끌게 되어 있다는 選拔 받은 民族이라고 歷史를 재기술하고 있다.

이는 文鮮明 통일교의 理論的 전계를 생각해 하는점이 없지 않다. 사실 필자가 平壤에 있는 中央歷史博物館을 訪問했을때 필자는 거기서 北韓에서 發掘된 것으로 기술된 사람의 뼈와 원시적인 도구등과 같은 구석기시대의 유물을 觀察한 적이 있다. 그런데 報道된 바로는 그 유물의 기원이 서방세계에 알려져 있는 구석기시대의 기원보다 앞선 것이었다.

現在 進행중에 있는 “朝鮮戰史”라는 긴 시리즈의 韓國歷史冊을 發刊하는 事業은 인상받을 만 하다.

총 33 권을 편집하기로 計劃되어 있는바, 그중 17 권이 이미 發刊되었다. 이 事業에 관여한 한 사학자는 選拔된 200 여명의 學者가 過去 10 年 동안 이 事業에 忠事해 왔다고 필자에게 알려 주었다.

필자가 발간된 冊을 調査해 본 바에 의하면 이 事業의 의도는 北韓이라는 國家와 세계의 모든 피압박 민족의 구세주로서 위대한 指導者의 출현이라는데 그 根柢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나의 생각에는 하등의 의문이 없다. 그러나 필자를 가장 관심끌게 하는 것은 역사저술의 正確性 여부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事業을 可能케 하는 신념체계의 形態이었다.

인간역사의 해석에 根柢한 “主體”가 환상적인 종족 우월성 및 강렬한 자기신념을 發展시키는 方向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깨닫는데에는 나는 상당한 混亂을 겪었다.

또 나를 혼돈케 하는 것은 모든 民族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나치 독일과 일본제국주의가 세계질서를 재편성 하려 했던 것과 같은 이데올로기형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의 民族主義는 정치적 교리의 範圍를 훨씬넘어 광범하게 펼쳐 있다는 것을 理解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民族主義는 實質的으로 社會의 모든 면에 투영되고 있다. 각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說明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자는 芸術과 農業分野가 “主體”哲學에 의해 영향받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論議하고자 한다.

藝術에 있어서의 “主體”

平壤을 방문해 본 사람들은 많은 공공건물 특히 人民大學習堂과 같은 建物の 建築美에 대해 인상을 받을 것이다.

北韓 사람들은 이러한 建物を 設計함에 있어 거대한 規模와 傳統的인

建築美의 조화를 자랑하는 것 같았다. 묘향산에 세워진 國際親善展覽館은 現代의인 設備로 傳統美를 접합시키고 있으며, 화려한 외양과 동시에 공기 조절기 같은 現代의인 設備로 갖추어져 있다.

필자는 특히 그러한 建築物들이 韓國 動亂으로 인한 대량파괴의 잿더미 속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저으기 놀랐다.

또 言及할 만한 藝術分野는 音樂이다. “主體”思想에 따라 音樂에 적용된 수식은 관람하는 訪問客에게 상당히 인상적이다. 클래식이든 現代의 재즈든 간에 西歐音樂은 北韓을 넘보기가 힘들 것 같다.

一般的으로 北韓住民에게 고전음악이란 곧 傳統的인 民俗音樂을 意味하며 공연되고 있는 모든 現代 創作品들은 實質的으로 토착 작곡가에 의해 創作되고 있다.

필자는 音樂에 조예가 있는 한 案内員에게 이태리 오페라가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된 적이 있는지 質問해 보았다. 그는 그런적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덧붙이기를 그들 자신의 오페라가 어느 外國作品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굳이 이태리 오페라를 빌려와 공연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말은 대체로 作曲과 演芸에도 적용된다.

필자는 萬壽台 藝術劇場에서 한 오페라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체 독창자가 있는 합창단을 가진 오케스트라연주에서 서구 오페라와는 뚜렷이 다른 차이점을 發見했다. 소위 “방창”이라고 하는 비정통적인 편곡이 유일하게 독창적이고 “主體”哲學의 藝術的 表現이라고 主張했다. 오페라音樂에 “主體”를 적용한 또 하나의 例는 “절가화”라는 것인데, 이는 더 힘있는 音響效果를 나타나기 위하여 음질의 반복을 利用하는 기법이다.

여기서 필자는 藝術家와 演芸人은 大衆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藝術家의 社會的 지위가 놀라우리 만치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일류 예술가와 연예인들은 “공훈배우” 또는 “인민배우”라는 칭호를 얻어 존경을 받고 있다.

案内員은 공훈배우의 명성이 아주 높아 그런 유명 연예인의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近處로 이사갈 수 있게 되기를 希望할 정도라고 말해 주었다. 젊은 가수지망자, 곡예사, 무대연예인, 그리고 배우들은 이러한 稱號를 얻는 것이 그들의 積極적 目標로 여기는 것 같았다.

農業에 있어서의 “主體”

“主體”는 또한 최소한 2個分野에서 農業政策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필자는 食糧을 自給할 정도로 充分히 生産하기 전에는 한나라가 自立할 수 없다는 점이 머리에 항상 떠오른다.

檢證할 방법은 없지만, 北韓 사람들은 적어도 國內消費 線에는 相當할 정도로 食糧을 生産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의 食糧生産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換金作物의 生産과 國際市場에서의 交易를 항상 강조해 왔던 여타 제3세계국가들과 다른점이 있다.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유희경작지는 한치도 없었다. 심지어 가파른 언덕도 옥수수로 덮여 있었다. 訪問客들은 옥수수 농장이 密集되어 있음을 곧 알게 된다. 이러한 類의 재배는 農業이 “主體”를 實行하는 두번째의 例이다.

필자는 그러한 재배방식이 소위 “主體農法”이라는 것과 一致한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다.

또 密集栽培가 農夫들에게 씨앗이 아니라 묘종을 政府가 直接 分配함으로써 可能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北韓에 있어서의 “主體”란 것이 추상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했다. “主體”는 住民들의 日常生活의 具體的인 面으로 흡수되어 왔다. “主體”는 住民들의 行動을 인도하는 많은 實際的인 應用에 따라 大衆의 信念體系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主體思想이 客觀的으로 타당하거나 또는 理論的으로 確證的이라는 것을 필자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分明하다. 그렇지만 또한 科學的 思考와 合理的 論理로 “主體”에 대해 도전하려는 外部的 努力이 1,900 만 北韓住民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獨트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事實을 現在로서는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分明하다.

民主社會主義：配分的 正義

人間平等과 主人으로서의 人民을 부르짖는 “主體”는 “北韓式 民主社會主義”의 確立에 기여해 왔다. 北韓에 있어서의 民主主義란 配分的 正義의 概念으로 定義되고 있으며, 이러한 意味에서의 民主主義에서는 곧 指導層은 다른 어떤 社會主義 體制보다 더 民主的인 社會를 성취하기를 要求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맑스 社會主義는 社會 및 人間の 不平等에 責任을 지고 있는 需要·供給지향의 資本主義에 反對하여 公正社會 確立을 위해 代替的 社會哲學으로서 출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社會主義는 可用資源의 沒分配에 의한 相對的 박탈의식이 넓게 만연해 있는 많은 저개발 社會 國家들에게 어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能力에 따른 각인 (each)에서부터, 必要에 따른 각인”이라는 주의는 物質的 인센티브가 무시되고 그리하여 逆으로 生産性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여 비판받아 왔다.

大部分의 社會主義 體制는 必要에 의한 分配의 概念을 버리고 대신에 “일”과 “공헌”에 따라 보상이 제공되는 誘引體制를 混合시키려

하고 있다.

이의 한 實例가 中共에서 實施되었던 作業點數制 (work point system)이다. 中共은 일에 의한 分配는 “必要”의 基準을 利用하여 配分的 正義의 實質的 實現을 向한 中間段階라고 인정하고 있다.

北韓은 모든 여타 社會主義體制보다 進歩된 社會主義를 이룩해 놓았다고 主張함에 있어 자기들의 分配基準은 消費者의 必要에 準다고 지적했다. 各異한 部門에서, 또는 各異한 숙련程度에서 勞動者들간의 相對的 微細한 임금차는 그러한 配分的 正義를 나타내 준다고 主張하고 있다.

平壤에 머무는 동안 필자는 賃金體系에 관한 약간의 資料를 蒐集했다. 大安機械工場에서는 미숙련공에게 70 원에서부터 가장 우수한 機械操作者와 最高管理者에게 130 원에 이르는 賃金分布를 이루고 있었으며, 金日成大學에서는 初任講師가 100 원을 받고 있는 반면 學界에서 가장 地位가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博士教授 (doctor-professor) 稱號를 받는 사람들은 250 원을 받고 있었다. 平壤産院의 醫師들의 所得은 125 원에서 250 원 사이, 그리고 公務員들은 90 원 (初級公務員)에서 300 원 (각료급 공무원)의 月給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가 만약 타당하다면 賃金의 差異는 비교적 소폭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非金錢的 報酬까지 考慮한다면 단순한 賃金額의 差異보다 훨씬 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더 言及할 만한 分配의 또다른 分野는 食糧配給의 實態이다. 이 冊의 어느 곳에선가 經濟部門이 論議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實質的인 言及을 避하고 다만 配給의 基準이 “必要에 따른” 原則이 固守되고 있

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필자가 案内員에게 食糧配給에 關한 公式에 대해 묻자 그는 젊은 鑛山勞動者가 여자교사의 두배정도 더 받는 예를 引用하면서 위 原則을 強調했다.

世 襲

앞에서 說明 했듯이 主體의 創造者로서의 金日成은 단순한 政治指導者 以上の 位置에 있다. 그는 現在 한 國家의 象徵 및 分身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神의 意志의 化身으로서 그의 리더쉽은 하느님이 점지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指導者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의 가문은 본디 다른 평범한 가문보다 다르다고 認識되고 있다.

방문 첫날 우리는 金日成의 生家로 案内되었다. 그곳은 모든 訪問客들이 경의를 表하기로 되어 있는 國家的 祠堂이었고 거기에 있는 金日成家門의 博物館은 치밀하게 高證된 家系의 革命鬪爭史를 展示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金正日에 의한 리더쉽 계승문제가 檢討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앙받는 指導者”로 항상 일컬어지는 젊은 金正日是 主體哲學의 유일한 계승자로서 主體哲學을 發展 및 完成시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 듯이 金日成을 단지 한 政治指導者로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民族全體의 唯一한 化身”으로서 간주되어 있다는 점을 필자는 理解하기가 어렵다. 결국 위대한 指導者와 그의 家族이 分離될 수 없다는 論理의 핵심을 理解하더라도 (비록 認定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필자는 그 當時 젊은 金正日에 관하여 이 論理를 適用시켜 보라고 質問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믿음을 要求하고 있다. 왜냐하면 젊은 金正日是 한편으로 그의 아버지와 비교할 程度로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大衆과의 個人的인 關係도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理解는 그리 깊지 못하다.

또 한사람의 카리스마 指導者로서 金正日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家門의 神秘와 金正日 自身の 榮光이라는 두가지 觀點”에서 計劃된 努力이 지금 北韓에서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神이 접지한 가문으로서 金日成의 가문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北韓當局은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그 우월성을 宣傳하는데 바쁘다. 어느 教授는 젊은 金正日이 그가 옮겨만 걷는다면 세습자로 選擇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가문이 아니었다면, 金正日是 세습에 대한 정당화가 더 취약하기 때문에 政權 계승자로서 더 強力한 主張을 폈을 것이라고 그 教授는 論評했다)

그의 모든 論評은 金正日이 자기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指導者로서의 모든 資質을 구비한 인물이라고 나를 확신시키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사실 젊은 金正日是 文化生活의 全 領域에서 主體를 發展시켜 왔다고 主張되고 있다. 필자는 北韓에서 金正日是 芸術의 모든 分野에

서 천재라고 종종 듣기도 했다. 그는 앞에서 論議된 主體오페라 音樂을 創案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수준급의 建築家이며 만수대 藝術劇場은 그의 作品이라고 했다.

金正日의 神的인 能力과 힘을 宣傳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그의 신경 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좀체로 大衆앞에 나서지도 않고 訪問客을 접견하지도 않는다. 그의 私的인 生活이나 그의 身上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엄격히 禁止되어 있다. 15日동안 체류하면서 필자는 그의 나이가 몇살이며, 그가 결혼했는지, 그는 外國에서 공부했는지, 其他 그의 生活方式에 대한 그 어떤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한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갔던 곳은 國家的 祠堂으로 指定되어 왔고 그런 意味를 부여해 왔다.

이렇듯 主體는 北韓의 政治에 많은 貢獻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습을 정당화 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非同盟블럭의 開拓

이미 밝힌 바와 같이 北韓 住民들은 그 自身들을 그리고 특히 그들의 指導者 金日成을 第3世界의 모든 被壓迫 民族의 精神的 支柱로서 認識하고 있다.

그들은 主體와 關聯된 정책노선이 非同盟블럭에서 열렬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한 믿음은 第3世界, 특히 아프리카 地域의 社會主義 國家들로부터 招請된 參席者들로 構成된 國際 심포지움의 開催와 같은 具體的인 措置로 나타나고 있다. 平壤에 있는 여러 호텔들의 로비에는 여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많은 출판물이 전시되

고 있는데 第3世界 研究에 관한 것들이며 아마도 이 출판물들은 主體理念에 관한 研究가 主種을 이루고 있다.

公表된 外債問題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定期的으로 베트남, 리비아, 쿠바, 最近에는 니카라구와와 같은 特定한 社會主義 國家들에게 技術的, 軍事的 원조를 提供하고 있다.

北韓 住民들은 自己들이 다른 나라를 教導하고 원조하는 位置에 있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으며, 平壤의 指導部는 民族主義와 民族的 自負心を 高揚하기 爲하여 그와 같은 원조 사실을 宣傳하고 있는 것이다.

客觀的으로 觀察者는 北韓의 國際的 地位에 관한 北韓 住民의 認識도 全적으로 非現實的이고 事實과 동떨어져 있다고 結論지을 뿐이며 어떠한 誇張도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필자의 한 經驗을 引用하여 例를 들어보자.

外國손님들은 平壤에서 北쪽으로 約 100 마일 程度 떨어진 묘향산에 있는 國際親善 展覽館으로 대개 案内된다. 巨大한, 그러나 섬세한 이 朝鮮式 建物에는 美國市民들로부터 받은 몇몇 物品을 包含한 約 125 個國으로부터 받은 紀念品들이 展示되어 있다. 博物館 案内員은 韓國人이 다른 나라에 대해 경의를 표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이들 나라와 指導者들이 北韓에 와서 위대한 指導者에 대해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잘못된 認識과 오류가 主體理念에 깊이 새겨 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非同盟과 連結된 強力한 民族主義가 第3世界에 대한 北韓의 外交政策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역할을 遂行해 왔다.

外國과 交易量이 크지 않는 작은 나라로서 北韓은 100 餘個 國家와

積極的인 外交 및 政治關係를 發展시켜 나가고 있다.

北韓大衆의 南韓에 對한 認識

“主體”는 또한 北韓大衆의 南韓에 對한 認識에 關해서도 強力한 影響을 미쳐 왔다. 이러한 認識은 國民的 合意를 이룩하고 金日成의 權力基盤을 더 한층 견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主體思想이 全的으로 不在한 전형적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다름아닌 “美國의 統制下에 있는 南韓”이라고 大部分의 北韓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美國은 南韓을 퇴폐로 汚染시켰으며, 南韓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美國에 依存케 함으로써 “祖國”의 南半部를 無能力化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認識으로 말미암아 北韓人들은 南韓政府와 그 政治制度는 美軍이 撤收하자마자 붕괴된다고 믿고 있다.

필자가 南韓의 기적적인 經濟成長의 成功을 指摘하자 한 北韓學者는 南韓政府가 發表한 數量的인 指標를 大衆의 實質生活 條件으로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라고 答辯했고 덧붙여 一般的으로 잘 알려진 南韓의 成長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즉 外國의 帝國主義 資本으로 이룩된 것이라고 했다.

北韓의 指導層은 南韓의 政治體制가 정당성이 不足하여 필시 붕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南韓에서는 經濟的 및 社會的 대립이 꾸준히 深化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고조되는 鬭爭의 原因을 빈부간의 罅에서 찾고 있다. 北韓人들은 어느때든지 社會騷擾가 일어나 南韓政治體制의 붕괴와, 社會主義 思想과 이미 提案된

北韓의 연 방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政治體制로의 代置를 기대하고 있다.

要約하면, 主體思想은 北韓 政治體制가 政治的 統合을 이룩하는데 기여했고 指導層의 權力基盤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主體思想의 展開가 냉전시대의 政治에 의해 주로 形成된 特殊한 国内外 狀況에 따라 더 유리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現在 北韓 国内問題의 우선권은 변하고 있으며 더 重要的 것은 國際環境이 根本적으로 변혁을 겪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와 같은 歷史的 觀點에서 平壤側은 北韓政治의 여타 모든 分野에 걸쳐 있는 主體思想에 影響을 주리라고 豫想되는 새로운 問題와 挑戰에 直面하지 않을 수 없다.

展望과 問題點

現代化와 “主體”

“3大革命(技術, 思想 및 文化)”의 슬로건과 함께 北韓은 技術開發 및 産業化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았다. 技術은 西方에서 發達했기 때문에 필자는 北韓이 점차적으로 西歐의 影響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社會主義 國家가 産業化를 추구하게 되면 최소한 非社會主義 國家들의 文化的 및 行態的 價値들을 조금씩 수용하고 採摺해야만 할 것이다.

폴란드, 中共 그리고 심지어 소련까지도 그렇게 해 왔듯이 말이다. 그런데 北韓이 發展된 科學과 技術을 추구하기 위해 外部로 눈을 돌림에 따라서 그들의 理想的 배타성을 維持할 수 있을지가 問題이

다. 技術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도전은 쉽사리 解消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體制의 견고성의 程度를 考慮해 보면 필자는 통상의 第3世界 國家에서 기대했던 方法으로 이데올로기의 탈을 쉽게 또 빨리 벗어버릴 것인지를 豫測할 수가 없다.

金日成以後의 “변증법적 綜合”

北韓人들은 金正日을 신격화하고 세습을 정당화시키려는 세밀하게 計劃된 計劃을 豫定대로 推進하고 있다고 앞에서 說明한 바 있다. 늙은 金日成은 1982年 4月 15日로 70歲이며 그의 아들의 存在는 急速度로 부각되고 있다. 세습은 成功할 것인가가 問題의 핵심이다. 나는 結局에 가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떠오르는 태양”을 둘러싼 카리스마를 닦으려는 全面的인 支援에도 不拘하고 金正日은 또 하나의 金日成도 아니며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 全世界를 통하여 모든 카리스마적 指導者들은 나라를 구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遂行한 國家獨立을 위한 鬪爭이나 革命的 體驗의 結果로서 등장되어 왔다. 이와 같은 一般的 명제는 George Washinton, Mao Zedong, Gamal Abdel Nasser, Mahatma Gandhi, Fidel Castro, Kwame Nkrumah, Leopold Sedar Senghor 등에 適用될 수 있으며, 金日成 自身을 包含한 여타의 人物들에게도 마찬가지다.

植民地時代와는 뚜렷이 다른 北韓은 現 社会的, 政治的 狀況으로 미루어 볼때, 전혀 不可能하지는 않지만 潛在的 指導者가 카리스마적 資質을 기르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豫想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필자는 앞으로 金正日에 의한 세습과정에 필시 障礙物이 나타날 것이라고 豫測한다.

새로운 國際經濟 秩序와 “主體”

世界는 변하고 있다. 理念對立의 時代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 점점 많은 수의 國家들이 産業化하고 必然的으로 市場을 擴張함에 따라 世界는 急激히 統合되고 있다.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되어서는 繁榮할 수가 없고 심지어 生存할 수도 없다. 技術開發과 産業化를 추구하는 北韓과 같은 나라는 이미 産業化된 西半球의 나라들과 經濟的 相互作用을 擴大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新國際經濟秩序가 形成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非同盟國家들에 있어서 소위 “主體”의 理念的 大衆性은 技術開發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平壤은 世界經濟를 構成하고 있는 新生國家間 네트워크와 關係를 維持하려면 西方 産業世界와 더 廣範圍하게 門호를 開放할 必要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北韓이 “主體”를 위태롭게 함이없이 어느정도 經濟政策을 實用化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中·소의 갈등과 中立問題

앞에서 言及했듯이, “主體”의 주창은 中·蘇間의 긴장에 의해 더 促進되어 왔다. 이 긴장상태로 말미암아 北韓의 中立外交의 維持가 實際적으로 不可能하다는 點에 도달했다.

1981年 4月 23日 中共의 新華社通信 특파원에 의해 제기된 質問에 答하면서 金日成은 “支配主義”(domination forces)를 비난함으로써 어느 나라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모스크바를 비난하는 쪽을 택했다. 이 用語는 中共이 蘇聯을 비난하는 말로 쓰이는 “패권”을

意味하는게 分明하다.

北韓이 中共과 형제關係를 維持해 왔던 것은 歷史的으로 事實이나 蘇聯과의 關係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더군다나 金日成의 政治思想이 맑스 레닌主義 보다 모택동의 社會主義 革命理論과 相當히 類似하다는 조심스런 分析이 나타나고 있다. 現在 中共은 美國과 日本과의 經濟的 유대를 公고히 하고 있다. 美國의 協助와 支援은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推進되고 있는 4個 現代化의 實現에 必須的이다.

필자는 워싱턴에 대한 平壤의 政策이 美·中共 關係 發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中共이 北韓에 壓力을 넣을 것으로 豫想한다. 이는 平壤側이 그들에게 익숙치 않은 對美政策 및 態度를 조심스럽게 再檢討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北韓人 自身들의 北韓觀

(이 만 우)

○ 現在 밀러스빌州立大学 (펜실바니아) 政治学教授
Journal of Developing Areas 의 共同設立者

○ 主要論文 :

"Argentine Political Instability,"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1969).

"China after Mao," Chinese Affairs (1978).

"The Prospects for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Moscow and Seoul, Korea and World Affairs
(1980).



序 論

나는 1981年 6月 19日부터 7月 11日까지 23日동안 北韓을 訪問하였다.

大部分이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海外僑胞援護委員會 委員들인 나의 招請者들은 教授, 敎員, 言論人, 政府官僚 등이었다. 그들은 北韓이 아주 幸福한 나라라고 되풀이 하여 말했다.

나는 잘 정돈된 平壤市가 파라다이스 처럼 믿게 됐다. 즉, 새로 建設된 地下鉄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했으며 病院은 비할데 없을 정도로 좋았고 창광원 休養地는 환락의 축소판이었다. 또한 平壤에는 거지도 부랑자도, 무전기식자도, 심각한 犯罪도, 나이트클럽도, 바도, X 등급의 映画도 없었다.

나는 정말로 北韓이 진실한 신자들로 構成된 國家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 나는 北韓이 生存을 걱정하고 있는 극히 편협적인 國家라는 것을 깨닫기 始作했다.

자부심과 편협증상이 이 社會에서는 共存하고 있으며, 그곳 사람들의 기분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그 두가지 要素를 반드시 考慮해야 한다. 비록 내가 韓國語에 능통하지만 나와 같은 短期 訪問者가 北韓 사람들의 “참다운” 기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나는 항상 案内員을 따라 다녀야 했으며 세심하게 選択된 곳만을 보여 주었다. 印刷物, 揭示板, 映画를 통한 선전공세는 大量的이었으며 하나의 目的에 集中되었다. 政府의 統制와 大衆操作의 메카니즘은 완벽했으며, 나는 中國革命 初期中에 있었던 大衆의 熱狂의 구호와 類似한 구호들 뒤에 숨어 있는 음흉한 眞實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北韓에 關한 이 수수한 에세이를 쓰면서 나는 군데군데 일화와 分析을 삽입하였다. 내가 表現하고자 하는 重要的 點은 北韓에 현존하고 있는 基本的인 패러독스 즉 오늘의 北韓社會의 特性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자부심과 편집증상의 혼합현상이다.

北韓 사람들은 자신들의 國內의 業績을 자랑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民族解放을 자랑하고 있으며 위대한 수령 金日成과 人民間의 人間的 일체감은 자부심을 더욱 強化시켰다.

同時에 그들은 극히 自己民族 中心的이며 外部世界에 대해 아주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國內業績에 관한 자신감이나 방향감각은 外部環境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흐려져 있다.

北韓의 自己 이미지 : 自由, 幸福 그리고 自負心

北韓은 종종 南韓侵略을 計劃하고 있는 國家로서 說明되고 있다.

美國에서는 北韓이 테러리즘을 輸出하고, 個人崇拜, 族閥政治, 非人道的 처사, 政治的 무자비를 일삼는 야만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美國에서의 北韓의 이미지는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北韓官吏들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하거나 言及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北韓의 言論報道들은 北韓사람들의 實際的 믿음과는 거의 關聯이 없는 교활한 宣傳으로 종종 處理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을 旅行하는 사람은 소위 宣傳과 北韓사람들이 實際를 믿고 있는 것 사이에 差異가 거의 없음을 發見하게 될 것이다.

모스크바나 北京을 旅行할때 우리는 公式的인 견해와 非公式的인 견해를 듣는데 그다지 時間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北韓에

서는 그 두가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北韓을 實際로 가보지 않고는 北韓에서의 대중조직의 크기와 깊이를 理解할 수가 없다.

北韓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절대적인 政治, 社会的 一致에 압도 되었는데 그것은 대중조직이 아주 강렬하고 効率的으로 遂行되어서 모든 實際的 目的을 爲해 指導者가 원하는 것과 大衆이 바라는 것 사이의 区分이 사라졌음을 밝혀 주는 것이다.

이러한 大衆과 指導者間的 수렴은 너무나 완벽해서 事實인 것 같지 않다. 나는 이러한 現象이 영원히 持續되지 않을 것이라고 確信하지 마는 北韓에 머무는 동안 나는 앙드레지드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생각했다. 즉 “만약 사람이 命命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는 적어도 自由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事前부터 조작되어서 命命을 기다리지도 않고 복종한다면, 그는 노예의식조차 상실해 버린것이다” 이 말은 지드가 마치 北韓을 罽두에 두고 한 말 같다. 정말로 그의 말은 全體 北韓住民의 사고과정의 本質을 指摘한 것이다. 北韓의 指導者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自身들이 人民의 真意를 代表한다고 主張했다.

北韓住民들이 自由로운가 아니면 노예상태인가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하여 北韓을 訪問하는 外國人들은 그러한 의문을 코미칼하게 處理해 버리는 招請者를 理解해야 하는 問題에 直面할 것이다.

그는 당황한 訪問者에게 미소를 지을 것이며 그를 동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訪問者가 北韓社會의 本質을 理解하지 못하는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오늘날의 北韓사람들은 自身들이 自由롭고 다이나믹한 社會에서 살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北韓에 過去 日本 착취자들

이나 다른 外國의 약탈자와 같은 外國 지배자들이 없기 때문에 北韓이 자유로운 것이다. 또한 封建時代가 끝났기 때문에 자유로우며 번덕스러운 지주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그들의 자유의 概念은 어떤 外國支配者나 그들의 하수인(종복, 아첨꾼)에게 奉仕하지 않음을 뜻한다. 北韓 사람들은 자유롭게 旅行하고 職業을 바꾸며 政府를 批判하는 個人의 權利라는 側面에서 자유를 評價하지 않는다. 그들의 자유의 概念은 매우 단순하다. 즉 自由란 自身の 나라를 가지고 있고, 존경하는 指導者가 있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한다. 自由란 民族的 자부심, 集團的인 民族的 과업, 社会的 惠沢, 그리고 反社会 形態로부터의 自由란 側面에서 評價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에 대한 觀念은 政府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조장된 견해임을 나타내고 있다. 1,900 만의 北韓사람들은 1910-1945년까지의 日帝 36年 治下에서 그들이 받은 모욕과 착취에 대하여 매일 듣고 있다. 그들은 정복된 北韓 사람들이 日本 支配階級에게 原資材를 供給해야만 했음을 되풀이 해서 듣고 있다.

北韓 사람들은 그들이 日帝에 의해 쌀을 수탈당하고 보리와 수수를 먹어야 했던 植民地時代를 회상할때 분개한다. 그들은 모든 비옥한 土地와 山林과 工業地域이 日帝에 의해 착취당한 時代를 결코 잊지 못하고 있다. 北韓은 日本 支配階級이 政府, 教育, 工業 그리고 商業分野에 있어 重要的 職位를 독차지 했음을 北韓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그들은 日帝에 부여한 “이기적인 지주”, “매관 부르조아지” 그리고 “쫓대없는 기회주의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과거는 결코 잊혀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北韓의 支配 엘리트들은 젊은 世代가 繼

統해서 過去의 비극을 記憶하도록 하고 있다.

“現在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다” 이 자랑스러운 슬로건은 金正日이 創案한 것이다.

北韓사람들은 그들의 業績 즉 主體(自立)農業, 主體教育, 主體工業, 主體外交政策을 몹시 말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특히 主體工業을 자랑하고 있다. 나를 招請한 사람들은 北韓은 트랙터, 디젤기관차, 트럭, 쌀 생산기계, 불도저, 굴착기, 발전기 등 그들의 工業裝備의 90%를 生産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그들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祖國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日帝 점령기간 동안에는 단 하나의 機械工場도 심지어는 한사람의 朝鮮人 엔지니어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過去를 회상했다.

비록 내가 接觸한 北韓 사람들은 約 20 名の 官吏와 20 名の 一般住民들 밖에 없었지만은 過去, 現在 그리고 未來에 관한 그들의 생각이 完全히 劃一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얼마전의 어두웠던 過去는 사라져 버렸으며 자랑스러운 現在가 있다는 確信은 北韓 사람사이 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았다. 바로 얼마전의 過去는 즐겁지 않은 추억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北韓 사람들은 朝鮮 사람으로서의 깊은 자부심을 오래전의 過去 歷史에서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北韓의 支配 엘리트들은 朝鮮歷史를 과장하기 위하여 意識적으로 努力하고 있다.

平壤의 歷史博物館은 그들이 主張하는 바에 의하면 60 萬年前 韓國 文明이 明白히 存在하고 있음을 立証하는 고대 유물들로 가득찬 몇개의 방이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60 萬年前에 이곳에서 살았다”라고 博物館에서 案内員은 말했다. 또한 “平壤地域은 朝鮮文明의 요

람이다' 朝鮮人은 自身들의 文明을 전파하기 위하여 다른 地域으로 갔다'라고 案内員은 主張했다.

'博物館長은 地圖위의 國境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면서 "이곳은 朝鮮 땅의 一部이다"라고 말했다. 北韓 사람들은 이 問題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

"이곳에 사는 우리는 모두 幸福하다. 그러나 海外에 살고 있는 朝鮮人들은 不幸하다"라고 博物館長은 덧붙였다. 그녀는 美國, 캐나다, 日本, 中共 또는 蘇聯에 살고 있는 朝鮮人들은 모두 不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았다. 平壤에 살고 있는 現支配 엘리트층에는 한때 海外 - 大部分이 만주 - 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獨立을 쟁취하기 위하여 日本에 對항해서 싸우면서 고통속에서 鬪爭했다. 그들은 1945年 그들의 祖國으로 돌아 왔다. 北韓 사람들은 海外居住 韓國人들을 보면 한때 고향을 잃은 사람으로서 만주나 그밖에 원하지 않던 地域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추억을 自動적으로 연상한다.

이와 같은 심정은 外部世界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事實이다. 내가 얘기를 했던 小數의 北韓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전혀 호기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거의 質問을 하지 않았다. 어느날 오후 나는 내가 묵고 있던 보통강호텔 近處에서 6名의 大學生을 우연히 만났다. 나는 단지 그들 自身들의 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美國과 南韓에 관하여 몇개의 單純한 質問을 했다. 내가 豫想했던 대로 그들은 이들 나라와 國民들에 대하여 實質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 그중 한 學生이 南韓사람들이 어떻게 生計를 維持하는 가를 물었다. 내가 南韓이

세계에서 매우 成功한 輸出國家中の 하나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와 했다. 또한 내가 美國에 살고 있는 많은 南韓사람들이 教授, 醫師, 科學者 및 成功한 事業家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 보았다. 나는 그들이 北韓政府當局에 대해 말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問題를 더 이상 拳論하지 않았다.

北韓 사람들의 南韓觀은 지주, 매판가, 고아, 창녀, 도둑, 거지 그리고 파시스트 앞잡이와 같은 이미지에 基礎를 두고 있다. 몇몇 北韓 사람들은 1940年代 後半과 1950年代 初半에 南韓으로 도망간 지주들이 南韓 “괴뢰” 軍隊의 장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北韓 사람들은 그들을 美國과 日本 帝國主義者들의 도움으로 北韓에 人民들을 착취하는 資本主義體制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잠재적인 侵略者로 생각하고 있다. 한 서커스에서 나는 두세개의 단막극을 보았다. 한 장면은 어떤 南韓警察官이 도둑이 훔친 로렉스 시계와 다른 귀중품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로채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방은 다른 警察官에게 넘어갔다. 警察官들끼리의 衝突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죽였다. 관중들은 웃고 또 웃었다. 또 다른 장면은 南韓의 大統領 관저인 青瓦台를 차지하기 위하여 美國과 日本의 통치 엘리트들에게 허둥대며 뇌물을 주는 장면을 보여 주었다.

北韓 사람들은 韓國의 歷代 指導者들을 외국상전인 美國이나 日本 또는 두나라 모두에게 아부하는 希望없는 絶境으로 묘사하고 있다.

北韓사람들의 意識世界는 1930年代와 1940年代에 日本에 대한 鬭爭과 1950-53年동안의 “美國이 고무한” 한국동란중의 鬭爭의 추억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文学作品, 映画 그리고 다른 大衆媒體들은 戰爭이야기, 반역자들, 게릴라 鬪爭, “侵略을 반대한” 용감한 男·女들을 반드시 다루고 있다. 大部分의 映画와 무대쇼들은 人民들의 높은 愛國心과 용감한 鬪爭精神을 나타내는 主題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種類의 認識過程이 주어졌기 때문에 北韓 사람들이 自動적으로 金大中, 김지하 그리고 다른 南韓의 反政府人士들을 동정하고 그들과 일체감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映画와 텔레비전 드라마는 그것을 보는 모든 北韓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單純하지마는 신랄한 이야기를 항상 보여 주고 있다. 北韓 사람들도 자주 “꽃파는 처녀”, “은희와 금희”, “朝鮮의 별”과 같은 매우 감정적이고 “愛國的”인 映화를 볼때 함께 눈물을 흘린다. 北韓의 文化事業은 大衆의 人間的 감정을 동원하는 技術이 거의 완벽하다.

公正하고, 名譽롭고, 용기 있고, 自由로우며 獨立心 있는 사람으로서의 北韓인들의 自己 이미지는 南韓과 美國을 대하는데 있어서의 그들의 形態에 관해 많은 것을 說明해 주고 있다. 北韓 사람들이 自身들의 견해를 굳게 主張하며 소위 南韓에 있는 반역자 내지는 帝國主義 앞잡이들과 相對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지나친 자부심과 自身들을 진실한 民族主義者로서 과대평가 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美國의 첩보선 푸에블로호의 나포, 美國의 EC-121 첩보기의 격추, 판문점에서의 美軍兵士에 대한 잔인한 도끼살인 만행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약탈적인 外國人들의 야만적 侵略에 抵抗하는 영웅적인 行動으로 간주되었다.

혹자는 北韓에서 金日成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라는 감정으로 뭉

친 1,900萬 人口의 統一國家를 成立시켰다고 金日成을 信賴하고 한
편으로는 北韓에서 發展된 지나친 自己民族 中心主義라는 危險한 국
면을 또한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北韓住民들은 완벽한 價値나 국
단적인 독선 같은 不健全한 精神姿勢를 습득해 왔다.

따라서 그들은 自身들과 意見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경멸적이고, 부
도덕하며 열등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

北韓 사람들은 몇몇 美國人들 처럼 그들 自身들의 價値를 보편성이 있
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나친 自己民族 中心主義를 試
驗하기를 꺼려한다. 北韓 사람들이 그들간에는 매우 協同적이고, 当局
에 대하여 복종하며, 그들 自身の 集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목
숨을 바치는데 이러한 團結은 지적인 成長을 희생한 代價로 이룩되
어 왔다.

그 結果 北韓의 外部世界에 대한 무지와 南韓을 美國과 日本의 植
民地로 보는 극히 單純化된 이미지는 韓半島 統一의 課業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北韓 사람들은 統一을 간절히
바라지 마는 北韓 國內政治의 内部論理는 統一의 꿈과는 어긋나고 있
다.

평양 : 파라다이스 고정관념

北韓 사람들의 自負心과 自己 옹호는 平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었는데 平壤에서 나는 많은 그들의 業績을 보았다. 實際로 相當히
경탄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 北韓 사람들은 韓國戰爭中에 잿더미가 된
平壤이 120萬의 幸福한 住民들을 위한 樂園으로 바뀐 기적을 이루

었다고 자랑한다.

平壤은 넓은 道路, 公共建初과 아파트團地를 가진 세심하게 計劃된 都市이다.

北韓當局은 北韓을 訪問하는 모든 사람들이 金日成동지의 위대한 業績에 感銘을 받고 있다고 그들 住民에게 말하고자 한다. 平壤市民들이 樂園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로 平壤과 平壤의 主要 구경거리를 찬양하기 위한 大衆媒體의 의도적인 宣傳의 結果이다. 北韓의 統治 엘리트들은 熟鍊된 조작가들이다. 實際로 그들은 人民들이 平壤이 地上의 樂園이며, 北韓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指導者를 가지고 있으며, 外國의 訪問客들이 北韓에 진실로 감명을 받는다고 믿게끔 하는데 成功해 온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成功의 한가지 理由는 大部分의 北韓 사람들이 自己나라를 評價할 수 있는 基準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現在의' 體制를 評價할 수 있는 유일한 方法은 어두웠던 지난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다.

“樂園의 都市” 平壤은 여러 區域으로 나뉘어 있다. 各 區域은 아파트, 學校, 病院, 商店, 食料品 가게들이 있는 自給自足할 수 있는 共同體이다. 商品을 사거나 醫師의 治療를 받기 위해 다른 區域으로 갈 必要가 없다. 住民들이 必要로 하는 것들은 모두 그들이 살고 있는 區域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다른 區域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形態의 商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平壤市民들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必要가 없다. 이것은 바로 에너지를 節約해 준다. 즉 實質적으로 차가 必要없다. 商店들은 아파트團地 1層에 位置하고 있다. 몇몇 가정주부들은 일하러 나가기 전에 飲食店에 그들의 저녁식사를 주문한다. 그들은 집으

로 돌아오는 길에 準備된 飲食을 가지고 오며 따라서 家族을 위해 식사를 準備하는데 다시 勞動을 할 必要가 없다.

平壤의 商店들은 얼마간의 商品이 있다. 사치스러운 商品은 찾을 수 없지만, 平壤市民들은 그들의 맹방인 蘇聯人이나 中國人들 보다는 잘 살고 있다고 믿는것 같다.

食糧이 各 個人에게 割當된다. 飲食값과 交通料金は 아주 싸다. 學校와 病院은 無料이며 住宅價格은 거의 무시할만 하다.

이러한 理由로 해서 北韓 사람들은 “北韓이 세계에서 生活하는데 많은 돈이 必要없는 유일한 國家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飲食과 아이들 教育費와 醫療費를 걱정할 必要가 없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北韓 사람들이 意味하는 樂園이다.

平壤의 樂園은 타임즈 廣場, 피카딜리 서커스나 트라팔가 廣場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 않다. 平壤에는 外國의 訪問客들을 맞는 바도, 나이트클럽도 레스토랑도 없다. 樂園은 그러한 “타락한 場所”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 않다. 더우기 外國의 訪問客들은 이 樂園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案内員에게 案内되어야만 한다.

案内員은 訪問客들과 함께 食事하며, 旅行하고, 소풍을 간다. 訪問客이 혼자 있는 유일한 時間은 午後 2時에서 5時사이(오수시간) 이거나 저녁때 休息을 취하는 때이다. 호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外國의 訪問客은 누구든지 發見되기만 하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警告를 받게 될 것이다.

勿論 平壤에도 外國人 訪問客들에게 보여 주는 몇개의 유명한 場所가 있다. 平壤을 訪問하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金日成의 出生地인

만경대에案内된다.

다음으로 나는 平壤地下鉄에案内되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본 가장 호화스러운 것이었다. 매우 질 좋은 화강암으로 建築된 平壤地下鉄은 의장이 화려한 샹델리에와 타일로 된 벽화로 장식되어 있다. 各 駅마다 北韓의 어떤 革命的 業績을 象徵하고 있다.

나에게는 地下鉄이 베르사이유궁전에 建設된 것 같았다.

北韓 사람들은 그와 같이 화려한 地下鉄이 뉴욕, 런던, 도쿄, 서울 그리고 다른 수도들에는 없다는 事實을 극도로 意識하고 있다. “이 화려한 地下鉄은 위대한 首領이. 朝鮮勞動者들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창광원은 北韓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外國人 訪問客들에게 보여 주는 休息處이다. 그 곳에는 클레이롤 헤어 스프레이를 使用하는 現代式 미용원, 이발소, 목욕탕, 사우나, 레크리에이션 및 運動施設, 國際競技를 하기에 充分한 수영장등이 있다. 하루에 수천명의 勞動者를 수용할 수 있는 창광원의 建物構造는 로마양식으로 建築되었다.

“위대한 首領과 그의 아들이 勞動階級인 人民들이 休息하고, 목욕하며, 運動할 수 있는 施設을 提供하기 위해 창광원 建設의 아이디어를 提示하셨다”라고 나는 들었다. 또한 그와 類似한 事業들이 北韓의 여러 地域에서 現在 進行中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창광원 入場은 無料가 아니다. 實際로 北韓 사람들의 生活水準에 비해서 入場料가 매우 비싸다.

나는 또한 學生少年 宮殿을 訪問했다. 北韓에서 어린아이들은 “나라의 보배”로 불린다. 궁전을 訪問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밴드에 의해 軍隊式으로 人事를 받는다. 궁전은 발레, 音樂, 자수,

美術, 조각, 體育에서 기체역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種類의 專門班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惠沢받은 어린이들이 “위대한 首領에 의해 提示된 革命 課業을 遂行하기 爲해” 徹底하게 訓練받고 있다. 한반에서는 어린이들이 朝鮮統一의 不可避함을 強調하는 간단한 쇼를 공연한다. 그 構成은 大略 다음과 같다. 어느날 위대한 首領이 北韓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어린이들은 선물을 가지고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訪問하러 갔다. 서울에 있는 할머니를 訪問하고 싶어하는 한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슬프게 묻는다. “왜 우리는 統一할 수 없을까?” 하고, 北韓의 모든 어린이들은 統一問題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北韓은 樂園이고 南韓은 美國의 植民地라고 믿도록 教育되고 있다.

平壤의 또 다른 主要 구경거리로 산원이라는 산부인과의원이 있다. 나의 說明 案内員은 女醫師였다. 그녀는 이 平壤産院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病院”이라고 說明했다. 그 病院은 정말로 아주 現代的인 施設과 裝備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중 大部分은 西歐에서 製造된 것이었다. 그 病院은 깨끗했다. 案内員은 “人民들이 그 病院을 마치 自身들의 것인것 처럼 돌보도록 教育받기 때문에 위대한 首領 아래서 社會主義가 움직인다”라고 말했다. 病院의 1層 바닥은 玉, 루비, 其他 보석으로 포장되어 있다. 約 350 名의 醫師가 있는데 그중 300 名이 女性이며 病院長 역시 女性이다. 1,500 個의 침상이 있으며 모든 奉仕는 無料이다.

北韓에서 모든 사람들은 두명의 醫師를 갖고 있는데 한사람은 마을에 속해 있으며 다른 한사람은 學校나 作業場에 속해 있다.

北韓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醫師들이 患者를 돌보러 온다. 이와 같은 나라가 또 있느냐?”라고 매우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매 300명마다 한명의 醫師가 있는데 그것은 풍요한 美国에서 보다는 높은 比率이다. 이러한 理由로 北韓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健康保護 保障을 격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首領에게 永遠히 感謝하고 있다.

北韓의 어린이들은 一般的으로 잘 돌보아 지고 있다.

政府는 어린이들에게 衣服, 食糧, 教育을 無料로 提供한다. 北韓의 어린 學生들은 “學費”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한 소년이 텔레비전 프로에서 “學費가 무엇입니까?”라고 선생님에게 質問했다. 그 선생님은 그 用語를 說明해 주기 위해 매우 애썼다.

北韓에서 保育施設을 쉽게 利用할 수 있음은 특히 注目할 만한 價値가 있다. 北韓에는 全國적으로 約 39,000個의 一日 또는 週託兒所가 있다.

勞働者인 어머니들이 週託兒所에 어린아이들을 맡긴후 週末에 그들을 데려간다. 어머니들은 自身들의 어려움을 위대한 首領이 경감해 준다고 感謝해 한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集團生活의 重要性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러한 託兒所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協同精神을 가르친다.

어린 아이들은 個人主義를 사악하고 야비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徹底하게 教育된다.

平壤에는 아름다운 建物로 지어진 “만수대 芸術劇場”이라고 불리는 劇場이 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멜리에와 강산의 아름다

음과 위대한 首領 金日成의 業績을 찬양하는 대형벽화로 장식된 화강암 建物이다. 밝게 장식된 로비는 그 劇場 自體보다 몇배나 크다. 이곳에서 나는 “樂園의 노래”라는 뮤지컬 쇼를 보았는데 그것은 人民의 日常生活 哲學과 삶의 目的을 묘사하고 그들의 위대한 首領에 대한 끊임없는 感謝를 表現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심각한 犯罪도, 마약 중독자도, 성적 학대자도 없다. 부유한 階層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生活의 부를 누린다.

영양실조의 어린이도 쇠약한 어린이도 없다. 가난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이 없다. 法律問題가 發生하지 않는다. 거지, 도둑, 부랑자, 무전기식자가 없기 때문에 호텔방문을 잠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平壤의 나의 招請者들은 말했다.

自負心에 찬 北韓 사람들은 적어도 韓半島의 北半部만은 모든 開發 途上國들이 열심히 따라 배워야하는 많은 長點을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國家로 變化되어 왔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위대한 首領이 地上에서 理想的인 國家를 創造하였기 때문에 매우 운이 좋다고 느끼고 있다.

이 樂園에서 그들은 안전감을 느끼는 것 같다. 平壤은 질서정연하여 目的이 있고, 個人的 관심사, 야만적인 경쟁, 광범위한 반대가 없는 것으로 두드러진다.

그들의 힘과 自負心の 원천은 個性이 喪失되는 것이 아니라 發見되는 것이라는 集團意識에서 나온다. 이러한 觀念은 진지한 北韓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다. 이것이 北韓 사람들이 意味하는 “하나를 全體를 爲하여, 全體는 하나를 爲하여”인 것이다. 그들은 위대한 삶은 한둘의 부유한 個人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自身들의

歴史的 使命을 알고 있는 數百萬 勞働者들의 鬪爭으로 創造된다고 말하고 있다.

北韓사람들은 地上의 樂園을 創造하기 爲해서는

植民地 근성을 뿌리뽑아야 한다.

自立工業經濟를 建設한다.

革命意識을 과시한다.

신심, 자부심, 헌신, 정력을 發揮한다.

自己의 立場을 자랑하는 階級意識이 透徹한 人間을 創造한다.

政治意識을 鼓吹한다.

科學知識을 普及한다.

외국압제자에게 抵抗한다.

勞働者와 農民을 尊重해야 한다.

家族과 國家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슬로건들은 위대한 首領 金日成의 가르침에 献身해야 함을 意味하고 있다. “당신이 위대한 首領 金日成의 가르침에 헌신한다면 당신은 自由롭게 될 것이다. 만약 그의 가르침에서 이탈한다면 당신은 또 다시 노예상태가 될 것이다.” 金日成의 “불멸의” 主體思想은 北韓의 一般醫師로 간주되고 있다. 北韓 사람들은 歷史는 그들의 편에 서 있다고 확고히 믿고 있다. “퇴폐적이고 비도덕적인 西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나의 案内員은 西歐文明은 사멸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 한 예로서 그는 北韓의 몇몇 責任있는 勞働者들에게 포르노 映畵를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公式的인 反應은 “西歐는 運이 다했다. 만약 내가 그곳에서 그와 같은 외설映畵를 보여 주는 사람을 목격한다면, 나는 그를 죽이고 映畵館을 불태울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위대한 首領 : 韓半島 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의 守護者

北韓 人民의 눈에는 金日成이 全世界에서 가장 위대한 指導者이다. 위대한 首領에 대한 과장된 칭송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程度이다. 金日成의 동상이 平壤의 革命博物館 앞에 6피트가 넘게 우뚝 서 있다.

1,900萬 北韓 사람들의 “敬愛하는 首領”은 보통사람보다 열배나 큰 것이다. 北韓이 바로 金日成이다.

아마 世界의 어느 곳에서도 北韓 社會에서 처럼 한 人間의 個人的 經驗과 가르침이 全 國民의 記憶속에 자리잡은 社會는 없을 것이다. 1945年 以後의 北韓의 歷史는 金日成의 歷史이다. 그는 37年 동안 繼續해서 北韓政治의 場의 中心에 자리잡고 있다. 金日成의 초상화가 모든 施設物을 장식하고 있다. 그가 섰거나 앉았던 場所는 곧 民族의 성지가 된다. 그의 말은 思想을 불어 넣으며 크고 붉은 한글로 벽, 지붕꼭대기, 바위, 산 등 全國에 장식된다. 北韓 사람들의 눈에는 金日成은 하나의 象徴이며 친구이고 살아 있는 영감이다. 그가 어떠한 方法을 使用하던 간에 그는 全人民을 하나의 政治單位로 결속해 온 것 같다.

내가 北韓訪問中에 받은 가장 強力한 印象은 劃一性和 同質性이었다. 勿論 大衆媒體에 對한 黨의 獨점은 北韓全域에서 對하는 슬로건과 견해의 劃一性을 說明해 준다. 그러나 金日成의 政治 스타일도 그에 못 지않게 重要한 要因이다.

그는 믿을 수 없을 程度로 숨쉬었게 北韓 住民들의 共通된 추억을 조작하여 自身을 大衆과 결부시키는 能力을 實際的으로 보여 왔다.

이러한 추억들도 함께 살고 고통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1930年代와 1940年代에 日本에 대항해서 싸운 金日成의 鬪爭과 韓國戰爭 동안과 그 以後 美國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의 鬪爭은 單純하게 그의 個人的인 鬪爭으로 생각되지 않고 있다.

北韓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金日成 個人的 人生史와 人民大衆의 그것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다. 金日成이 人民大衆을 체현하며 역으로 人民大衆은 金日成을 체현한다. 나의 호스트가 되풀이 해서 말한 것처럼 “金日成과 人民大衆은 完全히 同一하다” 過去와 現在에 對한 北韓住民들의 추억은 金日成 個人的 추억과 完全히 同一하기 때문에 金日成에 對한 모욕은 모든 北韓住民들에 對한 모욕으로 간주된다.

만약 마키아벨리가 現時代의 世界指導者들을 그들의 國民들과의 親密關係에 따라 等級을 매길 수 있다면 金日成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것이다.

韓半島 悲劇의 原因으로서의 美國

韓半島는 왜 分斷되었는가?

나는 여러 北韓의 젊은이들에게 이 質問을 했다. 예외없이 그들은 “美國”놈 때문이라고 對答했다.

北韓의 모든 階層의 사람들은 美國이 韓半島 悲劇의 原因이라고 믿고 있다. 北韓 사람들은 모든 問題는 그것의 本質的 原因에 비추어 理解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原因이 밝혀졌을때 그것을 除去하기 爲하여 可能한 모든 措置를 취해야만 한다. 여기에 北韓과 美國사이의 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의 重要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北韓

은 問題의 原因을 完全히 除去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反面 美國은 結果를 統制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人들은 韓半島의 分斷을 기정의 事實로 간주하고 거기에서부터 問題를 解決하려고 한다. 北韓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分斷의 原因을 없애기 위해 努力해 오고 있다.

北韓 사람들에게는 韓半島 分斷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2次大戰 끝무렵에 美國人들이 韓國을 植民地로 만들기 爲해 왔다.

그러나 金日成 덕택에 美國은 全 韓半島를 植民地化할 수 없었다. 즉 적어도 韓半島의 北部만은 自由롭게 解放되었다. 南韓에서는 美國人들이 모든 民族主義者들을 除去하였으며 서울에 이승만이 이끄는 괴뢰정권을 세웠다. 1950年 6月 존 포스터 델레스가 北韓을 侵略하기 爲한 秘密計劃의 協商을 爲해 서울에 왔다고 北韓 사람들은 주장한다. 北韓 사람들에 따르면 델레스는 이승만에게 北韓을 攻擊하라고 命命했으며, 유엔의 이름 아래 增원군을 보내 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몇 주일 동안 初期의 패배의 고통을 당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델레스는 이승만에게 만약 計劃이 成功한다면 全世界는 北韓이 南韓을 攻擊했다고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國은 北韓을 응징하기 爲해 유엔을 利用할 것이며 그러면 韓半島는 이승만의 영도하에 統一될 것이다.

平壤의 戰爭博物館에서 案内員은 이러한 점을 내게 확신시키려고 애썼다. 내가 아무런 印象도 받지 못했음을 깨닫고 나의 案内員은 “현명한 사람들은 戰爭의 原因을 금방 理解한다”라고 반박하였다.

그는 1960年에 이승만 괴뢰정권은 大衆暴動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繼續 이야기 했다.

그일에 놀란 美国은 곧 또다른 傀儡指導者로서 軍人인 朴正熙를 자리에 앉혔다. “매국노” 朴正熙는 1979年 10月 26日 그 自身の 韓國中央情報部長 金載圭에 依해 살해 되었다. 당황한 美国은 서둘러서 또 다른 軍部 指導者인 ×××을 朴正熙의 자리에 앉혔다.

어린 學生들과 말을 하던, 責任 있는 官吏들과 말을 하던간에 그들은 모두 어떻게 美国이 南韓을 植民地化 하였는가를 똑같이 말한다.

그것이 말하려는 바는 分明하다. 美国이 韓國에 머물러 있는 한 北韓은 緊張을 풀수가 없다는 것이다. 北韓 사람들은 美軍이 南韓을 保護하기 爲해 南韓에 주둔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 代身에 궁극적으로 全韓半島를 植民地化하고 정복하려 한다고 믿는 것이다. 北韓 사람들은 1866年 美国戰艦 제너럴 셔먼호가 韓國領海에 침범한 事件으로부터 始作된 “美帝國主義”對 韓民族의 100年間の 鬭爭 歷史를 공부하고 있다.

그들은 제너럴 셔먼호로부터 1968年 北韓領海를 침범한 푸에블로호 事件에 이르기까지를 하나의 연속으로 보고 있다.

最近 韓國史에 對한 北韓의 極히 單純化된 견해에 의하면 美国은 1945年 日本의 항복으로 韓半島에 생긴 공간을 메꾸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다. 北韓 사람들은 韓國動亂時에 南韓은 重要的 役割을 하지 못했다고 主張한다. “南韓은 단지 戰爭을 목격했을 뿐이다. 傀儡政權은 實際 參與者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상건의 命令에 따랐다. 戰爭은 美国과 北韓사이에 치루어졌다” 이것이 아직까지 實現되지 않은 北韓과 美国間의 對話에서 南韓을 排除하려는 理論的 根拠中の 하나이다.

이 論理는 愛國的인 北韓 사람들만이 “美帝國主義”에 對항하여 신성

한 戰爭을 遂行했으며 南韓 사람들은 美國에 協力한 몇몇 “괴뢰들”을 除外하고는 戰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未解決의 戰爭問題는 美國과 北韓사이의 問題라는 것이다.

이러한 解釋으로써 北韓 사람들이 正確히 누구를 오토하려고 애쓰는 지는 分明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韓國戰爭을 說明하는 方法이기 때문에, 그들은 南北韓間에 어떤 實質的인 對話가 있기전에 根本的인 問題가 解決되어야만 한다고 主張한다.

나는 이 問題에 對하여 平壤의 나의 招請者들과 많은 討論을 가졌다. 北韓의 統一에 對한 接近法은 그 原因을 除去하는 외곽적인 方法과 一致한다.

이제까지 北韓은 漸進的, 革新的, 段階的 또는 試驗的 接近法의 유용성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根本問題”우선이라고 主張해 왔다.

北韓은 統一을 성취하기 爲해서는 우선 南韓이 서울의 “과시스트” 政權을 除去해야만 하며 “民族主義的 民主主義” 政權을 세워야 하고, 둘째로, 반공정책이 中止되어야 하고 셋째로 外國(例: 美國) 軍隊가 韓國땅에서 철수해야만 한다고 主張한다. 이러한 세가지 條件들은 北韓의 소위 연방제안의 前提條件들이다. 平壤에서 나의 호스트들은 “最近의 聯邦制案은 南韓과 北韓의 따로 떨어진 두 體制의 保全을 保障할 것이기 때문에 北韓에 依한 重要한 양보이다”라고 말했다.

北韓 사람들의 사고를 변경시키는 方式은 믿을 수 없을 程度로 單純하다. 北韓體制에 위협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除去될 때까지는 어떠한 妥協도 소용없는 것이다.

北韓사람들은 “美軍과 反共政權이 南韓에 存在하는 한 南北韓間에 不可侵協定이 締結된다면 무엇이 좋은가? 根本的인 問題의 解決을 爲해

本格的으로 착수하지 않는 어떠한 漸進的 내지는 改革的 措置도 쓸모 없는 時間浪費이다"라고 主張한다.

北韓은 南韓을 危險한 程度로 왜곡되게 認識하고 있는데, "民族的 良心 이 있는 모든 南韓 사람들은 外國軍隊가 韓國에서 철수하기 원할 것이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 내가 平壤을 떠나기전 어느날, 한 상당한 고위급의 관리가 나를 訪問하여 "統一은 민족감정을 통해 성취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南韓에서는 대다수의 國民들이 民族的 良心을 가지고 있으며 現 政權을 支持하지 않는다. 그들은 형벌이 두려워서 現 政權을 支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現 政權에 대한 어떠한 支持도 진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北韓은 南韓을 잘못 理解하고 있는데 그것은 部分的으로는 파시즘, 統一, 民族主義, 民主主義, 獨立, 社會正義와 같은 用語들이 南北韓에서 公히 使用되지만 그뜻은 南北韓이 똑같지 않는것 때문이다.

北韓 사람들은 또한 南韓의 統一提議들을 아주 잘못 理解하고 있다. 그들은 왜 南韓이 平和共存을 要求하는 平和案을 主張하는지를 理解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 案을 韓半島의 分斷을 永久化하려는 計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反面에 南韓은 北韓의 統一案은 과장하기 위한 完곡한 表現 내지는 南韓을 共產化하기 爲한 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대적인 見解는 南北韓間에 1945年 以來의 상이한 經驗에서 나오는 것이다. 南韓의 論理는 1950年 6月 25日의 北韓의 侵略에 對한 反발에 뿌리를 두고 있다.

北韓의 論理는 2次大戰이 끝날무렵 以來의 그의 좌절된 統一努力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쓰라린 同族相殘의 戰爭을 經險한 南韓 사람

들이 統一의 論理보다는 平和의 論理를 더 重要視하는 것은 當然하다. 反面에 北韓 사람들은 繼續하여 統一의 論理라는 側面에서 생각하는데, 그것은 만약 그들의 計劃대로 성취된다면 그들의 生存을 威脅하는 問題들을 除去할 것이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韓半島에서의 南北對話는 귀머거리의 對話가 되어 왔다. 兩側은 서로 다른 問題들을 얘기해 왔다. 우리는 南韓의 立場을 論理 I 로, 北韓의 立場을 論理 II 로 부를 수 있다.

論理 I : 先平和, 後統一

南北韓 國民들간의 信賴回復이 가장 急선무이다.

韓國의 北韓에 對한 불신은 1950年의 戰爭, 셀수 없는 무장도발, 비무장지대 내의 터널, 맑스·레닌주의 哲學에 基礎한 北韓政權의 存在 등에서 나오는 것이다. 北韓은 무모한 宣傳策動에 몰두해 있는 민족반역자와 戰爭 犯罪者集團이 통치하고 있다. 소박한 國民들만이 北韓 共產主義者들에게 속고 있다.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항상 平和, 타협, 對話를 떠벌리지만 韓國은 그것들이 극히 危險한 책략임을 認識해야만 한다. 北韓은 韓國에서의 美軍撤収, 韓國의 軍兵力을 10萬以下로 減小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要求들은 韓國의 國防能力을 잠식하려는 것이다. 北韓의 궁극적인 目的은 韓國의 무장을 해제, 攻擊하여 暴力으로 韓半島를 統一하려는 것이다.

소위 연방제안은 韓國政權을 전복, 韓國에 용공정권을 세워서 北韓과 합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計劃이다.

北韓은 韓國에 美軍이 주둔하는 것에 對한 責任이 있다.

韓國의 가장 큰 관심사는 統一이 아니라 平和이다. 韓國의 国力이 北韓 共產主義者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해야만 平和가 保障될 수 있다.

건실한 經濟와 자위능력을 가진 強力한 軍隊를 保有한 現代化된 先進國家로서의 韓國은 民族統一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論理 I 과 並行하여 韓國은 北韓側에 南北韓間에 불가침협정 締結을 提議했다. 韓國은 또한 南北韓의 同時 유엔加入을 提議했다.

韓國은 民間 經濟協力委員會의 創設을 提議했다. 가장 最近에 韓國은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間의 交換訪問을 提議했다.

論理 II : 統一의 艱박함

모든 진실한 朝鮮의 愛國者들은 朝鮮이 日本 帝國主義者들에 의해 36年間 착취·학대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日本 占領으로부터 朝鮮을 解放하기 위해 그들의 生命을 바쳤다.

南韓이 美國과 日本의 軍事 및 經濟的 利益때문에 여전히 이들의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南韓은 아직도 여전히 解放되지 않았다.

南韓에는 아직도 売國的 反民族的 指導體制가 存在하고 있다.

南韓의 指導體制는 이제까지 民族的 良心이라고는 거의 없는 아첨꾼으로 構成되어 왔다. 그들은 거의 40年동안 그들의 지배자인 美國과 日本의 命令에 充實히 복종해 왔다.

진실한 愛國者는 - 自身の 運命, 解放 및 自由를 獨自的으로 解決하는 者 - 美國과 日本의 支配가 持續되는 것을 원할 수 없다.

分斷 韓半島의 現狀을 解決치 않고 버려두는 것은 永遠한 分斷을 초래한다. 現狀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分裂政策을 추구한다. 民族的良心을 가진 韓國民은 自主, 中立, 非同盟의 原則을 고수하고, 어떠한 他國의 위성국이 되는 것도 반대해야 한다. 南韓에서 軍사과쇼통치가 除去되고, 民主政府가 樹立되며, 美軍이 撤収되는 것이 艱박하다. 역시 緊張을 解消하고 새로운 衝突의 危險을 除去하기 爲해서 北韓은 美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해야 한다.

이들 相互 容納될 수 없는 論理는 교착상태를 가져 왔다. 協力を 기대할 수 없는 對話의 단절이라는 狀況만이 存在한다.

北韓의 공격심리

1981年 南·北韓을 訪問하고 나는 양쪽이 서로 심각한 상호불신을 하고 있다는 비참한 느낌을 받았다. 양쪽 모두 公式的인 見解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로 攻撃하고 있다. 양쪽 모두 相對方이 外國의 괴뢰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은 양쪽 모두 또 다른 戰爭을 원치 않으며, 반역자에 의해 통치되지 않고 있으며 外國의 괴뢰도 아닌 것이다.

이 單純한 진실은 3,800萬 韓國民과 1,900萬 北韓住民들에 依해 멀어지지 않고 있다.

美國의 支配的인 北韓觀은 극단적이고 主觀的이며, 北韓이 드러내 놓고 있는 어떠한 事實과도 많이 다르다.

美国의 北韓觀은 北韓이 무력으로 統一을 遂行할 수 있는 軍事力을 增大하는 것이라는 確信에 根拠를 두고 있다. 지금 까지 워싱턴과 서울의 官리들은 끊임없는 왜곡과 과장, 그리고 北韓의 計劃的인 非人間化에 依해 影響을 받아 왔다. 美国은 中共에 對해 잔악한 印象을 가졌었다. 그 印象은 確實히 왜곡 되었고 美国의 現實的인 中共政策을 立案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中·蘇紛爭과 월남전으로 말미암아 美国의 中공인상이 바로 잡혔다. 美国은 모택동을 오판한 것처럼, 金日成의 의도를 오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北韓은 南韓 과괴에 열중하고 있는 악마의 나라인가?

大部分의 北韓觀察者들은 그렇다고 對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北韓은 이웃 韓國 및 美国·日本과 같은 다른 國家들에 어떻게 對處해야 할지 몰라 많은 軍事費를 支出하는 가련하고 겁먹은 작은 國家인가?

北韓은 自信과 용기를 가지고 好戰的인 行動을 한다. 또 한편 北韓은 그들의 비자주성의 허약함을 고통스럽게 알고 있다.

北韓은 무서운 약탈자-용·곰·독수리로 포위된 연약한 새우리로 비교될 수 있다.

이 작은 社會主義의 우리(巢)는 이들 상위짐승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北韓에 있는 동안 내가 가장 강렬히 느꼈던 것은 北韓은 극도로 不安定하고 國家로서의 生存을 위해 필사적으로 努力하는 것 같았다. 北韓의 不安感은 편집병적이나 危險한 호전성향에서 나타난다.

美国은 北韓官吏의 저술과 發表를 단순한 宣傳으로 간주, 자주 일축하였다. 우리는 적의 世界에 민감한 反應을 보일 必要를 느끼지 않

았다. 동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立場에 서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다음 狀況을 가정하여 그것이 南韓의 安定에 對한 壓力에 어떠한 影響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 北韓의 人口가 南韓의 두배이다. GNP는 南韓보다 3 내지 4 배가 크다. 約 30,000 名의 蘇聯이나 中共軍이 DMZ 가까이 配置하고 있다. 約 800-個의 蘇聯 또는 中共의 핵탄두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 北韓軍은 월남에서 戰鬪經驗을 갖고 있다. 게다가 北韓은 經濟的·軍事的으로 強力한 두개의 鎊을 만한 同盟을 가지고 있다.

勿論 現實은 그 반대다. 세개의 적대세력(韓國, 日本 및 美国)과 두개의 鎊을 수 없는 同盟(蘇聯과 中共)에 둘러 쌓여 있어, 北韓은 공격심리를 增大시켜 왔다. 北韓의 生存에 對한 강박관념은 自主的 軍事的 슬로건과 好戰的 行爲로 바뀐다. 外部世界에 對한 무지, 소위 帝國主義 國家 및 中共·蘇聯(北韓은 이들 國家의 스파이를 警告한다)에 對한 공포 및 自身의 저개발을 認識하면서 北韓은 모든 핸디캡에 對항, 자신을 방어하고 外部世界의 많은 도움없이 經濟를 建設하는 가장 어려운 課業을 遂行해 왔다. 北韓의 극단적인 民族主義는 自體의 不安感을 証明하는 것이다.

서울의 소위 파시스트政權은 民族的 良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外勢의 괴뢰라고 規定하는 그들의 독특한 認識때문에 北韓의 南韓에 對한 두려움은 事實이라고 나는 침언하고 싶다.

그와 같은 야수가 DMZ로부터 30 마일 程度 떨어져 있다는 事實은 北韓에겐 심각한 것이다. 그들은 南韓政權은 美国防省으로부터 命命을 받고 있다고 확신한다. 北韓은 美国이 日本과 協力하여 北韓을 攻

擊하기 爲한 命命을 서울의 그의 傀儡에게 할지도 모른다는 惡夢을
꾸고 있다.

美國과 北韓이 각자 相對方에 가지는 이 見解 - 相對方은 악마의
화신임 - 는 兩者 사이의 적대감을 화해시키지 않는 悲劇的인 外交政策
의 結果를 招來해 왔다.

北韓은 不安定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다. 北韓의 對南 및 海外에서의
韓國民族主義의 끊임없는 호소는 이제까지 아무런 결실도 가져오지 못
했다. 南韓은 더욱 軍事的으로 共產主義에 對抗하여 왔고, 軍事的으로
나 經濟的으로 더욱 強해지고 있다. 駐韓美軍은 거의 定着化된 것
같다. 이러한 發展은 北韓에게는 무서운 타격이 되어 왔다.

좌절감과 결핍감정은 美軍 도끼만행사건, 外交的 衝突, 美軍 첩보기
격추 등에서 나타났다. 北韓이 하려고 한 것과 실제 획득한 것과의
격차가 너무 커서 全體的인 좌절감은 美帝國主義와 南韓傀儡에 反對
하여 지나치게 강렬한 民族主義 運動에서 자주 나타난다.

北韓旅行을 通해, 北韓이 韓半島統一이 진박하다고 하지만, 北韓體制의
存在보다는 그들에게 덜 重要하다는 것을 나는 역시 알았다.

美國과 韓國은 韓國이 北韓보다 더욱 유리한 位置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北韓과의 關係를 再檢討해야 하고 相對方에 대
한 판에 박힌 이미지는 끝없는 왜곡, 과장, 비인간화를 增大시키면서
相對方으로 하여금 유사한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욱 나쁜 것은 한쪽이 繼續해서 진부한 이미지를 繼續 갖고 있는 다
면, 그것은 그 豫測대로 達成되는 메카니즘이 됨으로써 事實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1945年 韓半島가 分斷된후, 적어도 1,000萬 韓国人들은 그들 家族과 이산했다. 그들은 다시는 서로 보지 못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南·北韓 兩側을 볼 機會를 가진 소수의 幸福한 韓国人 中の 하나이다. 1981年 여름 旅行에서 내가 알게된 것이 있다면 兩側다 또 한번의 戰爭을 원치않는다는 事實이다.

平壤에서 나는 나의 초대자들에게 美軍과 韓國軍은 攻擊軍이 아니고 수비군이라고 얘기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兩側은 서로 相對方을 화해할 수 없는 적으로 繼續 생각한다.

兩側다 모두 두려움과 증오에 불타있다. 나는 南北韓 數百萬의 國民들이 서로 訪問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그들이 서로 訪問한다면, 兩側 다 또 한번의 同族相殘의 戰爭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重要한 것은 兩側 다 相對方을 악마로 보는 성향을 고쳐야 한다. 절대로 必要한 것은 兩側이 서로 동감을 가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兩側은 相對方을 오판하는데 최대의 머리를 짜냈다.

北韓은 韓國을 그들의 “主體”라는 거울을 통해 보건데 韓國의 現實은 完全히 主體性이 喪失해 있다고 생각해 왔다. 마찬가지로 北韓의 現實은 韓國에서 喪失해 있다.

만약 兩側 다 로버트 케네디의 “쿠바미사일 위기의 최종적인 교훈은 兩者가 相對方의 立場에서 본다는 重要性이다”라는 말을 理解 한다면 南·北韓에도 약간의 希望은 있는 것이다.

結論적으로 나는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為한 서울과 워싱턴의 政策 決定者들에 依해서 이 提案이 檢討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提案을 하고 싶다.

우리는 北韓의 유일한 目標가 南韓을 共產化한다는 美國의 公式的

인 見解를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 호전적이라는 北韓에 대한 直接的인 調査없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는 존재자체의 강박관념을 가지는 北韓의 惡夢에 민감한 反應을 가질 必要가 있다.

우리는 北韓의 内部狀況을 더욱 正確하게 評價할 必要가 있다. 最近에 平壤旅行者의 數가 增大함에 따라, 北韓에 對한 情報가 增大하고 있다. 勞動新聞이나 平壤放送의 미사려구를 通해서는 直接的인 情報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確실하다. 最近 北韓을 訪問한 사람들의 얘기는 1970年 初半 以後로 北韓의 重要한 争点은 평화로운 建設에 있다는 것이다.

만약 北韓이 이것에 더욱 集中하고 있다면, 그 社會를 再評價할 時期가 될것 같다. 北韓은 미사려구에도 不拘하고, 經濟的으로 南韓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金日成이 “우리는 모든 部門에서 南韓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다고 말한 것이 報道되었다. 北韓旅行을 通해 나의 印象은 이러한 의문을 確認해 주었다. 내가 만났던 北韓人들은 外部問題 보다는도 戰後 그들 國家가 어떻게 재건되었는가에 대해 더 많이 얘기했다. 그들은 食糧의 自給自足, 新아파트團地, 消費材의 質向上, 海外로부터 技術導入, 궁극적인 北韓의 社會主義 樂園建設에 關係해서 얘기했다.

北韓訪問者들은 北韓이 南韓에서 또 한번 同族相殘의 戰爭冒險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印象을 가지지 않았다. 北韓은 國防費 支出 負擔에 對해서 한탄했다. 그들은 勞動力 不足을 걱정한다. 그들은 항상 그들 나라의 都市, 村落, 産業 및 農業地帶를 파괴한 戰爭을 記憶하고 있다.

우리는 美國에게 北韓의 眞상을 보일 必要가 있다. 비록 그것이 어린

에 같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北韓의 美國과의 接觸은 現實論的인 政策을 樹立케 할 것이고, 이러한 現實論은 美國뿐 아니라 韓國에게 궁극적으로 利益을 주는 것인지 모른다. 美國과 蘇聯이 定期的으로 接觸했음에도 不拘하고 美·蘇關係가 向上되지 않았다고 종종 말한다. 그러나 美·蘇關係는 만약 美·蘇間 對話가 없었더라면 더욱 惡化되었을지도 모른다. 美國을 定期的으로 訪問하는 蘇聯學者나 저널리스트들은 스탈린時代 보다는 더욱 美國을 細密하고 正確하게 보고 있다. 北韓도 그들 自身の Georgi Arbatovs 이 必要하다. 그들은 南韓이 美國과 日本에 의한 北韓攻擊의 교두보라는 두려움 -이것으로 北韓의 軍事的 行動을 理解할 수 있음- 을 누그러뜨릴 必要가 있다. 南·北韓의 相對方에 대해 가지는 認識을 改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兩側이 相對方을 여러각도에서 檢討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敵을 이긴다는 것은 相對方에게 精神的으로 -国力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나, 繼統的이고 고질적인 불신은 없어져야 한다. 특히 독선적인 수십년의 정치성향의 산물인 北韓은 外部世界에 대해서 繼統적으로 편협하고 경직되고 무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韓半島에 관한 情報를 늘리면서, 變化된 狀況에서 豫想되는 새로운 事件에 심리적으로 適應하는 姿勢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6천만 韓國民과 다수의 美國人들에게 그렇게 많이 損失을 주었던 신화 (mythology) 를 벗어나야 한다. 南韓에는 最善이고, 北韓에는 最惡이라고 생각한 美國政策은 바람직한 結果를 가져 오지 못했다. 이러한 事實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方向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러한 신화 (mythology) 는 南韓社會의 軍國化를 招來하였고, 반대로 南韓의 政治活動의 質을 저하시켰다.

南韓의 防衛力 增大와 美國의 南韓에로의 繼統的인 現代武器의 供給은 韓國人에게 安定感을 주지 못했다. 緊張의 激化는 韓國과 美國 모두에게 해롭다. 内部損失을 감수하고 외부방어를 構築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美國은 世界指導者에게 어울리는 態度로 한쪽에서 보더라도 南·北韓 양쪽에서 信賴感과 존경을 획득해야 한다. 北韓은 美國의 門을 노크하여 왔었다. 만약 美國이 南·北韓의 戰爭을 원하지 않으며, 北韓이 美國과 마찬가지로 蘇聯의 팽창주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韓半島에 對한 새로운 政策이 可能하다. 相互理解에 초점을 두고 美國에 依해서 조심스럽게 推進되었던 對話는 韓國과 美國에 損害될 리가 없다.

나아가서 韓國으로 하여금 그들에 對한 認識을 바꾸려는 努力은 美國과 韓國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現在의 냉전을 持續하는 것은 北韓으로 하여금 무모한 國際的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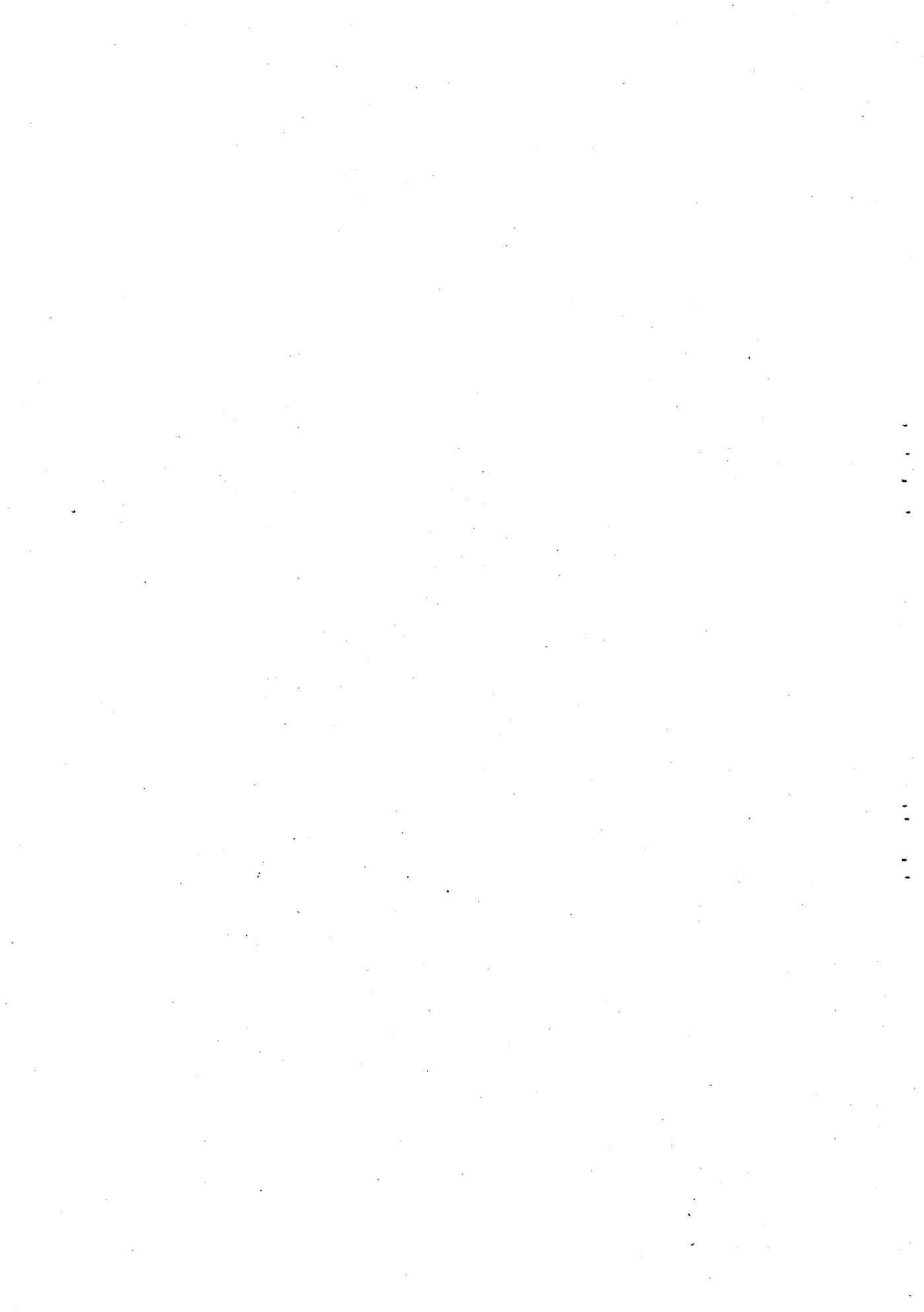
美國은 北韓에대한 一次的 관심은 安定이며, 北韓은 統一問題 조차도 그들의 安定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北韓은 하나의 韓國이라는 신화가 存在하는 한 두개의 韓國을 받아들일 準備가 되어 있다고 나는 믿는다.

美國과 北韓의 對話는 美國의 南韓에 對한 公약을 損傷시키지 않는다.

하버드大學의 Roger Fisher가 말한 것처럼, 적과 협상하는 것이 약함의 表示가 아니다.

對話를 단절하는 것은 美國이 北韓의 行動에 影響을 줄 수 있는 機會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 北韓과 協商하는 것은 北韓의 哲學

과 行爲를 認定하는 것이 아니다. Fisher의 말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協商側은 먼저 立場을 決定하고 論議해서는 안되며, 이해 관심사를 協議하고, 方案을 提示하고 그리고 後에 決定해야 한다.



韓半島 統一問題 :

北韓의 政策과 認識

(길 영 환)

- 現在 아이오와州立大學 政治學教授
- 그의 研究論文은 다음과 같은 著書 및 定期刊行物에 收錄되어 있음.

Political parties and Linkages, ed. Kay Lawson
(Yale University Press, 1980).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ed. C.L. Kim
(ABC-Clio, 1980).

Problems of Communism (Sept.-Oct. 1981).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Oct. 1981).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981).

Korea and World Affairs (Fall 1981, Spring 1982).

Current History (April, 1982).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June 1982).



한반도통일문제는 南·北韓 양국의 政治問題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들중의 하나이다. 이 글은 美國에서 온 우리 여섯 學者들과 北韓의 官吏 및 統一問題 專門家들과 가졌던 討議에 관한 나의 인상담이다.

먼저 한반도통일에 관한 평양의 政策과 立場을 소개한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包含하여 北韓이 主張하는 提案들을 論議할려고 한다.

끝으로 南·北韓關係의 現狀과 전망에 관해 나의 見解를 밝히고자 한다.

평양에 있는동안, 우리는 북한관리들 및 韓半島 統一問題研究에 종사하고 있는 學者들과 여러차례 討議을 했다. 이들중 일부분은 北韓의 統一政策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관문점 및 기타 지역에서 開催된 南北對話 및 協商會議에 參加하였다.

I. 北韓의 統一政策 解說

北韓은 그들이 내린 한반도통일의 3大原則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1972年 7月 4日 南北共同聲明때 처음 提示된 3大原則에 나타난바, 韓半島統一은

- (1) 外部의 간섭없이 自主的인 努力
- (2) 相互 武力을 使用치 않고 平和的인 手段
- (3) 思想, 理念 및 制度의 差異를 초월한 民族的 대단결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平壤에서 開催된 討論會中 하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멤버이며 사회과학실장인 전금철과 가졌다.

그는 박식하였으며 南·北韓關係의 細部的인 일을 擔當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김일성대학을 卒業했고, 法律教育을 받았으며, 南北對話의 北韓代表團의 한사람으로서 參加했었다는 事實을 알았다. 그는 3時間의 긴 發表를 “韓半島 統一問題를 정의하기 위한 基本的인 問題”로 시작하였다.

세가지 전제조건

전금철은 북한의 統一政策에 관해서 (1) 韓國分斷의 유래 (2) 韓民族의 歷史的 背景 및 民族 主体性 (3) 統一後 韓國의 力量과 潛在能力등을 包含한 한반도 통일문제에 關聯된 基本的인 要素들을 먼저 檢討하여야 한다고 그의 見解를 밝혔다. 이들 요소에 관한 正確한 조명없는 統一問題 分析은 歪曲되기 쉬우며 또한 形式的인 論爭에 불과하다고 그는 主張했다.

전금철은 韓半島 分斷은 外部勢力에 의해 강요 되었으며, 한민족은 이 悲劇의 歷史的 과오의 結果에 대해서 責任이 없으며, 분단은 永久化되어서는 안된다고 主張했다. 그에 의하면 한반도 분단은 일본식민지 지배로부터 解放이 될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면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경우는 分斷獨逸의 境遇와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패전국으로서의 독일국민은 그들의 侵略의 代價를 支払해야 했지만, 한민족은 아무 죄없이 강대세력의 競争과 야망에 의해 희생이 되었던 것이다.

統一問題 論議에 있어서 한민족의 역사적 배경과 民族 主体性도 역시 중요하다고 전금철은 主張했다. 한민족은 19世紀에 國家統一을 한 독일국민과는 달리 1,300餘年 以上 統一國家로서 存續해 왔다. 이 사

실 하나만으로도 現在의 獨逸國民보다 더욱 統一에 관한 所望과 熱望이 강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전금철은 위대한 國家로 등장한 統一祖國의 可能性이라는 論題로 發展시켰다. 한민족은 진실로 위대한 國家가 될 能力과 可能性이 있다고 그는 說明했다. 그러나 통일조국은, 통일독일이 유럽의 隣接國에 行한 것과는 달리, 東아시아의 주변국가들에 위협적인 存在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와 독일의 差異를 설명하면서, 전금철은 한반도 통일문제의 解決은 1970年代 南韓의 學者와 政策立案者들 사이에 한때 유행했던 東西獨 方式이 永久히 分離된 두개의 政體간의 相互共存 및 相互作用만을 圖謀한다는 點을 指摘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일단 한반도 통일문제의 本質과 背景이 分明해지면, 韓半島 統一問題는 民族主義者들의 問題이며, 또한 그렇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그는 主張했다. 統一問題는 階級鬭爭이나 社會的 鬭爭으로 接近되어 저서는 안된다. 그는 한반도 통일문제는 한민족의 內部問題이며, 韓半島 統一推進에 있어서 外勢의 간섭이나 參與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번 상기시켰다. 또한 그는 한반도 통일은 地域的 統合뿐 아니라 한민족의 主權을 必要로 한다는 것을 分明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통일의 目的은 한민족이 政治的 自主權을 행사하고 經濟的 繁榮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전금철과의 모임 외에 우리 그룹은 北韓의 統一問題 專門家팀과 討論會를 가졌다. 평양출발 數日前, 우리는 1980年 10月 朝鮮勞動黨 第6次大會前에 完成한 2.8 문화회관 넓은 応接室에 案内 되었다. 이 모임에는 우리측 6名과 北韓側 6名이 參席했다. 出發 하루 前, 우리는 金日成廣場 附近에 있는 장충한 副首相事務室에서 정준기를 만났다.

우리는 統一問題를 위시한 廣範圍한 問題에 대해서 그와 意見交換을 가졌다. 여기서 우리는 北韓의 統一問題에 관한 꽤 포괄적이고 公式的인 見解를 充分히 獲得하였다.

1981年度の 北韓의 統一에 대한 立場

1981年 7月 當時 北韓의 統一政策은 무엇인가?

우리그룹은 평양의 韓半島 統一에 대한 基本立場이 자주, 민주, 평화의 3大原則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 原則은, 1972年 7月 4日 南·北共同 聲明時 發表한 3大原則과 거의 類似하지만, 杼軸스와 力點에 있어서 약간 差異가 있다. 自主的인 統一이란 統一은 外勢에 依存함이 없이 韓民族 스스로의 努力으로 達成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見地에서 北韓의 初期의 立場과 差異點이 없다. 北韓은 韓半島 統一은 한 민족 内部의 問題이며, 한민족은 스스로의 努力으로 統一을 完遂할 수 있는 能力과 각오가 돼 있다고 믿는다.

民主的 統一이란 한반도 통일은 그 推進過程에 있어서 廣範圍한 集團의 參與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立場은 思想, 制度, 理念을 초월하고 民族大團結을 추구하는 初期의 原則과 약간 다른 것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南北對話時 나타난 평양측의 解釋과 事實上 一致한다.

北韓은 統一推進 過程에서 廣範圍한 參與를 主張하는데는 두가지 理由가 있다고 얘기한다. 첫째, 統一問題는 社會의 特定한 階層이나 階級의 利益보다는 한민족 全體의 幸福에 影響을 주는 民族的 問題이기 때문이다. 둘째 全體 한민족은 統一推進 過程에 眞實로 參與하기를 願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統一協商은 南韓政府가 主張하고 있는 南北韓의 責任있는 當局사이의 對話로만 制限해서는 안되며 모든 政黨과 社會團體의 代表者들이 廣範圍하게 參與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져야 한다는 意味다.

北韓은 이 方法이 統一推進 過程에 있어서 民主化 實現을 保障하는 方法이라고 主張한다.

끝으로 平和的 統一이란 韓半島 統一은 戰爭이 없는 非暴力的인 手段에 의해 達成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統一은 内部問題이기 때문에 韓民族은 非平和的인 方法을 통한 統一接近을 묵과할 수 없다. “오늘날 國際的인 問題에서 조차도 非暴力的인 方法으로 많은 解決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韓半島 統一問題를 平和的인 方法으로 解決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그들은 반문한다.

北韓은 平和的인 統一原則을 主張하면서도, 이상스럽게 戰爭을 避할 平和的인 方法인 “對話와 協商”을 꺼린다. 이러한 對話채널을 꺼리는 것은 確實히 政治的인 理由이다. 南韓이 現在 断絶된 南北對話를 再開하자고 主張하고 있지만, 당분간 現在의 平壤政權은 韓國의 全斗煥政府와의 協商을 거부하고 있다.

具體的인 方針과 方案

北韓은 그들이 提示한 것이 아닌 韓半島 統一의 여러 方案들은 根據가 없으며 비관적이라고 하여 무시한다. 北韓은 쉬운 問題에서 始作하여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면서, 점진적으로 相互不信을 減少시키는 戰略인 소위 段階的 또는 점진적 方法을 두개의 韓國을 永久化시키는

分裂論者의 계략에 불과하다고 規定한다. 그들은 統一達成은 쉽지 않으며, 南·北韓間의 심각한 不信이 가로 놓여 있음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이질적인 制度·思想의 장벽은 克服되어 질 수 없다는 데에는 同意하지 않는다.

36年間の 分斷狀態는 5,000年의 民族史를 통해 形成된 同質性을 파괴할 수 없다고 主張한다.

北韓에 의하면 韓半島 統一을 促進시키는 具體的인 措置는 外軍撤收, 韓半島 緊張緩和 및 南韓社會의 民主化에 있다고 한다. 그들은 外部 仲裁가 平和保障策이라는 南韓의 主張을, 民族主義者의 立場에서 볼때, 英터리 主張에 不過하다고 반박한다. 北韓에 의하면, 南韓의 미군주둔은 한반도에서 平和를 保障하고 豫想되는 南侵을 阻止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東아시아에서 美国 自身の 戰略的 利益을 增大시키기 위해 配置된 것이라고 한다. 北韓은 미군주둔의 根本理由는 北韓에 의한 공격저지에서 아시아에서의 蘇聯의 膨脹저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北韓은 지미 카터 前 美国 大統領이 1982年까지 南韓에서 美軍을 철수하려던 그의 政策을 變更시킨데 대해 신랄히 攻撃한다.

1977年 처음 發表된 이 철군정책은 1980年 取消되었다. 그들은 카터가 그의 政策變更을 正當化시키는 理由에 대해 特히 批判的이다. “우리가 한해만에 30%의 軍事力 增強을 이룩했다는 것은 과장된 생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質問하면서, 北韓은 카터 行政府가 當初 北韓 軍事力 評價를 잘못했음을 깨닫고 北韓의 軍事設備 및 能力을 當初보다 높게 修正 評價했다는 事實은 생각하지 않는 것같았다.

北韓은 역시 1972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自主的 統一原則의 遵守를 南韓이 배반했다고 批判한다. 그들에 의하면 1972年 強力한 韓

国中央情報部長 이후라이 평壤을 訪問했고, 金日成과 만났을때 自主的 統一原則의 意味를 詳細히 들었다. 그러나 그후 서울에서의 記者會見에서 그는 南韓에서의 美軍과 유엔軍은 성명문상의 外勢가 아니라고 主張했다. 北韓에게는 駐韓美軍은 유엔軍이 아니다. 나아가서 유엔군은 内部軍隊로 될 수 없다.

北韓은 美軍은 南韓에서 철수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主張한다. 즉 美軍이 自發적으로 南韓에서 철수하든지, 美国이 南韓當局의 要請에 의해서 美軍을 철수하든지, 南·北韓이 對話와 合意를 거쳐 철수를 同意한 후 共同으로 美軍撤收를 要請하든지, 아니면 대중집단의 要求에 의해서 美軍이 철수되어 질 수 있다. 美軍이 南韓에서 철수하는 더욱 순조롭고 명분있는 方法은 北韓과 美国間에 平和協定을 締結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主張한다.

北韓은 역시 美·北韓間의 平和協定은 1953年 締結된 休戰協定을 대체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戰爭을 終熄시킬 수 있다고 主張한다. 北韓은 韓国에서의 外勢除去라는 主張과 美国과 直接協商 提案의 兩者를 同一視한다. 後者は 前者를 위해 必要하다고 그들은 主張한다.

北韓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는 戰爭을 防止하는데 緊急히 必要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南韓政府가 美国으로부터 더욱 現代化된 武器를 입수하기 위한 理由로서 北韓으로부터의 威脅을 자주 使用하여 왔다고 北韓은 생각한다. 北韓이 南侵한다는 南韓側主張의 虛構性은 北韓이 南韓을 공격할 意思가 전혀없고, 또한 韓半島 緊張緩和의 具體的인 方案을 北韓이 이미 公式적으로 發表했다는 事實로도 證明이 된다고 그들은 主張하고 있다.

北韓·美国의 平和協定은 상호불가침을 保障하며 南韓에서의 美軍의

必要性을 除去할 것이라고 主張한다. 平和協定 締結은 平和 5 個項 提案에서 提示된 것처럼 相互軍隊 減縮을 包含한 廣範圍한 問題에 걸쳐 南韓과 합의를 可能케 할 것이며, 北韓은 카터가 提案한 3 當國會議(北韓, 南韓, 美國)에 대해서 美國은 韓國의 內部問題에 관여할 일이 못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平和協定은 北韓과 美國間的 直接的인 問題이며 南韓은 1953年 韓國休戰協定에 署名하지 않았기 때문에 北韓과 美國間的 평화협정에 參與할 資格이 없다고 主張한다.

北韓側 討論者들은 北韓·美國間的 會談의 옮겨버로서 南韓參加의 可能性(1979年 박-카터 提案의 答辯으로서 公式的으로 取한 立場)을 排除하지는 않았다.

北韓은 한반도에서의 緊張緩和를 위해 많은 具體的인 措置를 實行해 왔다고 역시 主張한다. 예컨대 북한은 1960年 4月 19日 學生騷擾, 1979年 10月 26日 朴正熙 大統領 암살 및 1980年 5月 光州事態와 같은 南韓에서의 政治的 危機를 利用하지 않았다. 南韓에서의 政治的 소요를 利用하기 보다는 北韓은 南·北韓 首相間的 會談을 提案하는 등 南北對話를 提案하여 왔다. 요컨대 北韓은 南韓政府는 그들의 政治的 支配를 永久化할 目的으로 南侵의 구실을 使用한다고 말한다.

긴장완화를 위한 措置가 提案되었을 때 相互不信 때문에 이는 시기상조라고 南韓이 主張하자, 北韓은 이는 철면피같은 거짓말이라고 역설했다. 南韓의 立場은 統一推進을 포기하는 것이다. 軍備減縮은 南·北韓 사이의 불신을 除去시키는데 寄與한다고 北韓은 생각한다. “총을 들이밀때 어떻게 악수를 要請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南韓이 긴장완화를 위해서 어떤 具體的인 措置를 提案할 것인가 하고 南韓當局에 質問했을때,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러한 침묵은 南韓當局이 緊

張緩和와 統一努力에 不誠實하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라고 北韓은 말한다.

Ⅱ. 北韓이 提案한 解決策

北韓은 南韓指導者들이 統一問題에 不誠實하고 非妥協的이라고 하면서, 韓半島 統一에 關係 독자적인 立場을 取한다. 그들은 南韓이 民族分斷 및 分裂을 永久化시키는 계략을 획책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韓民族의 民族統一原則을 지지한다고 強調하면서 南韓과 北韓의 立場을 예리하게 比較한다. 이러한 단순하고 과장된 主張은 자칫 그릇치기 쉬우며, 이 기적이지만, 外部世界에서 특히 北韓이 主張하는 韓國統一 方案에 대한 北韓指導集團의 구상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論議해 볼 必要性이 있다.

北韓은 이 目標을 達成시키기 위한 두개의 선결조건을 부가한다. 즉 南韓에서 美軍駐屯은 韓半島 統一의 조기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認識할 程度로 그들은 現實的이다. 그러나 北韓이 現 南韓政府의 퇴진의 기 대에서도 現實的 立場인지는 確實치 않다. 첫째問題는 이미 論議 되 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번째問題인 現 南韓政府의 대변혁적인 퇴진에 대한 北韓의 立場을 살펴보고 1980年 10月 金日成이 發表한 南·北 韓 協力 및 연방안을 論議코자 한다.

南韓에서의 民主化

北韓은 “南韓社會의 民主化”(北韓은 이 用語를 使用)는 韓半島 統一을 達成하는데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이 民主化란 南韓의 파시스트

軍事政權은 眞實로 民族統一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民族主義者的 양심을 가진 民主·愛國人士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南韓은, 北韓이 現在 반자본주의를 主張하고 있지 않으므로, 反共을 主張해서는 안된다. 대신 北韓은 南韓이 共產主義를 認定하는 政策을 採擇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提案으로 北韓이 南韓의 内部問題를 간섭하며, 또한 이러한 提案이 7.4 공동성명의 精神에 위배되지 않는지 質問했을 때 北韓은 회피하는듯 독선적인 態度로, “統一을 위해서 制度의 差異를 초월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南韓政權의 애국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는가”라고 主張하였다.

북한에 의하면 民族統一問題에 대한 각자의 立場 差異가 1971- '72, '79 및 '80에 세번 있었던 南北對話 失敗의 根本理由라고 한다. 그들은 서울政府가 統一問題를 한반도 분열을 永久化시키는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理由때문에 現 南韓政權은 統一協商에 參與할 資格이 없다고 그들은 主張한다. 우리 그룹은 北韓의 立場이 非論理的이고 모순된다고 指摘했다. 北韓은 한편으로는 統一推進에 있어서 모든 階層의 廣範圍한 參與를 主張한다. 이것은 南北韓 및 海外的 諸政黨 및 社會團體의 代表者들까지 包含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南韓의 現政府를 그들이 主張하는 소위 “犯罪行爲” 때문에 參加資格이 없다고 除外한다. 이러한 態度는 南韓政府가 지금까지 취해 온 입장인 양당국간의 對話 및 통일협상의 開催根據를 除去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北韓은 南韓政府의 平和的 統一提案을 한반도의 現狀態를 維持하려는 계략으로 간주하고 同 提案을 거부한다. 또한 이 提案을 두개의 韓國을 위한 음모를 꾸미는 民族分裂論者들의 計劃이라고 비난한다.

평양측에 의하면 서울측의 소위 離散家族 再結合, 즉 南韓의 “인도주의 입장”이라는 表現에 대해서도 위선적이라고 評한다. 해외동포원호위원회 議長인 허정숙은 南韓當局이 해외거주 韓国人(특히 美国과 유럽)의 北韓訪問을 妨害 및 嫌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정숙은 비엔나의 韓半島統一 國際會議에 參加하고 돌아온 후, 1981年 11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주의, 이산가족확인, 대화, 평화적 통일 등의 얘기는 모두 分裂 파시즘, 배반의 추한 빛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 사기 및 위장이라는 事實이 드러났다”

1981年 1月 12日 및 1981年 6月 5日 全斗煥大統領의 金日成과 相互訪問이라는 韓국의 提案은 統一原則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檢討할 價値도 없다고 北韓은 主張한다. 그 理由가 무엇이며, 어떤 個人이나 集團이 통일협상에서 除外된다면, 統一 3大原則 중 하나인 민족대단결 원칙이 어떻게 效果的으로 지속되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說明을 要請했을 때, 北韓官吏들은 偉대한 수령 金日成은 민족반역자와 同一視 될 수 없다고 主張한다. 北韓은 朴正熙에 대해서도 흡사한 立場을 取했으나 결국은 그와 協商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想起시켰을 때, 그들은 現 南韓政府는 1980年 5月 光州에서의 愛國市民의 대학살이라는 韓國민에 대한 犯罪 때문에 이전의 어떤 독재자보다도 더 나쁘다고 主張한다.

統一問題에 대해 서울과 協商하기 위해서는, 現 政權이 민족주의자적 良心을 가진 愛國集團 및 民主人士들에 의해 바뀌어 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은 主張한다. 이것은 양당국이 外交적으로 解決해야 할 問題이며, 南韓에 대한 北韓의 비타협적이고 독선적인 立場은 당분간 統一問題에 관한 평양과 서울의 效果的인 對話 및 協商의 어떠한

可能性도 방해할 것이다.

南 · 北 協力

南 · 北韓關係에 관한 具體的인 措置로서 평양정부는 한반도 통일의 군사적 解決을 防止하고 南 · 北韓의 相互不信 및 긴장의 해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불가결한 첫 段階라고 동의하는 것 같다. 이러한 見地에서 그들은 1972年 南 · 北 조결위원회 모임시 평양측이 “다방면의 協力和 交流”를 提議한 事實을 指摘한다.

軍事 · 政治 · 經濟 · 文化 · 인도주의를 포함한 모든 分野의 問題를 同時에 解決하자는 北韓側의 提案은 南韓政府의 立場에서 볼때 實現性이 없는 것이다. 이 포괄적인 接近은 南韓側이 主張하는 選別的 · 漸進的, 段階的 接近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또한 紛争解決 및 處理의 見地에서 볼때 양당국의 3大原則을 履行하는 接近方法의 差異는 상대방의 의도와 可能性을 판단하는 양자의 戰略的 思考의 差異에 그대로 反映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南北韓間의 교착상태를 意味하며 그리고 이것은 統一問題를 위한 意味있는 對話와 해결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本質的으로 信賴感 造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 해 주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 관해서 평양정부는 이것이 한반도 統一을 달성하는데 가장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案이라고 主張한다. 연방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1980年 10月 第6次 노동당대회에서 김일성이 밝

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통일국가에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具體的이고 상세한 措置들을 包含하고 있다.

(1) 南·北韓의 동수의 代表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의 代表로 構成된 最高民族會議 構成

(2) 南·北韓의 기존정부(이것은 地域政府가 됨)를 指導하고, 聯邦國家의 모든 問題를 管轄하는 연방상설회의 組織

地域政府는 自主的인 政策을 遂行하지만, 연방국가는 상호군축, 군사분계선 폐지, 이미 締結된 타국가의 軍事同盟 條約의 廢止와 같은 특정한 業務를 實行하는 中립국가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變化하는 現實 즉 (1) 南·北韓의 制度上 差異의 심화 (2) 民族의 統一에의 열망 고조 (3) 強大國間 勢力擴張競爭 強化 및 全世界人民의 민족자결 및 主權要求 增大와 같은 國際環境의 지속적 變化를 反映하는 것이라고 北韓官吏는 擁護한다. 그들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의 “1民族 - 2個 自治地域政府”의 方法이 統一問題解決의 가장 合理的이고 現實的 方法이라고 主張한다. 연방안은 “1民族 - 2個政府”(獨逸式)이나 “2個政權 - 1個政府”(베트남式)과는 다르다.

理念과 制度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이는 完全한 解決方案을 아니라 할지라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 따라 적어도 평화적으로 共存할 수는 있다고 그들은 主張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初期의 聯邦案과 다른 것은 결국은 韓半島 統一政府를 誘導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解決策이 아닌 그 자체가 統一民族政府가 되리라는 추정이다.

연방안에서 提案된 두 개의 獨立된 體制의 연방은 과도기적인 措置가 아니고 永久的인 것이라고 그들은 主張한다. 이 案의 成功은 각

地域의 自主性, 相對方에 의한 비방 및 간섭불식(이것은 現 狀況의 南北韓關係에서는 어려운 조건임)의 절대적인 保障이 전제조건이다.

1980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의 새로운 項目은 최고민족회의에 해외 동포대표의 參加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南韓에서 政治的 박해를 받아 不幸하거나, 한반도 통일에 관한 南·北韓間의 論争에 中立적인 해외한국동포와 北韓이 밀접히 接觸하려는 평양의 의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평양정부가 南韓의 現政權과 統一問題 討議를 거부하는 한 많은 사려있는 교포라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北韓이 南韓을 거부하고 南韓의 政治的 安定을 파괴하는 소위 “혁명과업”을 진전시키려는 北側 共產戰略이란 것을 간파할 것이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적어도 당분간은 그 履行可能性이 희박한 청사진으로 머무를 것이다.

Ⅲ. 南·北韓關係 展望

政治的 象徴으로서의 統一

北韓의 政策路線과 그들이 提案한 解決方案에 대해 우리는 北韓政策 決定 엘리트들의 기본전제, 의도 및 動機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된다. 平壤指導層은 地域分断, 軍備競争, 그리고 北韓에 불리한 南·北韓間의 經濟競争이 벌어지고 있는 現 狀態에 대해서 確實히 불만을 갖고 있다. 그래서 北韓指導者들은 現 狀態를 바꾸려는 方向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때 統一은 国内와 海外의 지지를 얻으려는 조작된 의도가 된다. 1979年 10月 朴大統領 암살후 南韓에서의 政治狀況의 惡化와 經濟的 混亂의 出現은 南韓에 대한 平和攻勢를 개시

하는데 적절한 與件을 造成해 주었다. 나아가 平壤은 한반도 주변의 國際環境이 1978年 9月 中共과 日本의 平和協定締結 및 1979年 1月 美国과 中共의 外交關係 정상화와 같은 事件이 證明하듯이, 流動的이며 不安定한 것으로 보았다. 더구나 평양은 非同盟 혹은 第3世界 諸國들이, 北韓이 強大國의 제국주의정책을 反對하기 때문에 北韓의 統一에 대한 立場을 一般的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으로 믿었다.

이에 따라 金日成은 1978年 9月 北韓은 “支配主義”, 즉 그들의 主張에 따르면 약소국과 강대국사이에 行해지는 이러한 “支配主義”에 반대한다고 發表했다.

大部分의 이러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北韓聲明은 이미 수뇌급지도층에 의해서 政策決定의 論理的 合理性에 도달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의 政治에 있어서도 個人의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오판할 危險性이 항상 있기 마련이며, 政策決定은 순전히 政治的(權力)이라는 理由 때문에, 공상적인 論理로 合理化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個人次元이든 國家次元이든 간에 合理的인 意思決定者라면 이러한 유혹, 요컨대 過去의 과오를 배우지 않고 자신의 利益만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 잘 못된 政策決定으로 誘導하는 상호판의 危險性이 한반도에서 增大되고 있다.

北韓을 訪問하고 나서 나는 한반도 통일문제는 眞實로 解決되기가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 問題는 1945年 解放을 經驗했고 그리고 1950~1953年 韓國戰爭을 겪은 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解決되기가 힘들지도 모른다. 내가 이런 立場에 서서 얘기하면, 평양의 초대자들은 아마 나의 입장을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규정할 것이다. 투철한 現實主義者로서의 나의 지성과 직감으로 보면 한반도의 狀況은

절망적인 교착상태에 있다. 나의 비관론의 理由는 아주 단순하다. 南·北韓의 現 指導者들은 타협대신에 각자의 統一方案을 상대측에게 설득하려고만 마음 먹고 있다.

동족상잔의 戰爭과 지난 30年동안의 끊임없는 競争의 유산인 만성적 相互不信과 의혹을 緩和하기 위한 相互協力과 態度變化의 의사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타아소 및 初等·中等學校에서 본 北韓 어린이들은 主体思想 教育이 주입되고 있고 그들의 統一方案을 擁護하는 体制로 길들여지고 있다.

평양의 學生少年宮殿을 訪問했을때, 우리는 반미주의와 휴전선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의 再結合을 염원하는 두가지 주제의 연극을 상연하는 房으로 案内되었다. 친구와 敵, 善과 惡, 光明과 어두움 및 統一과 分裂간의 차이를 명백하게 하는 政治教育은 大衆集團에게는 심적 카타르시스, 그리고 대중집단을 조종하는 엘리트들에게는 心理的 滿足感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조된 緊張感을 유발하는데 드는 心理的 代價는 역시 너무나 크다.

우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 統一과 南·北韓關係와 關聯된 두가지의 잊지 못할 事件이 發生했다. 우리가 到着하던 날 서울의 前外務部長官이며 韓國軍 退役 陸軍中將이며 現在 美國에 망명중인 최덕신의 活動을 평양의 텔레비전과 新聞이 報道했다.

그는 한달동안의 北韓訪問을 끝마치고 있었다.

나는 그가 北韓을 떠나면서 가진 記者會見 內容을 보고 놀랐다. 그는 南韓에 대해서, 또 美國에 대해서 혹독히 비난했고, 반면 北韓社會를 樂園으로 찬양하고 金日成을 偉대한 指導者로 아낌없

이 칭찬하고 있었다.

確實히 그의 訪問目的은 우리의 目的과는 달랐다.

두번째 잊지 못할 事件은 北韓의 領海를 침범했다는 理由로 北韓에서 1年餘의 억류로부터 풀려나는 南韓의 어부들에 대한 텔레비전 放送이었다. 남한어부의 記者會見을 보게 된 것은 우리가 평양에 있는지 2주일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그 남북어부들의 南韓當局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北韓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예컨대 어부중 어떤 사람은 그들이 잘 待接을 받았으며 北韓측이 보여준 동포애의 환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들의 고향인 濟州道를 觀光客 유치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韓國 政府를 비난했다.

나는 이들 어부로부터 강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들은 確實히 그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行動했다. 최덕신과 달리, 이들 불쌍한 사람들은 포로들이었다. 約2週日 後 美国으로 돌아가기전 서울에서 學術會議에 參席하는 동안 나는 南韓에서 똑같은 어부를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南韓의 기자들의 質問을 받은 어부들은 북한 억류생활이 얼마나 무서웠던가를 기꺼이 얘기하고 있었다. 確實히 이들 절망적인 어부들은 양쪽 모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둘로 갈라진 조국의 비참한 선전채동의 도구가 되어 버렸다. 변절한 전 韓國指導者와 절망적인 남한어부에 關聯된 이 에피소드에서 나는 엘리트와 대중의 분열, 그리고 분단국에 살고 있는 韓國民의 비극적 狀況을 통렬히 가슴에 새겨 두지 않을 수 없었다.

南·北韓 兩側의 政治엘리트들은 서로 상대방의 信賴性을 파괴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韓半島 統一問題는 양쪽 다 상대방에 대한 大衆의 분노와 증오를 불러 일으키는 象徴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大衆은 진실로 무엇을 알고 있으며, 왜 그들 대중이 統一問題를 걱정해야 하는가? 대중으로 하여금 政治的 宣傳이나 未來의 福祉 社會 約束에 현혹되지 않고, 최대한 자유롭고 풍요롭게 그들의 生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는가?

금강산 감상

우리는 北韓旅行을 통해 분단국으로서의 韓國의 現實을 생생히 느꼈다. 한반도를 양분하고 南·北韓을 분리시키고 있는 155마일의 비무장지대는 世界에서 가장 놀라운 중무장 및 경계지역 중의 하나이다. 물론, 常識的으로 만 우리는 이 事實을 알고 있었으나, 우리가 北韓의 동해안을 방문했을 때 이 인위적이고 부자유스러운 장벽의 냉엄한 現實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DMZ는 한민족에게 物理的일 뿐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그룹 멤버는 대부분 北韓旅行 後 南韓을 여행할 計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計劃을 평양의 초대자들은 사전에 몰랐지만 우리가 체류하는 동안 우리들 大部分이 南韓을 訪問할 計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계획은 우리가 평양으로부터 公式的인 招請을 받기전 이미 세워져 있었다. 우리가 DMZ를 통과하여 서울로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政治的 現實은 이를 허용치 않았다. 서울행 최단거리인 DMZ의 남쪽 約 27마일 여행대신 평양에서 북경까지 23時間의 長距離 기차여행, 그리고 북경서 동경까지 비행기, 동경에서 서울로 비행기를 바꿔 타야만 했다.

北韓에 있는 동안, 우리는 여러 곳의 觀光地로 案内 되었다.

이들중 하나가 DMZ 가까이 동해안에 있는 금강산이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6대의 벤츠를 타고 새롭기는 하나 별로 통행이 없는 5차선 고속도로를 따라 평양에서 원산으로, 원산서 잠시 휴식 후 다시 DMZ 가까운 양양에 도착했다. 約 300 km의 이 여행은 꼬박 하루 걸렸다. 금강산은 韓国人에게는, 유럽人的 알프스와 같은, 世界에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旅行에 열중하고 있었다.

여행동안 우리는 3개의 유명한 장소중 내금강을 除外한 해금강, 외금강 두곳만 여행했다. 2일간의 觀光旅行 案内員은 유명한 곳의 배경을 說明한 60歲初半의 초로의 신사였다. 그는 많은 전설과 일화 및 시를 얘기하며 암송했다. 그가 암송한 것중 하나는

오 금강산, 아름답구나!

봄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여름바람이 몰아쳐도 잘 견디어 내는구나

가을엔 붉게 물들어 있고

겨울에는 빛나는 백설로 덮여 있구나

이 구절은 많은 한민족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 구절은 몇일후 평양의 副首相과의 면담시 우리가 금강산에 갔다 온 것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암송했다. 案内員은 처음에는 명랑했으나, 旅行 이튿날은 갑자기 政治적으로 되어, “위대한 수령” “敬愛하는 指導者” 같은 事務的인 말을 꺼냈다. 確實히 이 고전지식과 민속의 지혜를 가진 초로의 신사는 政治思想教育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았거나, 당이 지시한 外國 손님에 대한 政治教育 任務에 대해 면역이 되어 있지 않았다.

금강산은 일생에 한번은 모든 한민족이 가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만약 남과 북의 모든 國民에게 觀光旅行이 開發되어 진

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상호간에 신랄히 비난하고 있는 두 개의 韓國이 存在하는 與件下에서는 觀光交流는 不可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北韓官吏들과 對話時, 可能한 한 금강산 관광을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했다.

금강산관광시 나는 지나간 約 30年前的 추억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1951年 나는 우리가 서 있는 수마일 南쪽의 전선에서 전투 장교로서 가을과 겨울을 보냈다. 北韓과의 戰鬪에서 소대장으로 韓國戰에 參戰한 나는 DMZ 가까운 地域을 訪問하고 美國人의 폭격과 사살이 얼마나 잔악했던가에 대한 說明을 들었을때 가슴이 북받쳐 올랐다. 모두가 고통을 당했으나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한 戰爭의 비극을 누군가가 분명히 선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北韓側으로부터 韓國戰에 대한 說明을 들었을 때, 韓國統一 展望에 대해서 깊은 비관에 빠졌다. 韓半島 統一을 達成하는 하나의 方法은 戰爭인데, 이것에 의해서 南·北韓中 한쪽은 이기게 된다. 이것은 소위 統一達成을 위한 베트남식 解決方法이다.

確實히 베트남은 1975年 越盟이 월남의 사이공정권을 이기고 共產主義者가 勝利하였지만, 韓國戰은 그러한 統一을 達成치 못하고 대신 교착상태의 結果를 낳았다.

戰爭에서 빛은 인명살상과 物質的 파괴를 보더라도, 統一을 성취하는 手段으로서 武力의 使用은 避해야만 한다. 韓國戰의 歷史는 韓國人에게 값진 教訓을 가르친다. 다른 方法을 찾아야 한다.

兩側이 發表한 現 提案들은 平和的인 方法을 표방한 統一方案이 있지만, 아마 우리는 또다른 平和的 統一方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理想主義的 過程을 主張하는 사람들은 現指導層이 第3政治勢

력을 代表하는 좀더 民族主義的이고 愛國心이 강한 集團으로 代替되어 야한다고 主張할 것이다. 南·北韓에 이러한 새로운 指導體制가 登場한다면, 이들은 “韓半島의 中立化 統一”에 동의할 것이다. 비록 유토피적이고 이상주의적이긴 하지만, 진지하게 考察하고, 研究해 볼 價値가 있는 이 “중립화통일방안”을 적어도 몇몇 學者들은 擁護해 왔던 것이다.

Ⅳ. 展望 -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해서, 단기전망과 장기전망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結論을 맺고자 한다.

短期展望

現·평양정부는 당분간 서울政府와의 對話를 아마 계속 거절할 것이다. 이러한 立場은 南韓의 現 與件 - 그들은 옳든 그르든, 流動的이고 不安定하다고 보고 있다 - 에 대한 그들의 判斷에 기초하고 있다.

더욱 重要的 것은, 南韓과의 協商은 “軍事파쇼體制”의 正統성을 認定하게 되는 結果가 될 뿐이며, 이러한 것은 南韓이 窮極的으로 願하고 있는 目標라고 北韓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1972年과 같은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각오한다. 그때 南北對話는 朴正熙大統領에게 유신체제로서 그의 權力을 공고히 하는 구실을 주었다는 것이다.

만약 전대통령의 指導體制下에 南韓이 政治的 安定과 經濟回復을 實現한다면, 北韓이 南北對話 거부의 단기적 戰略은 失敗로 돌아가고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 평양정부는 대화거부와 함께 南韓

에서의 폭동 및 革命을 선동하는 두가지의 政策만을 계속 고수할 수 밖에 없다. 6차 노동당대회시 表面화된 金正日의 權力層 出現으로 보아 北韓은 南韓에 대한 現在의 경직되고 비타협적인 政策을 계속 물고 나갈 것 같다. 現 韓國政府가 成功的으로 政治的 秩序를 維持하고 權力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한 뜻있는 南北對話의 회복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1987年(그때 全大統領任기가 끝남)前에는 韓半島 統一問題는 어떠한 진전도 있을 것 같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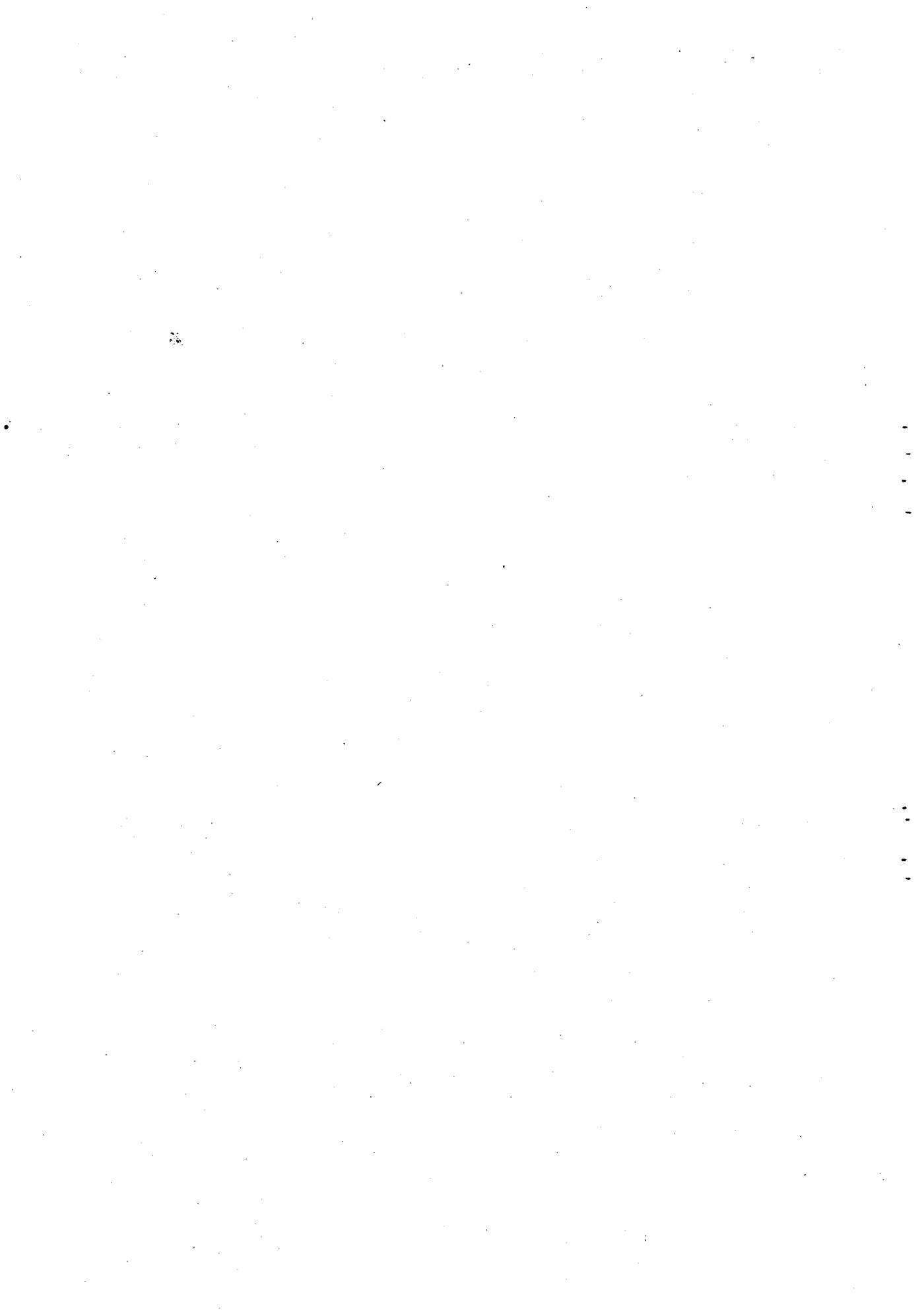
長期展望

그러나 韓國에서 革命的 大變動의 기대가 가까운 將來에 展望되지 않는다면 北韓은 韓國에 대한 現在의 비타협적인 態度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韓國政府가 數年內에 政治的 安定과 經濟回復을 達成한다고 가정한다면, 南·北韓間의 經濟力과 軍事力에 있어서 不均衡의 增大는 北韓指導體制로 하여금 韓國과의 協商問題에 좀더 融通性있고 現實的인 立場을 갖도록 하게 할 것이다.

더욱 重要的 것은, 金日成死後 北韓 指導體制內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後繼者 危機는 좀더 온건한 指導體制의 出現을 可能케 할지도 모른다. 金正日의 호전성에 대한 추측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中國에서 모택동사후의 指導體制에서 나타난 것 처럼 國內 및 海外에서의 實用的이고 現實的인 意見에 민감한 反應을 보일지도 모른다. 變化된 狀況下에서 金日成후계체제는 現 北韓의 民族統一에 대한 立場을 修正하여 韓國 指導體制와 좀더 화합적이고 유화적인 立場을 취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만약 北韓에서 内部的으로 이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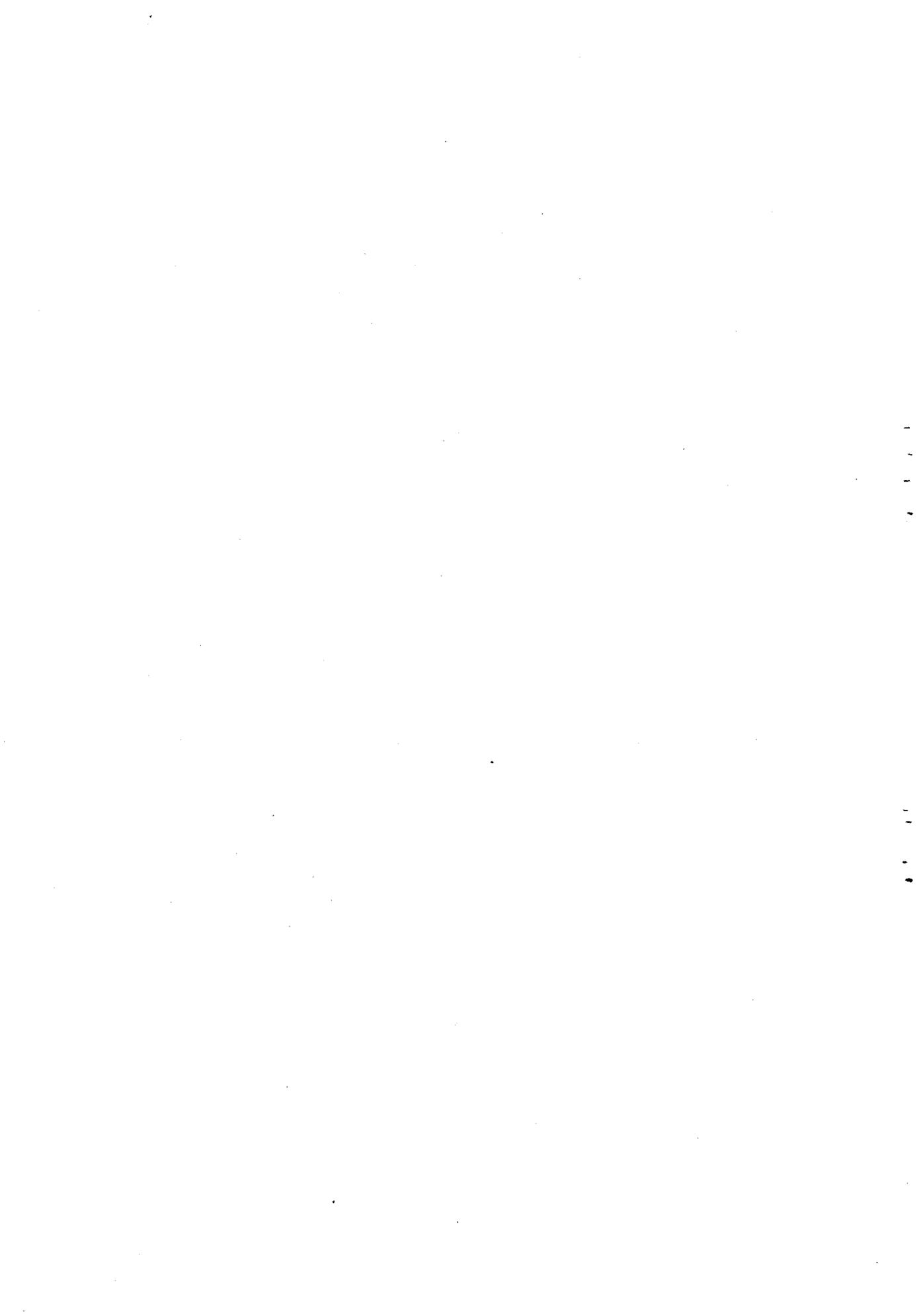
은 變化가 實現되고, 이 變化가 適切한 시기에 外部로부터의 지지를 獲得한다면 南北對話의 재개와 窮極的으로 분단조국의 통일은 未來의 韓國世代들에게는 전혀 不可能하다고 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結

論

(김 종 익 , 고 병 철)



앞에서 자세히 說明한 것처럼 우리 일행의 北韓 여행은 1981年 여름에 이루어졌다. 이만우 教授는 비록 우리와 同行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北韓을 여행했다. 비록 일행 6명의 團體訪問이었지만 어떤 組織을 代表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들은 多樣的 觀點과 思考方式을 가진 個個人 學者이며 美國으로 歸化한 덕분에 北韓을 여행할 自由의 祝福을 받았던 것이다. 南韓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오랜 역사 동안 수난을 받아 온 한민족이 그 恥辱과 不名譽를 씻고 평화롭고 부강한 統一韓國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北韓을 訪問하고 있는 동안, 안내원이 없는 밤에는 우리들의 目擊談과 經驗을 討論하기 위해 모였다. 더우기 우리는 美國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經驗을 보다 신중하게 생각할 機會를 몇차례 가졌다. 그러나 이 책에 실린 모든 글들은 모두 자기 筆者 自身의 가치관에 의한 北韓에 대한 個別的인 認識의 소산이라는 점은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筆者들은 北韓에서도 團體라는 立場에서가 아니라 각각의 立場에서 독특한 經驗과 觀察을 하였다. 특히 혼자 北韓을 訪問한 이만우 教授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개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공통점은 앞서 소개된 글들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점들을 이 결론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김일성의 땅, 북한

北韓은 바로 金日成의 것이었다. 이들은 分離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 統一體를 이루고 있다. 北韓 도처에 散在해 있는 그의 우뚝 솟은 형상들은 北韓社會에 있어서 그의 影響力의 양과 크기, 그리고 그 強度를 反映하고 있다. 그는 先生이며, 아버지이며, 자비로운 사람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複合된 豫言者이기도 하였다. 어떤 계층의 北韓住民들도 한결같이 위대한 首領이 日本帝國主義의 멍에로부터 한 民族을 解放시켰으며 祖國解放戰爭과 戰後經濟 복구와 建設에의 위대한 過程을 통하여 北韓을 영도하였다고 말한다.

나아가서 北韓 住民들은 金日成의 自立과 自主의 重要性에 대한 불멸의 思想과 그의 그의 다른 저작물들이 世界到處에서 學習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맑스-레닌이즘의 進步的 發展,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견상 보기에는 北韓住民들은 그들의 초인적 指導者를 무한히 자랑스러워 하며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 金日成에 대한 이러한 誇張은 北韓社會를 金日成의 充實한 신하로 보는 것을 당연하게 하였다.

北韓住民들의 속마음이 그들의 指導者에 대한 지지와 그를 숭배하기 위한 意識과 同一한지 아닌지는 確實하지는 않지만 金日成의 카리스마와 우리에게 인지된 그의 權威는 想像을 초월한 무서운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主體의 重要性

최고의 指導者라는 단어 이외에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主體”

라는 단어였다. 대강 “自立”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말속에는 소위 김일성 사상의 모든것이 압축되어 있다. 主體思想에 따르면 人民은 國家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것이다. 人民의 問題는 그들 國家의 특수한 실정에 맞춘 그들의 思考에 따라 解決되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主體”는 國家가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자위를 위해 鬪爭할 것을 要求한다.

主體는 일견 世界觀, 생의 철학 또는 行動의 指針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北韓에서는 主體가 教育, 經濟管理, 芸術, 農業, 産業 그리고 다른 모든 행위의 中心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은 사회를 主體思想化 하자”는 캠페인으로 나타났다. 이 캠페인은 김일성의 아들이며 그의 후계자로 指名된 金正日에 의해서 始作되었다고 한다.

主體에 대한 強調의 明白한 結果는 소비니즘에 가까운 北韓住民의 강렬한 자부심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이러한 자부심의 論理的 結果는 思考方式에 있어서 편협함과 外部世界와의 접촉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상의 낙원을 建設했다고 자랑하면서도 北韓 당간부, 관료, 學者할 것없이 모두 외래의 방문객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찬사를 찾기에 급급했다. 따라서 批判的인 質問, 言及, 討論 제의들은 모두 北韓 사람들을 심각하게 경색되게 하였다.

평양의 발전상

北韓은 확실히 여러방면에서 중요한 結果들을 획득하였으며 또 그들의 자부심도 이해할 수는 있었다. 그들은 政治적으로 유래없는 통합을 達成하였다. 世界에서 가장 엄밀하게 組織된 政治體制로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주민동원과 정책의 전파와 수행 그리고 정

책결정의 신속성 등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經濟的 영역에서 외래 방문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到處에 벌어지고 있는 建設現場이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韓國戰爭에서 파괴되었지만 지난 30년 동안에 걸쳐 다시 건설된 평양의 모습이다. 새로운 평양은 넓고 가로수가 줄지어 선 간선도로와 공원, 고층빌딩, 화려한 지하철과 만수대 예술극장, 2.8 문화회관, 창광원, 평양산원 등을 자랑하고 있다. 北韓은 정녕 그들의 首都를 하나의 展示場으로 變化시켰던 것이다. 일부 선택된 學校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北韓 어린이와 學生들의 芸術的 재질은 비상하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教育者로서 우리는 北韓學生들의 규율과 근면성에 놀랐다. 우리들은 밤늦게 가로등옆에서 혹은 아침 일찍 공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學生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북한 사회주의의 문제영역

조심스런 北韓 觀察者라면 北韓에서 發見되는 또 다른 問題들이 앞서 說明한 여러 成果들과 對照的임을 알 수 있다.

먼저 組織化의 程度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이것은 北韓의 이웃인 中共과 비교하면 보다 確實해 진다. 中共은 組織化되었던 모택동 時代에서 보다 實用的이고 相對的으로 느슨한 모택동 이후 시대로 變化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北韓에 비하여 自由國家이다.

김일성 個人과 그의 건설적 가계에 대한 숭배는 分명한 것이지만

이는 다만 組織化의 하나의 징후이다. 모든 성인들이 그들이 活動하는 時間內에 “ 위대한 首領 ”의 초상화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것은 다른 어떤 社會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市民들의 일상생활이 組織化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일하는 곳과 事務所, 工場, 協同農場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수요일 저녁은 언제나 共同學習이나 때때로 영화감상회가 열렸다.

매일의 勞動에 종사하는 모든 北韓사람(화이트 칼라와 專門職에 종사하는 사람을 包含하여)은 금요일의 勞動에 參加하여야 한다. 이외에 토요일 오후는 더욱 큰 규모의 共同學習會議이 열린다. 이러한 일정은 外國에 勤務하는 北韓 외교관들에게서도 보여진다. 이러한 構造化된 원칙의 注入은 北韓住民을 획일화하였다. 예를들면 우리는 천리마운동에 관한 똑같은 일화를 운전수, 안내원 그리고 부총리인 정준기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환언하면, 이러한 組織化가 다양성의 不足으로 나타난 것이다. 독창적인 思考에 起因한 革新的인 行爲는 主體의 理想郷과 배치될 우려 때문에 위협시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計劃과 통제에의 依存은 經濟建設에서의 장애와 需要·供給 창출부족, 소비재의 質的 低下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방문자들은 北韓의 展示用 建築物 建設에 드는 費用에 대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박물관, 극장, 체육관, 궁전, 문화관등 평양의 훌륭한 建築物들은 確實히 대외적 선전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建物の 외양이나 使用된 材料 등 모든것이 세계 수준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建築物들이 北韓住民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外國訪問者의 찬사용으로 보편화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이 北韓이 資源을 使用하는 最善의 方法이었는지가 궁금하

였다. 정말이지 北韓에서 資源의 적절한 사용은 主體의 命令과 民族的 금지의 다음으로 重要한 것이었다.

더우기 均衡한 소득분배에 대한 表面的인 誇張은 社會계층화 징조에 대한 均衡책으로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간부들과 잘 알려진 藝術家들은 北韓住民으로서는 영위하기 힘든 水準의 生活을 하고 있다.

또 고위층 官吏에 대한 경의의 表示는 南韓에서 보다 더욱 明白하게 表現되었다. 특히 學生들과 軍人들은 權威의 상징인 벤츠 승용차가 지나갈때 의례적으로 경례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안내원과 고급 관리들의 부총리에 대한 경의의 표시에는 놀랐다. 당과 정권기관의 고위간부에 대한 우리 일행의 무뚝뚝한 態度와 호기심 때문에 우리를 안내한 안내원으로부터 수차 비난을 받았다.

권위적인 개인이나 상징에 대한 敬愛的인 行動은 確實히 金日成 위상화의 예식과 關聯이 있다. 北韓 權力序列 25位인 부총리가 받는 敬愛가 그렇다면 北韓의 最高指導者이며, 불세출의 愛國者이며, 전설적 영웅인 金日成이야 더 말할 나위 없다.

“위대한 首領”은 몰락할 수 없기 때문에 國家 역시 몰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대한 首領”의 領導下에 있는 北韓도 언제나 精確한 政策을 遂行한다고 한다.

누군가가 北韓이 失策을 했다거나 政策이 變化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면 이는 神에 대한 모독과 동등하게 간주된다. 그들은 다른나라들도 모두 北韓의 方式과 提案을 칭송하고, 접수하고, 모방하고, 적용하려고 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요약하면, 主體思想과 民族的 금지에 대한 意識과 강박관념이 北韓社會에 있어서 어떤 가변성(flexibility)의 欠乏과 다른 國家와의 접촉, 交易을 어렵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統一에 대한 어두운 展望

北韓의 대외 경직성과 과도한 자만심은 統一의 展望에도 불길한 徵表로 보인다. 우리 일행 모두는 韓半島의 統一을 바라고 있다.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며 南과 北으로의 分断은 外部的으로 強要된 것이며 이로 인한 結果는 韓國戰爭을 包含하여 韓國民族에게는 비극이며 破壞的인 것이었다. 한반도의 統一이 빠르면 빠를수록 韓國民族은 더욱 幸福해 질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韓半島의 統一이 어려울 것이라는 失望과 슬픈 마음을 안고 평양을 떠났다.

北韓을 訪問하여 그곳의 官吏, 學者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韓半島의 統一이 요원한 기대라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狀況을 變化시키는데 스스로 無力함을 느꼈다. 거기에는 協商의 여지가 없었다. 北韓의 韓國政權에 대한 거부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다. 北韓에서 우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韓國의 現政權의 정당성을 부인하였으며 金斗煥大統領은 맑스·레닌·모택동·안중근의 결합체인 “위대한 首領”과 마주 앉아 신성한 統一問題를 論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北韓의 현 韓國정권에 대한 거부는 불가해 한 것이었다.

北韓은 韓半島統一을 원하고 있다. “統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 口號이다. 그러나 北韓은 다만 統一을 자기들의 條件에 맞게만 이루려고 한다. 北韓이 원하는 것은 對話가 아니라 金日成을 모든 韓國國民의 合法的인 指導者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統一方案도 이러한 北韓의 確信이 包含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에서 우리가 만난 관리·학자 그리고 일반 주민들과의 對話를 통

해 우리는 北韓住民들이 그들의 社會에 대해서 滿足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北韓을 지상의 낙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南韓과의 접촉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韓半島統一을 美帝國主義者와 그들의 증복에 의한 지배로부터 南韓同胞를 解放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환언하면 北韓의 관점에서는 南韓은 北韓으로 하여금 協商에 임하게 할 協商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반복하지만 北韓은 정말 主體의 나라였다. 이러한 思考의 틀속에서 對話라는 것은 당분간 생각할 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불안한 현상유지는 지속될 것이며 비무장지대를 놓고 相互 敵對와 간헐적인 무력충돌도 계속될 것이다.

北韓訪問이 우리에게 준 충격

우리의 北韓여행에서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것을 과연 얻었는가?

우리의 실제경험이 어느정도 애초의 기대와 符合했으며 또 얼마나 판이했던가? 비록 우리 각각이 다른 관점과 目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北韓에 대해서 꽤 호기심을 가졌다는 점, 우리가 직접 觀察하지 않은 공산사회 性격과 역할에 대한 기존의 관념들을 학문적으로 검증한다는 데는 공통의 態度를 가졌었다. 그리고 同族으로서 우리는 平和的인 民族統一이라는 근원적인 問題에 대하여 北韓官吏, 學者와 한 자리에 앉아 이야기 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어느정도 이러한 조그만 目的들은 達成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訪問에서 가장 골칫거리는 통제된 여행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파잉 안 내되었으며 活動時間 동안에는 혼자 보낼 수는 없었다. 안내원들은

어느곳이나 同行하였으며 비록 같은 방을 使用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호텔에서 숙박을 하였으며 식사도 같은 테이블에서 하였다. 또 어떤 기관방문이나 學者들과의 討論場은 勿論 심지어 등산까지도 같이 하였다.

우리는 안내원이 낮잠을 자거나 안내원이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호텔 옆 공원이나 뒷길에서 잠깐 學生들과 對話를 나누었을 뿐이다.

우리는 안내원 없이 北韓의 일반주민들과 이야기 할 機會를 보다 많이 가졌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지나친 안내는 北韓을 代表하는 실제적 모습의 觀察이 우리에게 어느정도 허용되어 있는가 라는 質問을 公式적으로 提起하게 하였다. 이미 앞에서 평양은 外國訪問客을 위한 展示用 都市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즉 이는 Potemkin Village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었다.

간신히 평양의 뒷거리를 訪問할 機會를 가졌을때 거기는 간선도로변의 建物들보다 초라하고 허술하였으며 道路사정도 좋지 않았고 낮선 우리를 본 어린이들은 놀라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大安重機械工場과 청산리 협동농장은 北韓 當局이 住民들에게 提示된 강압적 모델로서 뿐만 아니라 外國訪問客들을 위해서 建設한 模型이었다. 이 두곳은 資源 配分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分명한 것은 이 두곳을 본 것만으로 北韓의 工業과 農業의 全般的 現況을 일반화 한다는 것은 잘 못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北韓이 그들의 모든 資源을 총동원하면 어떤것도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고속도로, 철도 그리고 어떤 도로에서라도 그 주변 風景에서 느낀 興味로운 事實은 外國人의 可視地域에는 이 地域들이 비록 北韓當局의

특별한 배려속에 建設되었다 하더라도 豊年の 흔적, 튼튼한 農家,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農民과 軍人 그리고 어린이들의 모습은 무척 感動的이었다.

우리보다 더욱 많은 부분의 參觀가 許容되었던 外國人과의 對話에서 北韓의 일반적인 經濟的 條件과 生活水準에 관한 한 우리의 느낌과 觀察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北韓學者들과 의미있는 對話를 가질려고 했던 우리의 기대는 單純한 환상이라는 것이 判明되었다. 우리는 北韓體制가 유지되기 위해서 作動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構造的 억압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 했던 것이다. 우리는 어떤 主題에 관해서도 그들로부터 당로선과 같거나 아니면 유사한 대담밖에 들을 수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北韓學者, 간부, 관료들조차도 감히 그의 개인의견을 提示하지 않았다. 편안한 자리에서 個人的으로 만난 人物에게서도 이런 現象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과연 갖고 있다는 것인가? 아마 이것도 소위 “水曜學習”이니 “土曜研究會”니 하는 政治學習의 多樣성과 效率性 때문에 이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똑같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심한 統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행이 가치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北韓이 最善을 다해 이룰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北韓의 엘리트들이 最高指導者에 대한 숭배를 持續시키고, 住民에 긍지를 심어 주고 또 住民을 복종시키기 위해 情報와 상징을 어떻게 조작하는가를 배웠다. 또 金正日 후계 체제 構築을 위한 강력한 캠페인이 展開되고 있는 것도 보았으며 또 北韓住民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그 結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다.

또 北韓住民의 生活이 얼마나 스파르타式인가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依·食·住와 教育과 醫療의 혜택이 保障된다는 지상의 낙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理解하게 되었다.

우리가 北韓으로부터 받은 인상은 비록 공문서처럼 똑같이 일관된 것이었으나 얼굴을 마주한 對話에서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소한 우리는 지금 北韓住民이 民族的 증거에 사로잡힌 理由와 그들의 불안감 모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직접 관찰해 보지 않으면 느낄수 없는 것 인지도 모른다.

北韓 招請者에게 준 충격

우리는 北韓 관광을 위한 수동적 觀察者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끊임없이 反應을 나타내는 호기심 많은 訪問者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초청자 뿐 아니라 北韓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 주었을 것이다.

우리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는 우리의 끈질긴 질문을 통하여 밝혀졌다.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統一方案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얻고 싶어 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진열장 같은 모든 施設들을 보고 感動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또 우리의 도움으로 駐韓美軍이 南韓에서 철수하도록 하며, 그리하여 南韓政府를 불안하게 하는데 있었다.

커다란 2.8 문화회관의 사치스런 방에서 열렸던 어느 오후 회의에서 北韓 社會科学院을 代表하는 學者代表들은 우리로 하여금 1980년 10월에 金日成 주석이 提示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提案에 최소한의 긍정적

態度를 표시해 줄 것을 선무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提案이 協商을 위한 提案이라기 보다는 革命을 위한 것 같다고 지적을 하였다.

金日成의 提案은 現 南韓政權의 退陣을 要求하면서 단지 새로운 民主政府만을 協商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北韓측의 代表者는 우리에게 統一問題에 관한 共同 커뮤니케를 發表할 것을 제의해 왔다.

우리는 그러한 커뮤니케가 新聞社에 의해서 왜곡된 또는 오도된 어떤 事實이 記事化 될 경우에 대비한 자구책을 우리가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北韓側 招請者에게 거듭 명백히 해 두었다. 이러한 提案에 대한 댓가로 우리가 이 여행후에 기자회견이나 新聞, 雜誌 등에 여행기를 기고하지 않겠다는 約束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제약을 통하여 南韓이나 미국언론의 왜곡 可能性 마저도 극소화 하려고 했다. 우리가 아는 한 北側의 招請者는 이 약속을 지켰으며 또 우리도 우리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金日成에 대한 예찬의 의식을 거절한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을 하였다. 우리를 수행한 안내원에 의하면 우리가 訪問했던 機關의 책임간부가 이 때문에 무척 경악했다고 한다. 그후에 우리는 計劃되었던 원산방문이 나쁜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行動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끊임없는 총동질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중 어느 누구에게서부터도 조금의 찬사도 받아 내지 못했던 박물관 지배인의 실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접촉했던 人物들이 우리의 行動에서 실망을 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影響을 준 것이 아닐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충격을 주었는가? 우리는 우리와 대

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시각을 넓혀 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소한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관점의 存在를 가르쳐 주었다. 또 그들로 하여금 개인숭배라는 선동은 결국 비생산적 이라는 事實을 알려 주었다.

그래도 우리들은 소위 金日成의 傳說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分明히 알려 주었다. 그리고 金日成 自身도 인정했듯이 北韓의 主體思想 研究家들에게 金日成이 결코 主體思想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事實을 強調해 주었다. 더욱 重要的 것은 學術討論이라는 명분아래 뻔한 선동으로 몰아가는 그들에게 말과 行動으로서 分明하게 저항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統一에 있어서 北韓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그들의 理論的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리고 평양측의 認識論的 오류를 지적하려고 努力하였다.

마지막 정리

우리의 北韓 여행은 가치 있는 것이이었으며 수수께끼 같은 나라에 대한 理解를 增進시켰다고 믿는다. 그리고 實質的인 여러 制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극히 자부심 높은 民族의 강점과 약점을 把握하려고 努力하였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이라도 더 把握할 수 있었다면 여행을 계속 반복했을 것이며 北韓과의 學術的 교류 이상의 것도, 환영했을 것이다.

北韓을 訪問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충고는 다음과 같다.
마음은 열되 그러나 경계를 계속 하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訪問者들은 北韓住民들에게 어떤 感情을 注入시켜야 하며 또 개인송배에 대한 과도한 징조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訪問者들은 정중하나 明確해야 하며 어떤 原則들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워야 하며 探究的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北韓側 招請者에게 그렇게 환심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訪問者들은 또 널리 알려지면 당혹스럽게 되는 어떤것을 行動하거나 말하지 못하는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訪問者들은 學生이며 先生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면으로 北韓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한편 外部世界에 대한 진실을 北韓側에 이야기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美國의 對北韓 政策이 再評價되어야 한다는 것을 確信하게 되었다. 워싱턴의 평양에 대한 認識은 戰鬪的이며 빈틈없이 武裝되어 있으며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다는 單純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表面的인것 밖에 主張할 수 없지만 실제 본 現實은 매우 복잡한 것이었다. 北韓의 도전적 문구들은 불안감을 가장하려는 것이었으며 北韓의 指導者들도 워싱턴이나 서울의 정책입안자들 만큼이나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현상유지는 더욱 견고한 平和정책을 위해서는 변경되어야 한다. 비록 韓國을 除外한다는 條件에서 美國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北韓의 제의에 美國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까닭이 없다고 하더라도 經濟協力の 增進과 같은 물질적 교류를 통해 美-北韓關係를 增進시킬 수 있는 方法은 많이 있다. 그러한 方法으로서 兩國間에 學術접촉은 다른 분야에서의 相互교류의 增大를 위한 하나의 方案이 될 수 있을것이다. 交流는 쌍방통행을 의미한다. 즉 正當한 學術的 理由가 있다면 北韓學者의 美國訪問이 장려되고 또 許可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 유엔 北韓 代表部에 속한 北韓 외교관에 대한

行動은 적당한 狀況이 오면 어느정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北
韓에 대한 禁輸조치도 非戰略品目에 대해서는 解除되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제 3국을 통한 大使級水準에서의 對話 可能性이 模索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가장 重要한 것은 韓半島에서의 平和의 보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
대적 분위기와 認識들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 觀察의 結果는 韓半島
平和에 대한 가장 큰 危險은 相互不信과 오해라는 것을 確信하게 되
었다. 우리는 우리의 北韓여행이 이러한 條件들을 경감시키는 길고
어려운 여정에 조그만 기여가 되길 바라고 있다.

